언론사: 세계일보-3-400.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모니터로 대화하는 '암 투병' 소녀  
날짜: 20170403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03141505001  
ID: 01100701.2017040314150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신장암 투병 중인 미국의 한 소녀가 원격 조종 영상 로봇 덕분에 친구, 선생님과 끊임없이 교감하는 사연이 공개돼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br/> <br/>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ABC 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맥레넌카운티 로빈슨에 살던 페이슬리 제인 트로야노브스키(6)는 올 1월, 신장암 진단을 받고 같은 주 템플에 있는 한 병원에서 항암 치료 중이다. <br/> <br/>이제 치료 석 달이 된 페이슬리는 좀처럼 힘든 티를 내지 않는다. 처음에 의사들이 나쁜 병균을 뽑아낼 거라고 했을 때도 신나했다. 양쪽 신장 모두 암세포가 있어서 치료가 버거울 텐데도 소녀는 오히려 밝은 모습으로 가족들을 위로한다. <br/> <br/>페이슬리의 아버지 에릭은 “<span class='quot0'>딸은 고통을 잘 참아내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자기가 암을 이길 거라고 우리에게 말한다</span>”고 밝혔다. <br/> <br/>정신적으로는 이미 승리자나 다름없지만 육체적 한계는 페이슬리도 어쩔 수 없는 듯하다. <br/> <br/>페이슬리는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다니던 유치원이 어땠는지조차 가물가물하다. <br/> <br/>그런 페이슬리를 위해 유치원과 교육 당국이 원격 조종이 가능한 영상 로봇 ‘VGo’를 선물했다. 교실에 모니터가 달린 로봇을 놓고, 전달된 영상을 병실에서 보며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장치다. 다만, 제작사 측은 원격 회의와는 다른 원리라고 설명한다. <br/> <br/>  원격 조종이 가능한 영상 로봇 ‘VGo’로 교실의 친구들과 소통하는 페이슬리. 페이슬리는 지난 1월, 신장암 진단을 받고 텍사스주 템플의 한 병원에서 투병 중이다. 미국 ABC 뉴스 캡처. <br/> <br/>페이슬리의 담당 교사 앳킨스는 매주 두 번 병원을 찾는다. 비록 모니터로 얼굴을 보지만, 직접 이야기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서다. <br/> <br/>앳킨스는 “다행히 페이슬리는 로봇으로 아이들과 대화하기를 즐긴다”며 “같은 교실에서 함께 배운다는 생각으로 소통한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슬리의 부모님도 무척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br/> <br/>친구들과 같이 있지 못한다는 생각에 페이슬리는 한동안 시무룩한 적도 있었다. 지금은 기운을 되찾아 모니터 너머 친구들의 말소리와 선생님의 이야기 듣기를 즐긴다. <br/> <br/>페이슬리는 이달말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br/> <br/>ABC 뉴스는 “<span class='quot1'>페이슬리의 부모는 딸이 얼른 나아 초등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라고 있다</span>”고 전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01.txt

제목: 옛소련 유명시인 옙투셴코, 84세로 숨져…"닥더지바고 곁에 묻어달라"  
날짜: 20170402  
기자: 추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02162036001  
ID: 01100701.20170402162036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한때 반체제 작가로 이름을 날린 옛 소련의 유명시인 예브게니 옙투셴코가 1일(현지시간) 노년을 보내던 미국 오클라호마주(州) 털사에서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br/> <br/>리아보노스티, AP 통신 등에 따르면 옙투셴코는 이날 오전 입원해 있던 털사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br/> <br/>부인 마리야 노비코바는 “남편이 친지와 가까운 친구들에 둘러싸인 가운데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br/> <br/>그의 아들은 부친이 암으로 사망했다면서 “6년 전 신장암 판정을 받고 신장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얼마 전 암이 재발했고 지난달 31일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고 밝혔다. <br/> <br/>옙투셴코는 옛 소련이 붕괴한 지난 1991년부터 오클라호마주로 이주해 현지 대학에서 시와 영화사 강의를 하며 가족과 함께 생활해왔다. <br/> <br/>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가 밝혔다.  <br/> <br/>미하일 고르바초프 전(前) 소련 대통령도 “<span class='quot0'>그의 시는 수백만 명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span>”이라고 애도했다. <br/> <br/>고인은 생전 유언에 따라 자신이 오래 살았고 ‘닥터 지바고’를 쓴 소련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묘가 있는 모스크바 서쪽 외곽 작가 마을 페레델키노에 묻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옙투셴코는 1932년 시베리아 도시 이르쿠츠크 인근 지마에서 태어난 이후  모스크바에서 문학을 공부한 뒤 저항적 시들을 발표하며 작가로서 입지를 다졌다.   <br/> <br/>19세의 나이에 ‘미래의 전망’이라는 첫 시집으로 소련 작가협회에 최연소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1957년 발표한 시 ‘지마역’이 개인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퇴학당했다.  <br/> <br/>그는 30여 년간 소련을 지배하다 세상을 떠난 스탈린의 독재와 관료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미학적 기준에 근거한 예술의 자유를 옹호하는 시들로 유명해졌다.    그에게 세계적 명성을 안겨준 대표적 시는 1961년 작 ‘바비 야르’다.   <br/> <br/>1941년 나치 독일이 우크라이나 키예프 바비 야르 계곡에서 유대인 3만여명을 처형한 대학살을 규탄하고 소련 내 반(反)유대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시였다. 1963년엔 노벨문학상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br/> <br/>150편 이상의 저작을 가진 그는 시인뿐 아니라 산문 및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배우 등으로도 활동했다.    <br/> <br/>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02.txt

제목: [밀착취재] 산동네 아이들의 어린이집…국가 보육을 되돌아보다  
날짜: 20170402  
기자: engine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02142514001  
ID: 01100701.2017040214251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지난달 30일 서울시내의 한 산길을 올랐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1일 보육교사 체험을 하기 위해서였다. 진달래 무리가 바람에 흔들리며 꽃망울을 터트렸다. 어린이집은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산 중턱에 있었다. 꼭대기에서는 서울이 굽어보였다. <br/> <br/>“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 지낼 작은 선생님이 왔어요. 환영 박수∼” <br/> <br/>새초롬한 눈빛이 일제히 나를 응시했다. ‘우리도 알 건 안다’는 눈빛이었다. 6세 반 보조교사로 배정됐을 때 사실 걱정이 앞섰다. 20대 초반, 보육교사가 된 친구의 직장에서 1일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다. 유치원 행사에서 호떡을 부치는 일이었다. 유치원 놀이터 옆에 가스 버너를 놓고 호떡을 지지고 있을 때 6∼7살 가량의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곡예 놀이를 했다. <br/> <br/>"얘, 그렇게 놀면 위험해." <br/> <br/>아이는 나를 힐끔 쳐다보더니 아랫입술을 쭉 내밀었다. "우리 선생님도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br/> <br/>이날은 선생님과 아르바이트생의 신분 차이, 살고 있는 지역, 아이들의 성향 차이가 모여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됐다. 아이들에게 나는 ‘꿀단지’였다. 어린이집에 사랑이 가득 담긴 꿀단지가 놓여졌고, 단지를 연 아이들이 서로 먼저 퍼먹으려고 달려들었다. 급기야 내 앞에 아이들이 일렬로 줄을 섰다. 차례차례 포옹을 했다. 사랑이 쏟아졌다. <br/> <br/>단지 관심을 보였을 뿐 별달리 해준 것은 없었다.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고 옷 색깔,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등에 반응했다. 원장 선생님은 “여기는 산동네예요. 아이들의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이 많아요”라고 설명했다. <br/> <br/>대부분의 아이들은 꿀단지에 모여들었다가 다시 또래들의 놀이에 빠져들었으나 유독 내 손을 놓지 않는 아이가 있었다. “선생님, 내 옆에 있어요. 내 손 잡아주세요.” 무릎에 앉고는 자신의 배에 내 양손을 올려놓았다. <br/> <br/>이 동네 아이들에게 자연은 가까운 친구였다. 단체로 산 능선에 조성된 산책길에 나섰다. 진달래 무리가 아이들을 반겼다. 열매를 줍는 아이들 옆으로 까치, 원앙으로 추정되는 통통한 새들이 날아다녔다. 서울의 높은 곳에서도 봄 햇살은 따뜻했다. <br/> <br/> 서울시내의 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산 능선에 조성된 산책길을 걷고 있다.산책 내내 내 손을 잡고 있던 아이가 물었다. <br/> <br/>“<span class='quot0'>선생님, 내가 낮잠 자는 동안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span>” <br/> <br/>이때만 해도 ‘내가 그렇게 좋은가. 고마워라’라며 나는 착각을 했다. 이별의 상처가 깊은 아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원장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아이는 친할머니와 살고 있었다. 부모가 이혼을 결정하면서 암 투병 중인 친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한다. 아이는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할머니의 병마와 세월을 만나야 했다. <br/> <br/>담임 교사는 “<span class='quot1'>우리 반에는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참 많다</span>”고 했다. 그렇지만 한두명의 아이를 특별히 더 챙기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반 전체를 이끌어야 하는 교사가 일부 아이를 안쓰럽다고 해서 편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br/> <br/>담임 교사는 “<span class='quot1'>집에서 충분히 사랑받는 아이는 안아달라고 했을 때 못해줘도 그냥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는 표정이 심각하게 어두워진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런 아이에게 더 신경이 쓰이고 안아주고 싶지만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대하려 노력할 수밖에 없다</span>”고 했다. <br/> <br/>원장 선생님은 “부모도 아닌데 함부로 사랑을 많이 주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적응을 못할 수 있다. 매번 그런 교사를 만날 수는 없지 않나”라며 “가정환경을 바꿔줄 수 없으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성장을 도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r/> <br/>이전까지 내게 국가의 보육은 일·가정양립을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 정부에서도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뒤에야 보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아이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다양한 체험을 하기 어려운 아이들의 안식처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아동 학대 가능성을 걱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하는 곳으로 생각했다. <br/> <br/>하지만 이곳 아이들에게 어린이집은 따뜻한 밥과 간식, 다양한 놀잇감, 친구들과 체험 활동이 있는 곳이었다. 보육을 저출산 해소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태생에 관계 없이 아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국가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보육 교사의 처우 수준을 높이고 양질의 교원을 더욱 양성해야 한다. 보육교사는 근무 시간에 화장실조차 가기 어려울 정도로 바빴다. <br/> <br/>이날 내내 나의 손을 잡고 있던 아이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사를 했다. <br/> <br/>“선생님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해. 오늘 너를 만나서 정말 기뻤어.” <br/> <br/>아이는 그렇게나 찰싹 붙어있었음에도 전혀 응석부리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푹 숙였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나도 입술을 깨물었다. <br/> <br/>그리고 이러한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등에서 최대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애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보육은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양립을 돕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출신에 관계 없이 국가가 아이를 키워주는 과정이 돼야 한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03.txt

제목: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에 양광모 현 원장 재선임  
날짜: 20170401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401031039003  
ID: 01100701.20170401031039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지난 29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에 양광모(58·사진) 현 원장을 재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br/> <br/>양 원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의 임기 동안 방사선치료기 핵심 기술과 새로운 암 치료법 개발 등 굵직한 연구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br/> <br/>또 일반 진료과목 확대와 진료 효율화를 꾀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암 병원을 구축하고, 성과시스템 개선과 경영 관리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 2년 연속 경영수지 균형을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br/> <br/>양 원장은 “<span class='quot0'>향후 2년 임기 동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설립목적인 방사선의과학 연구와 암 치료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span>”며 “<span class='quot0'>지금까지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방사선치료기 시스템을 완성하는 한편, 각종 임상연구 수행을 통한 새로운 암 치료법 개발에 매진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양 원장은 인제대 의대를 졸업한 뒤 서울아산병원 전임의, 동아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조교수, 미국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 교환 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종양학과 과장을 역임했다. <br/> <br/>이후 2010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원부터 방사선종양학과 과장과 연구센터장, 의학원장 등을 맡았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04.txt

제목: 원인모를 두통 심각할 땐 뇌종양 의심을  
날짜: 20170330  
기자: 이복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30204124001  
ID: 01100701.2017033020412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31일 오후 9시50분 EBS1 ‘명의’에서는 1.5㎏의 작은 크기이지만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통제하고 있는 ‘뇌’에 자라나는 종양, ‘뇌종양’을 다룬다. <br/> <br/>뇌종양은 두통, 좁아진 시야, 청각과 후각 기능의 감소 등 전조 증상이 있지만 뇌종양이라고 의심하기가 쉽지 않다. 환자들이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1차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단이 늦어질수록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원인 모를 두통이 심각하다면 신경외과를 찾아 뇌종양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br/> <br/> 31일 EBS1 ‘명의’에서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통제하는 뇌에 자라나는 종양인 ‘뇌종양’의 모든 것을 다룬다. <br/>EBS 제공뇌종양의 증상은 종양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다르다. 뇌종양의 종류는 15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해 증상 또한 아주 광범위하다. 주로 구토와 경련, 마비, 시력 저하,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구토를 동반한 두통이나 새벽에 두통이 심각하다면 한 번쯤 뇌종양을 의심해 봐야 한다. <br/> <br/>뇌에 처음 종양이 발생했다면 ‘원발성 뇌종양’이라 하고, 뇌 이외의 다른 장기에서 발생해 전이한 것을 ‘전이성 뇌종양’이라고 한다. 원발성 뇌종양의 경우 신경교종, 소리를 지각하는 청신경 부위에 생기는 청신경초종, 뇌를 싸고 있는 막에 생기는 뇌수막종 등이 있다. 신경교종은 악성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악성도가 가장 높아 치명적인 병으로 알려진 교모세포종은 뇌의 신경세포에 발생한 암으로 진행이 빠르며 재발률이 높다. <br/> <br/>똑같은 뇌종양일지라도 종양이 뇌 속에 자리한 위치나 악성도에 따라 예후가 달라진다. 악성 뇌종양은 수술을 통해 종양을 제거하는 게 기본이지만, 뇌종양의 특성상 종양을 깨끗하게 잘라낼 수 없다. 남은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한다. 그렇기에 방사선 치료는 뇌종양 치료에서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이다. 이 외에도 내시경 수술, 형광유도 뇌종양 수술 등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다. <br/> <br/>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05.txt

제목: 경기 ‘암 의료서비스’ 부산보다 3배 높아  
날짜: 20170329  
기자: 이현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29195022001  
ID: 01100701.20170329195022001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이 지난 9년간 꾸준히 개선됐지만 지역별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6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시스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치료가능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2005년 83.7명에서 2015년 46.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치료가능 사망’은 현재의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했을 때 조기 검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았다면 피할 수 있는 죽음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의료서비스 덕에 생명을 구했음을 의미한다.  <br/> <br/> <br/>모든 지역에서 이 지표가 개선됐으나 지역별 격차는 여전했다. 17개 시·도 중 치료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54.1명)이었고 강원(54명), 대구(53.2명), 경북(52.7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대전(38.4명)으로 부산에 비해 15.7명이나 적었다. <br/> <br/>또 지역별로 암 관련 의료서비스의 질을 산출한 값을 보면 경기(79.4점)의 의료 질은 최하위인 부산(26.5점)보다 3배가량 높았다. 이어 서울(76.5), 대전(73.5), 대구(58.8), 전북(55.9) 등의 순이었다. 자살자 수의 격차도 상당했다.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충남이 인구 10만명당 79.5명으로 제주(39.6)의 2배가 넘었다. 15∼19세 청소년 자살률도 충남(11.7명)이 가장 높았다. 자살률이 가장 낮은 전남(3.2명)에 비해 3.6배가 많다. <br/> <br/>전국 평균 뇌졸중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0.8명으로 울산(36.8명)이 가장 높았고 광주(36.7명), 세종(34.7명), 대구(34.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06.txt

제목: [재테크 레슨] 노후 중증질환 치료비용 큰 부담  
날짜: 20170329  
기자: 김라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29032128001  
ID: 01100701.20170329032128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고령화 추세가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의 풍속도를 바꿔놓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만 15세 미만 인구를 추월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게 2008년인데, 그때와 비교하면 65세 인구는 506만명에서 약 699만명으로 늘어난 반면 15세 미만 인구는 852만명에서 약 691만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br/> <br/>세대별 걱정거리도 다양해졌다. 세대별 고민이 담긴 별명이 생겨났을 정도다. 2030세대는 취업난, 경제난으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 4050세대는 노후준비는커녕 자녀 지원과 부모 부양의 짐을 동시에 짊어진 ‘낀 세대’로 불린다. 요즘은 6070세대도 마음이 편치 않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에도 쉬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절반만 은퇴한 ‘반퇴세대’의 출현이다. <br/> <br/> 신혜형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나이가 들면 자녀 지원, 부모님 부양, 은퇴 후 일자리 못지않게 더 걱정되는 일이 하나가 있다. 바로 ‘건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다. 이 세 가지 질환이 전체 사망 원인의 약 47%(2015년 기준)를 차지한다. 특히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을 이들의 선행 질환인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으로까지 확대하면, 심·뇌혈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 원인의 25%(2015년)에 이른다. <br/> <br/>이러한 중증질환을 치료키 위한 경제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치료비는 물론, 치료 후 복용해야 하는 약재나 재활치료 비용이 꾸준히 들어간다. 특히, 뇌혈관질환의 경우, 10명 중 7명은 후유증으로 인해 재활치료를 받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br/> <br/>큰 병은 호시탐탐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만성질환뿐 아니라 암, 심·뇌혈관질환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머지않아 암도 만성질환처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한다. 예방법은 쉽고 간단하다. 좋은 생활습관을 만들고 이를 꾸준히 유지하면 된다. 평소 금연,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음주와 함께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br/> <br/>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는가. 잘못된 습관은 하루빨리 바꾸고, 나이가 들수록 좋은 생활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건강은 언제나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br/> <br/>신혜형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

언론사: 세계일보-3-407.txt

제목: [재테크 브리핑] 계약체결비용 없는 변액적립보험 출시 외  
날짜: 20170329  
기자: 김라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29032128002  
ID: 01100701.20170329032128002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계약체결비용 없는 변액적립보험 출시 <br/> <br/>ING생명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기존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ING 굿스타트 변액적립보험’(사진)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을 받지 않는 만큼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결과적으로 더 높은 적립금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5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매월 ‘특별계정 운용보수’의 일정부분을 받지 않고 그만큼을 계약자 적립금에 더해 준다. 환급액은 납입 보험료에 따라 매월 특별계정 운용보수의 3.75~15%(운용보수의 50% 한도) 수준이다. <br/> <br/>온라인 전용 다이렉트 펫보험 선보여 <br/> <br/>롯데손해보험은 반려동물 시장 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온라인으로 보험료 계산에서 가입까지 가능한 ‘롯데하우머치 다이렉트 롯데마이펫보험’을 지난달 출시해 판매해 오고 있다. 2013년 롯데마이펫보험(오프라인)을 선보였던 롯데손해보험은 온라인 상품 출시를 통해 펫보험 시장을 확대하고 입지를 다져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롯데하우머치 다이렉트 마이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수술, 입원 시 의료비를 담보하는 ‘수술입원형상품’과 통원진료까지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종합형상품’으로 구성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br/> <br/>3대 질병 보험료 인상없이 100세까지 보장 <br/> <br/>삼성생명이 출시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신상품 ‘건강생활보험’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신상품 ‘건강생활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보장기간인 100세까지 중도에 보험료 인상 없이 보장이 계속 된다는 점이다. 실속형의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에는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반 가입 시보다 20 ~ 25%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소위 ‘무해지환급금형’ 보험상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br/> <br/>김라윤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3-408.txt

제목: 中 도시 살면 암 걸릴 확률 35%…매일 1만명 암 진단  
날짜: 20170327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27144737002  
ID: 01100701.20170327144737002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중국에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보고서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하수와 공기의 오염으로 도시민이 일생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은 35%에 이르며, 실제로 날마다 1만명이 진단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죽은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중국 남성.최근 중국 국립암센터는 전국 347개 치료전문시설에서 수집한 확진 사례를 취합해 발표한 '도시민 건강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br/> <br/>보고서에 따르면 암 발병률은 40세를 넘어서면서 급상승했다. 암으로 사망하는 이는 매일 약 75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가장 큰 피해를 낳은 폐암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TO) 2014년 발표한 '세계 암 보고서'에도 중국인의 폐암 사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br/> <br/>중국의학과학원 암연구소의 첸완칭 박사는 "<span class='quot0'>오염된 지하수와 대기로 암 발병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환자가 많아서 '암 마을'로 불리는 곳이 전국에서 459개나 된다</span>"고 지적했다. <br/> <br/>암 마을은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창사와 충칭, 허베이, 우한 등 중서부에 집중 분포됐다. <br/>이들 지역에서는 대규모 공업단지가 가동하고 있으며, 공장에서 배출한 가스·화학물질에 오염된 토사, 스모그, 살충제와 산업 폐기물의 하천 유입 등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해 암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br/> 중국 여성이 쓰레기가 넘치는 강에서 물을 기르고 있다.한편 중국 환경보호부는 지난달 전국의 수자원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br/>  <br/>그 결과 24개 성 98개소에서 수질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와 하천을 포함한 12개 수원은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br/> <br/>중국 수리부가 지난해 발표한 '지하수 동태 월보'에 따르면 2013개 지역 지하수의 80%는 음용이나 목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br/> <br/>첸 박사는 “세계 최악인 환경오염이 시민들의 수명을 단축하고 있다"며 " 발암물질은 일상생활 곳곳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차이나 포토프레스 캡처

언론사: 세계일보-3-409.txt

제목: 말기암 걸렸다는 거짓말로 수억 챙긴 블로거 '억대 벌금'  
날짜: 20170324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24183309001  
ID: 01100701.20170324183309001  
카테고리: 국제>아시아  
본문: 시한부 암 환자였지만 치료와 식단으로 극복했다고 거짓말을 한 여성 블로거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영국 스탠퍼드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블로거는 이런 허위사실로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은 뒤 책까지 내 돈벌이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셜미디어(SNS)에서 암을 극복했다는 거짓말로 누리꾼들은 기만하고 책을 내 돈벌이에까지 이용했다가 호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 블로거 벨 깁슨.스탠퍼드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에서 지난 15일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 벨 깁슨은 소셜미디어(SNS)와 블로그에 거짓말투성이 글을 올려놓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왔다. <br/> <br/>깁슨이 꾸며낸 가짜 인생 이력은 이렇다. 17세였던 지난 2009년 뇌종양 말기에다 간암과 자궁암까지 진단받아 4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인도의 전통의학과 산소 치료, 영양가 있는 식단에 힘입어 이를 극복했다고 블로그에 올리고, SNS에도 게재했다. <br/> <br/>암 극복 수기가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하면서 인기를 얻자 그는 식단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는 한편, 출판사와 계약해 책까지 냈다. 이를 통해 41만2000호주달러(약 3억523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br/> <br/>하지만 속임수가 밝혀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깁슨이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며 30만호주달러를 모금한 뒤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한 시민단체의 조사로 드러나면서 여기저기서 그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br/> <br/>이에 빅토리아주 소비자보호청은 지난해 6월 깁슨과 그가 설립한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br/> <br/>이어 연방법원도 깁슨을 상대로 단죄에 착수했다. 지난 15일 멜버른의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주재한 데브라 모티머 판사는 “<span class='quot0'>깁슨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짓 행위를 했다</span>”며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32만호주달러(약 11억 2862만원)를 부과했다. <br/> <br/>깁슨은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항소도 포기했다.  <br/> <br/>한편 이번 사건으로 호주에서는 SNS에 떠도는 정보를 불신하는 이들이 나타났으며, 현지 언론도 검증 없이 깁슨을 음식 전문가로 소개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스탠퍼드 캡처

언론사: 세계일보-3-410.txt

제목: 수술 불가능한 췌장암 환자에 고선량 방사선치료 효과 있어  
날짜: 20170324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24031356001  
ID: 01100701.2017032403135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세포가 퍼져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체부정위 방사선치료(고선량 방사선 치료)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br/> <br/>체부정위 방사선치료는 사이버나이프 등으로 1회 또는 몇 차례에 걸쳐 짧은 기간에 고선량 방사선으로 암세포를 치료하는 것으로 몇 주에 걸쳐 수 십 차례 나눠 하는 일반 방사선치료와 구분된다. <br/> <br/>2010년 8월 부산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수술 불가능한 췌장암 진단을 받은 김모(53·여) 씨는 사이버나이프 치료와 항암 치료를 병행해 현재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br/> <br/>2011년 7월 췌장암 진단을 받은 박모(68) 씨도 항암 치료와 사이버나이프 치료를 병행해 암세포 전이가 없는 상태다. <br/> <br/>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2010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술 불가능한 췌장암 환자에게 사이버나이프 치료와 항암 치료를 병행한 결과를 살펴보니 환자 13명 중 5명이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br/> <br/>환자별 생존기간은 짧게는 4∼5개월에서 길게는 7년으로 다양하다. 1년 생존율은 69.2%였다. <br/> <br/>췌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수술 가능한 경우를 포함해도 9.4%로 낮은 편이다. <br/> <br/>특히 환자의 80% 이상이 진단 당시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전이된 상태여서 대부분 항암 치료 또는 일반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 <br/> <br/>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span class='quot0'>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생존기간이 3∼6개월이며 항암 치료와 일반 방사선 치료를 받더라도 12개월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체부정위 방사선치료로 생존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2016년 10월 이탈리아 연구진이 체부정위 방사선치료에 관한 19편의 논문을 비교 분석한 치료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br/> <br/>이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19개 기관에서 관찰한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 또는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암 수술 여부의 판가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환자 1009명의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br/> <br/>환자들이 췌장암 부위에 집중적으로 고선량 방사선을 조사하는 체부정위 방사선치료를 단독으로 받거나, 항암약물치료와 병행해 받은 결과 1년 생존율은 51.6%였고 47개월까지 생존한 경우도 관찰됐다. <br/> <br/>최철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방사선종양학과장은 “근접한 주위 장기를 침범한 췌장암의 경우 사이버나이프 등을 이용해 치료하면 종양 제어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생존율 연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2016년 중앙암등록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췌장암은 5948건으로 8위(전체 암 중 2.7%)를 차지했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11.txt

제목: 한국인 괴롭히는 위암 79%가 50∼70대  
날짜: 20170323  
기자: 이현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23193827001  
ID: 01100701.2017032319382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1년에 위암 수술을 10건 이상 진행하는 등 위암 환자들이 자주 찾는 병원 5곳 중 4곳이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최고 등급에 포함됐다. <br/>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차 위암 적정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98개 병원이 1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심평원은 2015년 한 해 동안 18세 이상 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위암 수술(내시경 또는 위 절제술) 2만2042건에 대해 치료 적정성을 평가했다. <br/> <br/>평가대상인 221개 병원 중 △수술건수 10건 이상 △내시경절제술과 위내시경 모두 시행 △보조요법영역 6개 지표 중 3개 이상 발생 등 종합점수 산출기준에 부합하는 병원은 114곳이었고, 이 중 98곳이 1등급을 받았다. 2등급은 9곳(7.9%), 3등급은 4곳(3.5%), 4등급은 3곳(2.6%)이었고 최하위인 5등급은 없었다. <br/> <br/> <br/>1등급을 받은 병원은 서울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4곳, 경상 22곳, 충청 9곳, 전라 8곳 등의 순이었다. <br/> <br/>위암은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순위 2위로 폐암, 간암에 이어 사망률이 세 번째로 높다. 심평원은 국민에게 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4년부터 위암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평가는 △내시경검사 기록률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수술 후 사망률 등 총 19개 지표로 이뤄진다. <br/> <br/>이번 평가에서 주요 지표의 결과는 1차 때보다 개선됐다. 내시경검사 기록률은 98.1%로 1차(97.4%)보다 0.7포인트 올랐고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도 85.4%로 전년(84.0%)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수술 사망률도 평균 0.66%로 1차(0.88%)보다 낮아졌다. <br/> <br/> <br/>위암 환자 5명 중 4명(75.7%)은 암 초기인 1기에 발병 진단을 받았고 2기 9.8%, 3기 11.5%, 4기 3.0%였다. 남성(68.7%) 환자가 여성(31.3%)보다 2배 이상 많았고 50∼70대의 발병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50세 미만 15.2%, 50대 26.0%, 60대 26.4%, 70대 26.4%, 80세 이상 6.1%였다. <br/> <br/>이번 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병원은 서울적십자병원, 광명성애병원, 인천시의료원, 여수전남병원이었고, 4등급은 대림성모병원, 동국대경주병원, 광주보훈병원 등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향후 하위기관 등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방문을 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12.txt

제목: 美 가슴확대수술 받은 여성 희소암 사망…암 증상 359건  
날짜: 20170323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23112117001  
ID: 01100701.20170323112117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미국에서 가슴 확대술로 암이 발병한 사례가 350건 넘게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도 발생했다고 CNN 등 현지 언론이 22일 보건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br/> <br/>CNN 등에 따르면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이날 가슴에 보형물을 넣는 방식의 '임플란트 유방 확대술'을 받은 여성 9명이 희귀암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ALCL)'으로 숨졌고, 전 세계적으로 암 증상 사례가 359건 보고됐다고 밝혔다. <br/> <br/>가슴 확대술과 ALCL에 관한 잠재적 관련성이 처음 보고된 2011년에는 이러한 사례가 10건 미만으로 보고됐었다. <br/> <br/>이번에 확인된 희소암은 '텍스처 타입' 보형물을 사용한 여성에게서 대부분 발병했다. 텍스처 타입은 감촉이 단단한 느낌의 보형물이다. <br/> <br/>FDA 측은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유방 확대술을 받은 여성은 희귀암 발병 확률이 매우 낮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br/> <br/>FDA는 '지속성 피하 혈종'을 앓아 치료를 받는 여성에게서도 드물게 희소암이 발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r/> <br/>세계보건기구(WHO)는 유방 확대술과 관련된 ALCL을 '유방 확대술 후 발병할 수 있는 드문 T세포 림프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FDA도 이에 동의했다. <br/> <br/>FDA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고된 사례가 매우 적기 때문에 가슴 보형물 제거를 권하진 않는다"며 "<span class='quot1'>추후 보고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span>"고 전했다. <br/> <br/>한편 ALCL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굉장히 희소한 암의 한 종류로, 유방암과 별개의 질환이다. FDA는 인공유방 시술과 상관없이 해마다 여성 50만명 중 1명이 ALCL 확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br/> <br/>삼성의료원에 따르면 ALCL의 발병원인은 아직 정확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감염과 화학물질 노출, 의학적 치료와 같은 환경적 독소 등으로 발병 위험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13.txt

제목: 에이즈·간경화 말기환자 ‘호스피스’ 서비스  
날짜: 20170322  
기자: 김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22194248003  
ID: 01100701.20170322194248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말기 암환자에 국한됐던 호스피스가 만성 간경화와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등의 말기환자까지 확대된다. <br/> <br/>보건복지부는 22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br/> <br/>연명의료결정법상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란 ‘말기환자(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포함)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뜻한다. <br/> <br/>시행령에 따르면 호스피스 대상이 오는 8월부터 말기 암과 에이즈, 만성 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질환을 가진 말기환자로 확대된다.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규정됐다. 시행규칙에는 말기환자와 관련한 질환별 세부 진단기준이 마련됐다. <br/> <br/>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의 법적 개념과 요건을 최초로 설정했다. 법적 정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단지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br/> <br/>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로 정의됐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세부 판단 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내년 2월부터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건강한 성인도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 의사를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미리 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br/> <br/>아울러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제고하고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10월 둘째 주 토요일(세계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날)이 법정 기념일인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된다. <br/> <br/>복지부는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공포된 후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모여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만들었다. <br/> <br/>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14.txt

제목: 암 예방 인지율 늘었지만… 실천은 '뒷걸음'  
날짜: 20170320  
기자: 김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20193618001  
ID: 01100701.20170320193618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국민 3명 중 2명은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예방 수칙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으나 예방 수칙별로 제대로 실천하는 비율은 대체적으로 준 것으로 파악됐다. <br/> <br/>국립암센터가 성인 1200명을 상대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암 예방 인식 및 실천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비율(인지율)은 2007년 53%에서 지난해 66.8%로 향상됐다. 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기로 했거나 이미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암 예방 실천율’도 같은 기간 39.3%에서 49.9%로 증가했다. ‘국민 암 예방 수칙’ 인지율도 10년 새 45.6%에서 68.5%로 늘었다. <br/> <br/>‘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는 응답은 2008년 54.8%에서 지난해 60.1%로, ‘음식을 짜지 않게 먹는다’는 응답은 74.1%에서 78.3%로 증가했다. <br/> <br/>하지만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를 실천하는 비율은 2007년 55.1%에서 지난해 54%로 하락해 실천율이 가장 낮았다. 음주 예방 수칙 실천율도 69.1%에서 56.4%로 하락폭이 컸다. 음주 예방 수칙이 ‘하루 한두 잔 이내로 마시기’에서 2016년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강화되면서 실천율이 떨어진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채소나 과일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비율 역시 71.6%에서 63.9%로, 탄 음식을 먹지 않는 비율은 92.4%에서 87.8%로 각각 떨어졌다. <br/> <br/>보건복지부는 21일 제10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신규 항암제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를 수행한 서울대 방영주 교수에게 근정훈장을, 간암 신규 치료법 도입과 임상연구에 노력한 성균관대 백승운 교수와 유방암 치료에 기여한 가천의학전문대학원 박흥규 교수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한다. 이외에 대통령 표창 4명, 국무총리 표창 6명, 장관 표창 87명 등 모두 100명이 암 예방과 치료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한다. <br/> <br/>김준영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3-415.txt

제목: 英 냄새로 혈당 변화 감지하는 '의료견'  
날짜: 20170320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20115819001  
ID: 01100701.2017032011581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뛰어난 후각으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 변화를 감지하는 의료견이 19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소개됐다. <br/> 클레어 스타필드씨의 혈당 변화에 따른 냄새 변화를 감지한 의료견 '매직'은 발을 주인 가슴에 대며,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당뇨병 발작을 경고하도록 훈련받았다.BBC에 따르면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클레어 스타필드씨는 의료견 '매직'의 도움으로 "<span class='quot0'>지금껏 수천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span>"고 말한다. <br/> <br/>매직은 혈당 변화에 따른 냄새 변화를 감지하면 주인에게 알려주도록 특별훈련을 받았는데, 매우 미세한 변화도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제1 당뇨병에 걸리면 인슐린 생산이 안 돼 혈당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 이 같은 혈당 변화가 진행되면 환자는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게 되고, 수면에 빠지는 기면 상태에 이어 다시 혼수 상태로 발전돼 사망에 이른다. <br/> <br/>스타필드씨는 다른 환자들과 달리 발작 또는 혼수 상태로 접어들기 전 전 이상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매직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0'>안 해본 치료가 없을 정도지만, 발작을 막거나 완화하는 치료법은 지금도 개발되지 않았다</span>"며 "개가 발작이 일어나기 전 행동으로 알려줘서 지금껏 살아있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br/> <br/>이어 "매직이 없었다면 30분 간격으로 혈당 검사를 해야 할 뻔했다"며 "덕분에 당뇨병을 앓아도 충실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br/> <br/>매직은 당뇨병 발병을 주인에게 알려주는 대신 보상으로 과자를 받는다고 한다. <br/> <br/>한편 영국의 건강보험 격인 국민보건서비스(NHS)는 전립선암을 감지하는 의료견을 키우는 한편 임상시험 진행도 지원하고 있다. <br/> <br/>의료견으로 활약할 수 있는 종은 후각 능력이 탁월한 래브라도 리트리버나 스프링어 스패니얼 등의 수렵견으로, NHS는 개에게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 샘플을 맡게 한 뒤 병을 탐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 <br/> <br/>NHS 측은 "암 환자의 소변에는 암 특유의 휘발성 물질이 섞여 나오는데, 훈련을 통해 이 냄새를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br/> <br/>영국에서 의료견은 밤에 잠을 충분히 잤어도 낮에 갑자기 졸음에 빠져드는 기면증(발작적 수면증)을 앓는 환자의 보호자(?)로도 활약한다. 갑자기 쓰러진 주인을 옆에서 보호하면서 깨우는 한편 짖어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역할을 한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BBC캡처

언론사: 세계일보-3-416.txt

제목: [건강플러스] 술·담배 안 하는 김 부장이 왜 간암에 걸렸을까  
날짜: 20170320  
기자: 정진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20100315002  
ID: 01100701.2017032010031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폐암은 담배, 간암은 술”이 공식처럼 굳어져 있다. 그러나 술과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런 치명적인 암의 대부분이 술과 담배가 원인이라는 것은 오해다. 특히 간암은 90% 이상이 술과 관계 없는 간염과 지방간 방치 등으로 발생한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암에서 자유롭다”고 자신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의미다. <br/> <br/>오는 21일은 암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암 예방의 날’이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암의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습관 변화가 필요하다.  <br/> <br/> <br/>◆간암의 80% 이상이 B형·C형 간염이 원인 <br/> <br/>암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질병이다. 이중 간암의 한해 사망자수는 폐암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7만6855명이며, 이중 폐암이 1만73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간암은 1만131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br/> <br/>간암 원인의 80% 이상은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다. 대한간암학회(2014년 기준)는 간암 환자의 72%가 B형간염 바이러스(HBV·hepatitis B virus), 12%가 C형간염 바이러스(HCV, hepatitis C virus)가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알코올에 의한 직접적인 원인은 9%에 불과하다. <br/> <br/>B형간염은 바이러스를 지닌 어머니에게서나 수혈을 통해, C형간염은 수혈,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 성접촉 등으로 감염된다. B형간염은 몸의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세포를 공격하면서 간세포의 섬유화로 인해 간경변증(간경화)이 진행돼 간암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정기검진과 항바이러스치료제 복용 등 관리가 중요하다. C형간염의 경우도 약 30%가 간경변증 및 간암으로 진행한다. <br/> <br/>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 10년간 만성 B형 간염약을 복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복용을 철저히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사망, 간이식, 간암 등 중증 합병증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을 90% 이상 철저히 복용한 환자들이 50% 미만으로 복용한 경우에 비해서 사망이나 간이식 위험은 59%, 간암 위험도는 20%가 감소했다. <br/> <br/>그러나 지난해 대한간학회 설문조사에서 B형간염 감염자 중 ‘치료를 받았다’는 답변은 67%에 그쳤으며, 33%는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형 간염의 경우 지난해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병원 집단 발병 이후 관심이 늘긴 했지만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자신의 병을 아는 경우가 35%에 불과한 형편이다.  <br/> <br/> <br/>◆간암의 위협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br/> <br/>B형·C형 간염바이러스와 알코올에 의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외하고 남은 ‘기타’의 경우는 식습관,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간이다. 간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면 정상 간이고, 그보다 더 많은 양의 지방이 축적되면 지방간이 된다. <br/> <br/>지방간의 원인으로는 음주가 종종 거론되지만, 사실 음주를 즐기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흔히 발견되고 최근에는 비알코올성 원인이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2011년 4만3734명에서 2015년 3만3903명으로 약 22% 감소한 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2011년 1만3429명에서 2015년 2만8865명으로 115% 증가했다. <br/> <br/>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대부분이 간내 침착만 일어나는 단순 지방간이지만 일부에서는 간세포가 괴사되어 염증 증상이 동반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 발생한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은 10~15%에서는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만인 사람의 간암 발생 위험도는 정상 체중일 경우의 약 2배에 달한다. 단순 지방간이라고 해서 간과할 것이 아니라 원인이 되는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요인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다. 꾸준한 유산소운동과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이는 식이요법 등 체중감량이 매우 중요하다. <br/> <br/>서석원 중앙대병원 간담췌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간암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다보니,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중 자신이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및 비알콜성 지방간으로 간암 고위험군이라는 것을 간과하다가 뒤늦게 간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평소 술을 잘 먹지 않는 사람이라도 건강 검진을 통해 간염 및 지방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정진수 기자 jen@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17.txt

제목: [마이머니 단신] 해외 에너지 자산 투자 ‘스마트오일랩’ 외  
날짜: 20170320  
기자: 조병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20030852003  
ID: 01100701.20170320030852003  
카테고리: 경제>증권\_증시  
본문: 해외 에너지 자산 투자 ‘스마트오일랩’ <br/> <br/>하나금융투자는 미국 등 주요국 거래소에 상장된 에너지기업 주식과 원유 관련 주식예탁증서(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 해외 에너지 자산에 투자하는 ‘하나 스마트오일랩’을 최근 출시했다. 하나금융투자는 “<span class='quot0'>에너지 관련 시장에서 가격 변화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를 통해 수익을 누적하는 것이 특징</span>”이라고 설명했다. 10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며 100만원 단위로 추가 투자할 수 있다. <br/> <br/> <br/>외국인 고객 전용 ‘웰컴 플러스 적금’ <br/> <br/>KB국민은행은 외국인고객 전용상품 ‘KB WELCOME PLUS(KB웰컴 플러스) 적금’을 최근 출시했다. 만기자금을 사전에 신청한 본국계좌로 자동 송금해주는 서비스(만기안심 본국송금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 고객이 국내에 없을 때 안심하고 만기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해 안심 보험가입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은 6~12개월이다. 신규 가입금은 10만원 이상이며 월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br/> <br/> <br/>암·뇌·심혈관 질환 집중 보장 ‘태평삼대’ <br/> <br/>삼성화재는 암과 뇌·심혈관 질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태평삼대’ 상품을 최근 출시했다. 이 보험은 한국인 사망원인 1∼3위인 3대 질병에 대해 진단에서 치료, 장애, 사망까지 단계별로 보장한다. 우선 급성 뇌경색 진단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담보를 신설했다. 두번째로 뇌출혈 혹은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았을 때도 진단비를 준다. 다만 첫번째 진단 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한다. 식도암, 췌장암, 뇌암, 간암, 폐암 등 10대 주요 암에 대해 진단비와 치료비도 보장한다. <br/> <br/>조병욱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3-418.txt

제목: [사설] ‘정치 품격’ 해치는 막말 정치인, 퇴출 1순위다  
날짜: 2017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20000501002  
ID: 01100701.20170320000501002  
카테고리: 정치>선거  
본문: 대선주자들의 거친 입이 또 말썽이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예비경선에 나선 홍준표·김진태 후보의 발언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홍 후보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span class='quot0'>유죄가 되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하는 것도 검토하겠다</span>”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에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span class='quot1'>민주당에서 1등 하는 후보는 자기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span>”이라고 쏘아붙여 고인을 욕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인륜을 저버린 추악한 언사”라고 반발했다. <br/> <br/>홍 후보는 경쟁자인 김 후보를 ‘걔’, ‘애’라고 부르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애들 얘기해서 열 받게 하지 마라</span>”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우겠다는 자신의 출마 선언 장소(대구 서문시장)를 김 후보가 “<span class='quot2'>거기 가면 박 전 대통령이 생각나지 않을까요</span>”라고 비꼬자 막말로 응수한 것이다.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지낸 유력 정치인의 언행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br/> <br/>김 후보는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말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망나니 특검’이 짐 싸서 집에 갔다”며 태극기 집회를 선동했다. 홍·김 후보의 험한 화법은 여권의 반노·반문 정서나 ‘박근혜 동정론’을 자극해 지지층을 결속하려는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이다. 경선전이 치열할수록 강도가 심해질 공산이 크다. <br/> <br/>막말은 대선주자에게 국한된 게 아니다. 문 전 대표 측근인 손혜원 의원은 지난 9일 노 전 대통령 서거가 “계산된 것”이라고 발언해 경선캠프 홍보부본부장직을 사퇴했다. 문재인 캠프의 문용식 가짜뉴스 대책단장은 14일 SNS에 문 전 대표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자를 비판하며 “저의 모토는 한 놈만 팬다. 걸리면 죽는다”라고 적어 설화에 휘말렸다. <br/> <br/>상대를 향한 분노와 증오를 표출하는 막말은 갈등과 분열을 부추긴다.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암적 존재다. 미국 사회가 대선 이후에도 두 쪽으로 갈려 대치하게 만든 ‘트럼프 현상’은 대표적이다.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막말 정치인의 존재감은 커졌을지는 몰라도 우리 사회와 국민의 스트레스는 쌓이고 있다. ‘한국판 트럼프’, ‘홍트럼프’로 불리는 홍 후보는 자성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자세도 중요하다. 품격을 상실한 정치인은 지도자감이 될 수 없는 퇴출 대상 1순위다. 이들에게 지지를 보내선 안 된다.

언론사: 세계일보-3-419.txt

제목: 中 육군 5개 집단군 해체… 현대화 박차  
날짜: 20170319  
기자: 이우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19203357001  
ID: 01100701.20170319203357001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중국이 인민해방군 육군 산하 5개 집단군(군단급)을 해체하는 등 군 현대화 계획 추진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히 과거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 측근 군 인사들의 권력기반인 집단군도 개혁 대상에 올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권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br/> <br/>중국 군 당국이 장 전 주석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쉬차이허우(徐才厚)·궈보슝(郭伯雄·74)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권력기반이던 북부전구 16집단군과 서부전구 47집단군 등 육군 산하 5개 집단군을 해체할 예정이라고 홍콩 영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군대를 현대적인 전투력을 가진 군대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5개 집단군은 현재 운용 중인 18개 집단군의 25%를 넘는 규모다. <br/> <br/>신문은 또 “16집단군과 47집단군 폐지는 쉬차이허우와 궈보슝의 영향력을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 주석이 올가을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 개편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을 배치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동북 호랑이’로 불린 쉬차이허우는 2015년 부패 문제로 수사를 받던 중 암으로 사망했고 ‘서북이리’란 별명이 붙은 궈보슝은 지난해 7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장 전 국가주석 측근으로 알려졌으며, 인민해방군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집단군 개편은 20만명의 병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부 병사는 로켓군과 해군, 공군 등 다른 부대로 배치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한·미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우려한 중국 당국이 16집단군을 다른 형태로 존속시킬 수 있다며 40집단군과 병합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소식통은 일부 집단군이 해병대와 공수부대로 변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소식통은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이 역대 최저수준인 7%에 그쳐 퇴역 장병을 위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병력 감축이 향후 5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br/> <br/>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20.txt

제목: 경북 하천 주요 어종 ‘간흡충’… 민물고기 반드시 끓여 먹어야  
날짜: 20170319  
기자: 전주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19200056001  
ID: 01100701.20170319200056001  
카테고리: 지역>충북  
본문: “<span class='quot0'>민물고기 회는 소주에 씻어 먹어도 안 됩니다.</span>” <br/> <br/>꽁꽁 얼었던 날씨가 풀리면서 낙동강 상류지역 등 물이 깨끗한 지역에서 천렵에 나선 주민들이 민물고기를 날로 먹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민물고기의 경우 암이나 간경변을 유발하는 간흡충(간디스토마)이 있으므로 날것으로 먹어선 안 된다. <br/> <br/>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19일 관내 하천에 서식하는 주요 어종에서 간흡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천 내성천, 고령 회천, 영양 반변천, 군위 위천에 서식하는 자연산 민물고기를 채집해 간흡충, 피낭유충 감염실태를 조사했다. 특히 감염률이 높은 어종은 갈겨니, 납자루, 돌고기, 모래무지, 몰개, 중고기, 칼납자루 등이었다. <br/> <br/>연구원은 자연산 민물고기는 날것으로 먹지 말고, 식재료 칼 도마 등은 위생적으로 관리해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br/> <br/>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간흡충은 한번 감염되면 잘 낫지 않기 때문에 민물고기는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한다</span>”고 당부했다. <br/> <br/>안동=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21.txt

제목: 총기협박 사건 벌인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 징역형  
날짜: 20170317  
기자: 김민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17210020001  
ID: 01100701.20170317210020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슬롯머신 대부’로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덕진(75)씨가 ‘가스총 협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br/> <br/>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서삼희 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br/> <br/>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90억원대의 자택을 현직 언론사 회장 A씨에게 팔기로 하고 계약금 2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정씨의 가족들이 해당 주택의 매각을 반대하면서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br/> <br/>정씨는 매매계약 해지를 재차 요구했지만 A씨는 들어주지 않았다. 정씨는 결국 A씨가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미리 준비해 둔 가스총을 꺼내 협박했다. 그는 “내가 누군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는 돈만 주면 흔적도 없이 일처리가 된다. 가서 A 회장에게 전달해라”며 청부살인을 예고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다. <br/> <br/>서 판사는 “<span class='quot0'>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소지한 가스발사총을 이용해 계약상대방을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span>”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인한 암 말기 환자인 점,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br/> <br/>정씨는 1980∼90년대 슬롯머신 업소를 운영하며 업계 대부로 군림했다. 그는 정·관계는 물론 서방파 두목 김태촌씨 등의 비호를 받으며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93년 정씨가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벌인 로비에 박철언 한나라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드라마 ‘모래시계’의 모티브가 됐다. <br/> <br/>정씨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와도 인연이 있다. 2015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박 특별검사가 당시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당한 정씨의 변호를 맡아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하지만 박 특별검사는 이에 앙심을 품은 소송 상대인으로부터 ‘커터칼 테러’로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22.txt

제목: [이슈플러스] '헬프맨' 민정수석… 박근혜 곁엔 없다  
날짜: 20170316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16114630001  
ID: 01100701.20170316114630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인복(人福)이 너무 없다.’ <br/> <br/>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지난해 국정농단 파문에 휘말려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데 이어 국회 탄핵소추까지 당하자 너도나도 내뱉은 탄식이다. 주변에 오죽 사람이 없으면 최순실(61·구속기소)씨한테 그토록 전적으로 의존했겠느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단이 “<span class='quot0'>최순실은 ‘키친캐비넷’(대통령과 식사를 함께하며 정책 등에 관해 허물없이 얘기를 나누는 민간인) 같은 존재일 뿐</span>”이란 의견서를 내놓았을 때 다수 국민이 충격을 받은 까닭도 거기에 있다. <br/> <br/> 우병우16일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로 입건된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유영하·손범규·채명성 변호사 등이 선임계를 내고 변호사로 공식 활동을 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검사장(차관급) 이상 공직을 지낸 거물 변호사를 영입하리란 전망이 제기됐으나 아직 현실로 드러난 것은 없다. <br/> <br/>박 전 대통령보다 먼저 검찰 수사를 받은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공통적으로 청와대의 차관급 이상 참모를 지낸 법률 전문가를 방패로 내세웠다. 노태우(85)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12·12 군사반란 등 혐의로 대검 중수부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받은 1995∼1996년 한영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변호사는 법제처장으로 공직을 마감했으나 대검 중수부장(검사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노 전 대통령 시절 그 밑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한 인연도 있다. <br/> <br/>전두환(86) 전 대통령도 같은 기간 뇌물수수와 12·12 군사반란 등 혐의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받을 당시 이양우 변호사에 의존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출신은 아니지만 1980년대 국회의원과 법제처장을 지냈고 특히 전 전 대통령 밑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을 컨트롤하는 청와대 사정수석으로 활동했다. <br/> <br/>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로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을 때 문재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현재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문 변호사는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내내 최측근에서 보좌한 셈이다. <br/> <br/> 곽상도 고 김영한 전 수석이런 전례에 비춰 박 전 대통령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참모 출신 중에서 중량급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란 예측이 제기됐다. 일단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인사로 곽상도, 홍경식, 김영한, 우병우, 최재경 전 수석이 있다. 곽상도 전 수석은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라 특정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긴 곤란한 처지다. 김영한 전 수석은 지난해 지병인 암으로 사망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본인이 박 전 대통령과 나란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누굴 돕기 위해 나설 처지가 못 된다. <br/> <br/> 홍경식그 때문에 홍경식·최재경 전 수석의 ‘거취’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홍 전 수석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최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변론 의뢰를 받았지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최재경일각에선 조대현 현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만두고 변호사로 복귀해 박 전 대통령 변론을 맡을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그러나 조 수석을 비롯한 현 청와대 참모들의 사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모두 반려된 상태다. 다만 헌재 탄핵심판 때에도 종반에 정기승 전 대법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대거 대리인단에 합류한 것처럼 검찰 수사가 진척되면 거물급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23.txt

제목: [사이언스프리즘] 미래 먹거리 바이오헬스 잡아라  
날짜: 20170316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16011105001  
ID: 01100701.20170316011105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주요 선진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수출로 지탱하는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외교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마저 우려돼 우리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기조가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기존의 주력 산업을 유지하면서 당장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이다. <br/> <br/>이런 가운데 미래 국가 성장의 전략산업으로 주목할 만한 분야 중 하나가 ‘바이오헬스 산업’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제조업, 병원이 주축이 되는 병원 의료서비스업, 줄기세포를 이용한 신개념의 치료 및 재생의학,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의료관광 등을 포괄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 산업의 일부분인 전통적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만 1조달러(1250조원) 정도다. 그런데도 그 비중이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산업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산업이 상당 기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분석은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글로벌 수준에서의 중산층 증가, 의료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국경을 초월한 의료관광 등에서 기인한다. <br/> <br/> 설대우 중앙대 교수·분자세포병리학시장은 매우 매력적이지만 아이로니컬하게도 시장 참여자는 제한적이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시장의 특성에 기인한다. 우리만 해도 의류나 가전제품의 경우 노동임금이 싼 비선진국 생산 제품을 수입해 사용하지만,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은 우리보다 나은 선진국 제품을 선호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적으로 한 국가의 위상, 관련 분야의 총체적 실력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바이오헬스 산업은 선진국과 비선진국 사이에 상당한 비대칭 경향을 보인다. <br/> <br/>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역시 이 시장 참여가 어려웠다. 실력도, 국가 위상도 충분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 한미약품 등이 보여준 것처럼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신약도 개발하고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도 그려 가고 있다. 그중 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적 면에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고, 문화 한류 바람을 타고 의료관광도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해볼 만한 위치에 선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여겨지는 줄기세포치료와 이를 이용한 재생의학, 유전자가위나 유전자치료 기술을 이용한 유전병 치료, 면역세포치료 기술을 이용한 암이나 난치성 질환의 치료는 눈여겨볼 분야다. <br/> <br/>바이오헬스 산업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부가가치가 극도로 높은 2차 제조업과 3차 서비스업이 모두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과 환경친화적이라는 점 역시 매력적이다. 이 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자면 두꺼운 고급 인력층이 필요한데, 대학 학과 분포를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인재가 충분한 상황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시아 시장만 보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겨뤄볼 만한 이 분야 초강대국이다. 중국의 성장을 고려한다면 더더구나 바이오헬스 산업이 우리 미래의 확실한 먹거리라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br/> <br/>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더라도 지금의 우리 주력 산업 규모를 10년 이내에 2배 이상 키우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데다가 기술 경쟁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반면, 바이오헬스 산업은 10년 이내에 10배 이상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규제만 손질하면 순식간에 강자로 올라설 실력과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고 노력하면 이 과실을 누릴 수 있다. 곧 꾸려질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br/> <br/>설대우 중앙대 교수·분자세포병리학

언론사: 세계일보-3-424.txt

제목: 불길 뚫고 이웃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  
날짜: 20170315  
기자: 김수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15204737001  
ID: 01100701.20170315204737001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LG복지재단은 지난달 10일 경북 군위군 주택 화재 현장에서 치솟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할머니를 구해낸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 니말(39)씨에게 ‘LG 의인상’과 치료비를 포함한 상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LG 의인상은 2015년부터 국가와 사회, 이웃을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주는 상으로, 외국인 수상자는 니말씨가 처음이다.  <br/> <br/>스리랑카에 있는 어머니의 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5년째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니말씨는 당시 인근 농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집 안에 할머니가 갇혀 있다는 말을 들은 니말씨는 누구도 현장에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 할머니를 무사히 구해냈다. <br/> <br/>그러나 이 과정에서 니말씨는 얼굴과 폐 등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3주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br/> <br/>니말씨는 “평소 마을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보살펴 주셔서 감사했고, 할머니를 구해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br/> <br/>LG복지재단은 지난 11일 서울시 용문동 다가구주택 화재현장에서 온몸으로 불길을 막아 일가족을 구조한 최길수(34), 김성수(43) 소방관에게도 LG 의인상을 수여키로 했다. 구조 과정에서 최씨는 주민들의 몸에 불이 붙지 않도록 방화복을 입은 몸으로 불길을 막았고, 김씨는 매트리스를 이용해 불길을 차단했다. <br/> <br/>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25.txt

제목: 문재인 "국민 힘으로 대개혁" 안희정 "대연정이 해법"  
날짜: 20170314  
기자: 김달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14184418001  
ID: 01100701.20170314184418001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은 14일 첫 공중파 TV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통합 방안을 놓고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문 전 대표의 리더십, 안 지사의 대연정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놓고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br/> <br/> 손잡은 후보 4人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첫 공중파 TV 합동토론회를 갖기에 앞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br/>국회사진기자단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KBS에서 열린 공중파 3사와 YTN·OBS 방송 5개사가 주최한 합동 토론회에서 국민통합 방안으로 “<span class='quot0'>정치인들끼리 모이는 것이 통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0'>차별을 없애고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할 때 통합이 이뤄질 것</span>”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span class='quot1'>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연정을 주장한다</span>”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span class='quot2'>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암에 걸리면 수술해야 한다</span>”며 “그게 청산이고 통합”이라고 말했다. <br/> <br/>문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국민 힘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한다”며 “대연정은 소연정으로 다수파를 이룰 수 없을 때 하는 것이다. 지금 구조상으로는 야당들끼리만 힘을 모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나.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처리할 때마다 촛불을 들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대연정이 국민통합과 국가개혁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span class='quot2'>부패한 적폐세력과 권력을 나누는 대연정은 시대 역행</span>”이라고 비판했다. <br/> <br/>안 지사는 김종인 전 대표와 안철수, 박지원 의원 등의 탈당을 거론하며 “<span class='quot1'>(문 전 대표가) 당내에서도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면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통합하겠나</span>”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span class='quot0'>당 혁신에 반대하는 분들이 당을 떠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그렇지만 우리 당은 혁신을 해냈고, 정권교체의 주체가 되는 정당으로 성장하지 않았나</span>”라고 맞섰다. <br/> <br/>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 조치 문제에 대해서도 주자들 입장과 해법이 달랐다. <br/> <br/>문 전 대표는 “<span class='quot0'>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외교적 설득 과정이 없어 중국 보복을 초래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중국에 항의할 건 하고 설득노력도 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안 지사는 “<span class='quot1'>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어 현명하고 균형잡힌 외교가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어떤 경우에도 한·미동맹은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하겠다</span>”고 밝혔다. 이 시장은 “<span class='quot2'>(사드 배치는) 안보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span>”이라며 “<span class='quot2'>국가 지도자는 목숨을 걸고라도 잘못된 정책은 고칠 수 있어야 한다</span>”고 배치 철회 입장을 분명히 했다. <br/> <br/>김달중 기자 dal@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26.txt

제목: "제 남편과 결혼하실래요?"…결국 하늘로 떠난 美 아동작가  
날짜: 20170314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14155830001  
ID: 01100701.20170314155830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남편의 재혼을 위해 소개글을 공개했던 미국의 말기 난소암 아동작가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br/> <br/>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에이미 크로우 로젠탈이 이날 5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br/> <br/>2015년 말기 난소암 진단을 받은 에이미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남편의 소개글을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에 기고해 많은 이들을 눈물짓게 했다. <br/> <br/>  남편의 재혼을 위해 소개글을 써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 미국의 아동작가 에이미 크로우 로젠탈(51)이 13일 사망했다. 그는 지난 2015년 말기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 미국 뉴욕포스트 캡처. <br/> <br/>에이미의 에이전트를 담당한 레너트는 “<span class='quot0'>로젠탈은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0'>뛰어난 작가이자 좋은 친구였다</span>”고 자신의 트위터에서 애도했다. <br/> <br/>시카고에 사는 에이미는 사별 후 홀로 살아갈 남편이 재혼할 수 있도록 돕고자 유머와 진심을 뒤섞어 소개글을 써내려갔다. 에이미가 얼마나 반려자를 사랑하는지 느껴진다는 게 기고를 접한 누리꾼들의 한결 같은 반응이다. <br/> <br/>에이미는 쿠키를 만들고 나눠 먹는 과정을 통해 믿음과 공평, 배려 등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줬다는 평가를 받은 창작동화 ‘쿠키 한 입의 인생수업'(Cookies : Bite-size Life Lessons)의 저자다. <br/> <br/>에이미의 남편 사랑을 생생히 전하기 위해 아래부터는 뉴욕타임스 기고문 원래 형태대로 1인칭에서 글을 쓰기로 한다. <br/> <br/>예전부터 글을 쓰려고 했어. 하지만 꽤 오랫동안 치즈버거를 먹지 못했고, 모르핀 주사를 맞느라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한 탓에 손가락 들 힘이 없었어. <br/> <br/>더 이상 늦출 수 없을 것 같아. 인생의 데드라인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맥박이 뛰고 있으므로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어. <br/> <br/>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특별한 남자와 26년간 결혼생활을 했지.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26년의 결혼생활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더는 그러지 못하게 됐네. 슬픈 농담 같다고? <br/> <br/>2015년 9월5일 한 여자가 응급실로 실려갔어. 오른쪽 아랫배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던 그는 “<span class='quot0'>별것 아닙니다, 맹장염이에요</span>”라는 의사의 말을 들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병원은 난소암 판정을 내렸지. 9월6일부터 이 부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 <br/> <br/>가족과의 남아프리카 여행도 무산됐고, 엄마를 모시고 아시아로 놀러 가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됐지. 그동안 꿈꿨던 여러 계획이 모두 취소되거나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어. <br/> <br/>‘암'(cancer)과 ‘취소'(cancel)라는 단어는 내게 같은 의미가 되어버렸지. <br/> <br/>현재에 충실하게 되면서 난 ‘플랜 비(Be)’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여기서 에이미는 ‘Plan B’ 대신 ‘Plan Be’를 사용해 동음이의어를 구사했다.) <br/> <br/>신사 숙녀 여러분, 나의 사랑스러운 남편, 제이슨 브라이언 로젠탈을 소개해볼까 한다. <br/> <br/>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제이슨은 쉽게 사랑에 빠지게 하는 그런 남자다. 내가 그랬다. <br/> <br/>대학을 마치고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다 고향 시카고로 돌아온 1989년 스물네살의 어느 날. 나와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소개팅을 주선한 지인 덕분에 제이슨을 만났지. <br/> <br/>사실 기대도 안 했어. <br/> <br/>하지만 만나기로 한 장소의 문을 열고 들어온 제이슨을 보면서 후광이 비친다는 느낌을 받았지. 저녁을 함께 먹은 뒤 난 그와 결혼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어. <br/> <br/>바보 같게도 제이슨은 그걸 1년이 지난 뒤에야 알았단다. <br/> <br/>정확히 9490일 동안의 결혼생활을 토대로 제이슨을 홍보해보려 한다. <br/> <br/>제이슨의 키는 5피트10인치(약 178cm)에 몸무게는 160파운드(약 73kg)다. 머리가 조금 희끗희끗하지만 녹갈색 눈동자가 매력적이지. <br/> <br/>옷도 무척 잘 입어. 우리 아들들이 이따금 아빠 옷을 빌려 입고 나갈 정도야. 운동도 좋아해 몸매도 무척 잘빠졌지. <br/> <br/>우리 집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내 칭찬에 힘을 보탰을텐데. 복도를 따라 걸어오는 그의 모습만 보더라도 어디선가 달콤한 향이 풍기는 느낌이야. <br/> <br/>제이슨은 공연도 좋아해. 부부로 함께 즐겼던 것이기도 하지. <br/> <br/>오, 이쯤에서 사랑스러운 열아홉살 딸 패리스를 빼놓지 않을 수 없지. 패리스는 누구보다 아빠와 공연 보러 가는 걸 무척 좋아해. <br/> <br/>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해 사무실에 있을 때를 뺀 나머지 시간에 제이슨을 만난다면, 예술가라고 부를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아프고 난 뒤부터 그림을 거의 그리지 않았어. <br/> <br/>첫아이를 임신하고 초음파 촬영이 있던 날 꽃다발 들고 나타났던 제이슨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br/> <br/>이 정도면 남편이 어떤 사람일지 여러분이 쉽게 예상하리라 생각돼. 이제는 당신이 선택할 시간이야. <br/> <br/>남편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어. 아이들과도 같이 있어 주고 싶었고. 재즈를 들으며 안락한 목요일 밤을 지내고도 싶었지. 그러나 그럴 수 없게 됐어.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테니 말이야. <br/> <br/>이 세상 사람으로 살게 될 날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 부디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 제이슨의 손을 잡아주기를 바래. <br/> <br/>그러면 그때부터 또 다른 러브스토리가 시작되겠지.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27.txt

제목: 국민통합 해법… 文 "차별철폐" -安 "대연정"- 李 "적폐청산" 제각각  
날짜: 20170314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14144043001  
ID: 01100701.20170314144043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결정 불복 움직임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통합 대책'을 놓고 제각각 다른 의견을 내놨다. <br/> <br/>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공중파 3사와 YTN·OBS 등 방송 5개사가 주최한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 토론회에서 문 전 대표는 이 질문에 대해 "<span class='quot0'>국민을 편 가르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어 "정치인들끼리 모이는 것이 통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떤 국민을 배제하거나 어떤 지역을 차별하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면 그것이 바로 국민통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br/>그러면서 "차별을 없애고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할 때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br/> <br/>반면 안 지사는 "<span class='quot1'>우선 박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이 주권자의 국민 명령이나 승복해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연정을 주장한다</span>"고 했다. <br/> <br/>안 지사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나.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br/> <br/>안 지사는 "<span class='quot1'>그렇다고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처리할 때마다 촛불을 들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span>"라며 "<span class='quot1'>대연정이 국민통합과 국가개혁의 유일한 수단</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br/>이 성남시장은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 범죄자와 함께 살 수는 없다"며 "도둑떼를 이웃으로 두고 어떻게 통합을 하나"라고 꼬집었다.  <br/> <br/>이 시장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암에 걸리면 수술해야 한다. 고통스러워도 암과 동거는 못 한다"며 "통합의 이름으로 범죄자를 용서할 수는 없다"고 안 지사를 겨냥했다. <br/> <br/>이 시장은 "<span class='quot2'>통합은 공정한 경쟁 질서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이뤄지는 것이다</span>"라며 "그게 청산이고 통합"이라고 설명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28.txt

제목: "가공·훈제식품 줄이고 싱겁게 먹어라"  
날짜: 20170313  
기자: 이현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13194349001  
ID: 01100701.20170313194349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불에 탄 고기와 훈제·가공식품 섭취 줄이고 싱겁게 먹어라.’ <br/> <br/>대한암예방학회가 오는 17일 ‘암 예방의 날’을 앞두고 한국인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위암 예방 건강수칙을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 <br/> <br/>학회는 위암이 우리나라 전체 암 발병률 2위인 만큼 환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위암 수술 후 식사수칙’도 마련했다. 암 예방의 날은 암에 대한 이해와 예방·치료·관리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국제암예방연합이 제정했다. <br/> <br/>학회가 만든 건강수칙에 따르면 위암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싱겁게 먹어야 한다.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적게 먹은 사람보다 위암 별병 위험도가 4.5배 높아진다. 가공·훈제식품과 불에 탄 고기 섭취도 줄여야 한다. 가공·훈제식품에 함유된 아질산염과 질산염을 장기간 섭취하면 위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 <br/> <br/>또 한국인이 좋아하는 숯불구이·바비큐 등 굽거나 태운 고기에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 피하는 것이 좋다.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하루 3잔(알코올 45g) 이상의 알코올 섭취는 위 점막에 손상을 가하므로 그 이하로 줄여야 한다. <br/> <br/>식사 전후 습관도 중요하다.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잠들 경우 음식물의 위 배출 시간이 늦어져 포만감, 더부룩함 등 각종 소화기 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29.txt

제목: 충북 제천 인공암벽장에서 40대 추락해 숨져  
날짜: 20170313  
기자: 김을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13135915001  
ID: 01100701.20170313135915001  
카테고리: 지역>충북  
본문: 12일 오후 3시쯤 충북 제천 한 인공암벽장에서 등반하던 A(49)씨가 약 15ｍ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br/> <br/>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br/> <br/>경찰은 A씨가 사용한 장비 파손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br/> <br/>제천=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30.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암(癌)'이니 일단 수술부터 해야겠죠?  
날짜: 20170313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13050352001  
ID: 01100701.2017031305035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2015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과 치핵(치질), 제왕절개 순이었습니다. 특히 제왕절개는 최근 5년간 진료비 증가폭이 33개 주요 수술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산모의 증가 추세 등으로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br/>고령 임신은 각종 고혈압성 질환과 당뇨 등 다양한 출산 위험이 뒤따라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쌍둥이(다태아) 임신의 증가도 제왕절개 분만이 늘어난 한 원인입니다.  <br/>난임을 겪으면서 체외수정 등을 통해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가 크게 늘어난 것도 제왕절개 증가와 무관치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4년 체외수정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1만1597명) 가운데 쌍둥이의 비중은 무려 41%에 달했습니다. <br/>앞으로 제왕절개에 대한 본인 부담비율은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제왕절개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기존 20%에서 5%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자연분만 수술과 형평성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br/>2014년 갑상선암 과잉진단 논란이 크게 불거진 뒤 갑상선 수술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암센터 통계자료를 보면 1999년 국내 갑상선암 환자 수는 3325명에 불과했지만, 14년 후인 2013년에는 4만2541명으로 12.8배 수준으로 급증해 전체 암 가운데 수술 건수 1위로 급부상했습니다. 2013년 국내 인구 10만명당 갑상선암 환자 수는 약 84명으로, 전 세계 평균의 10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br/>상황이 이렇자 2014년부터 몇몇 의료진은 갑자기 국내에서 갑상선암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과잉진단 외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불필요한 갑상선 초음파 검진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2015년 현재 33개 주요 수술의 건당 평균 진료비는 260만원으로, 2010년 223만원에서 5년간 약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심혈관과 뇌혈관 등을 대상으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술이 건당 진료비도 높은 편이었다. <br/> <br/>과잉진단 논란에 휩싸인 뒤 갑상선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급감했다. 수술 건수가 5년 전과 비교해 30% 넘게 줄어들었다. <br/> <br/>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빈도 기준 상위 15위 중 갑상선 수술이 2010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30.9% 줄었다. <br/> <br/>갑상선 수술은 앞서 2010년 4만847건에서 2011년 4만4234건, 2012년 5만1513건, 2013년 4만8948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br/> <br/>2014년 3만7162건으로 꺾였는데, 이해 3월부터 의료계 일부에서 과다진단 문제를 제기해 논쟁이 벌어진 여파로 분석된다. 2015년에도 2만8214건으로 다시 떨어졌다. <br/> <br/>◆과잉진단 논란, 갑상선수술 환자 ↓…5년 전 대비 30%이상 감소 <br/> <br/>2014년 이전만 해도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갑상선암 증가세를 보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br/> <br/>국내 갑상선암 환자 수는 2011년 4만4234명으로, 인구 10만명당 81명꼴이었다. 이는 세계 평균의 10배를 넘는 수준이다. <br/> <br/> 그렇다 보니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암 가운데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발병한 국가로 지목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과잉진단의 여파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br/> <br/>전문가들은 갑상선암 과다진단을 줄여야 한다면서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br/> <br/>◆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 백내장>제왕절개>치질 순(順) <br/> <br/>2015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제왕절개, 치핵(치질) 순이었다. <br/> <br/>백내장 수술 환자는 34만6000명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별도 통계를 관리하는 33가지 주요 수술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br/> <br/>이어 치핵(19만3000명), 제왕절개(17만3000명), 일반척추(15만5000명), 충수절제(9만명), 담낭절제(6만3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br/> <br/>이 중 제왕절개는 여성만 받는다.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를 계산하면 665명으로, 백내장과 더불어 1위였다. <br/> <br/> 2015년 의료보장인구는 5203만4000명이었고, 33개 주요 수술의 환자는 149만명이었다. <br/> <br/>수술 건수(중복 포함)는 172만1000건으로 5년 전인 2010년 대비 1.9% 늘어났고, 인구 10만명당 건수는 3308건으로 0.9% 줄어들었다. <br/> <br/>2010년 대비 건수 증가율이 높은 수술로는 심박조율장치 삽입 및 제거(143%)와 유방절제(56%),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37%), 담낭절제(28%), 백내장(24%) 등 순이었다. <br/> <br/>이에 반해 건수가 줄어든 수술은 전립선 절제(-37%)와 갑상선(-31%), 치핵(-22%), 충수절제(-11%) 등이었다. <br/> <br/>연령대별로 많이 받는 수술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9세 이하에서는 편도절제술이 많았다. 10대는 충수절제술, 20~30대는 제왕절개수술, 40대는 치핵수술이 각각 가장 많았다. <br/> <br/>5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 수술이 두드러지게 많았고, 60대 이후부터는 이와 더불어 근골격계 관련 수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br/> <br/>◆제왕절개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 20%에서 5%로 낮아져 <br/> <br/>주요 수술의 진료비용(비급여 제외)은 4조4761억원으로 5년 전보다 19% 증가했다. 수술별 진료비 합계는 일반척추(5234억원)와 백내장(4604억원), 무릎관절치환(4378억원) 순으로 많았다. <br/> <br/>1회 수술 진료비는 심혈관 및 뇌혈관수술 등이 상위를 차지했는데 심장(2512만원)과 관상동맥우회(2491만원), 뇌기저부(1364만원) 등의 순이었다. <br/> <br/>수술비가 적은 순서로 보면 치핵(92만원)과 백내장(94만원), 정맥류 결찰 및 제거(101만원)였다. <br/> <br/>수술 후 입원 일수는 무릎관절치환이 21.3일로 가장 길었고, 고관절치환이 20.9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백내장은 1.2일, 정맥류 결찰 및 제거는 2.3일로 짧았다. <br/> <br/>전체 수술의 23%(40만건)는 환자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타지역 수술 비율이 유독 높은 수술은 순열 및 구개열, 뇌기저부, 심장 카테터 삽입 등이었다. <br/> <br/> 의료진이 암 환자를 진찰하고 있다. 치료를 마쳐도 암환자였다는 편견에 부딪혀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주요 수술 통계연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해 산출한 것으로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어 있다. <br/> <br/>국민건강보험이 다루는 33개 주요 수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과 편도절제, 관상동맥우회 등 15개를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수술 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 일반척추, 뇌종양, 위 절제 등 18개를 더한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31.txt

제목: [마이머니 단신] 생활자금으로 전환 가능한 종신보험 출시 외  
날짜: 20170313  
기자: 김라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13030504001  
ID: 01100701.20170313030504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생활자금으로 전환 가능한 종신보험 출시 <br/> <br/>메트라이프생명이 ‘무배당 변액유니버셜 오늘의 종신보험’(사진)을 지난 6일 출시해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가입고객이 은퇴한 이후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를 생활자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생활자금 지급기간은 15년, 20년, 25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생활자금 지급기간 종료 후에도 가입금액의 10%는 사망보장으로 유지된다. 또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분산투자하기에 투자수익에 따라서 더 많은 생활자금과 사망보험금을 받는 게 가능하고 손실이 생길 시에도 최저보증 제도를 통해 안정성을 겸비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암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할 시 다양한 의료특약을 통해 진단 및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br/> <br/> <br/>‘변액연금·금리연동형 특약’ 갖춘 상품 내놔 <br/> <br/>한화생명이 한 상품에 변액연금과 금리연동형 연금특약을 갖춘 ‘한화생명 하이브리드변액연금보험’(사진)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변액인 주계약과 금리연동형 특약 간 적립금을 연 4회까지 이전할 수 있다. 금리상승기에는 주계약의 적립금을 특약으로 이전해 금리연동형의 비중을 높이고, 증시 호황기에는 주계약의 비중을 강화하면 된다. 주계약인 변액연금은 스마트업(Up) 자금이 지급되는 제1연금기간과 공시이율로 안정적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2연금기간으로 구분된다. 스마트 Up 연금개시 전 변액연금, 금리연동형 연금 또는 혼합연금을 선택할 수 있어 은퇴소득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적극적인 수익추구를 원하는 고객이라면 연금개시 전 적립된 재원 전부를 변액으로 수령할 수 있고,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원하는 고객은 금리연동형 연금으로 수령가능하다. <br/> <br/>내달부터 개인용 차보험료 평균 2.1% 인하 <br/> <br/>더케이손해보험이 오는 4월1일 책임개시 계약 건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1% 내린다고 6일 밝혔다. 차종별로 보면 대형차량(그랜저 등) 할인율이 평균 3.8%, 다인승차량(카니발, 싼타페 등) 할인율은 평균 3.7%로 전체 평균 인하율을 상회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진다. 작년부터 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데 따라서 보험료를 인하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더케이손보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연령대와 차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0~40대 운전자 중심으로 보험료 할인 규모가 더 크다</span>”고 말했다. 자동차 주행거리가 적을수록 보험료 할인폭을 늘리는 마일리지 할인도 확대한다.

언론사: 세계일보-3-432.txt

제목: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작가 로버트 제임스 월러 별세  
날짜: 20170313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13011019001  
ID: 01100701.20170313011019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중년의 로맨스를 그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쓴 로버트 제임스 월러(77)가 10일 오전(현지시간) 별세했다. <br/> <br/>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의 자택에서 세상을 떠난 월러는 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으로 투병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br/> <br/>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1992년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으로, 아이오와주의 한 마을에서 한적한 삶을 살고 있던 주부 프란체스카 존슨과 촬영차 마을을 찾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작가 로버트 킨케이드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렸다. <br/> <br/>비평가들은 “감상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으로 가득 찼다”며 혹평했지만 독자들에게서는 큰 사랑을 받았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3년 이상 이를 지켰으며, 전 세계 40개 국어로 번역돼 1200만부 이상 판매됐다. 이 소설로 무명의 작가였던 월러는 백만장자가 됐다.

언론사: 세계일보-3-433.txt

제목: 봄 내음과 함께 찾아온 ‘몸짓의 향연’ 풍성  
날짜: 20170312  
기자: 송은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12205327001  
ID: 01100701.20170312205327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이달 무용계에서는 해외·국내 현대무용부터 한국무용, 발레까지 풍성한 무대를 준비했다. 사진은 국립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br/>국립발레단 제공올봄은 무용계가 유독 분주하다. 이달부터 기대작들을 우르르 쏟아낸다. 우선 세계적 안무가 피나 바우쉬의 유작 ‘스위트 맘보’가 한국 관객과 만난다. 국립현대무용단에서는 안성수 예술감독이 취임 후 첫 작품으로 ‘혼합’을 선보인다. 한국무용과 발레에서는 반가운 재공연작이 무대를 채운다. 국립무용단은 ‘회오리’를 다시 올리고, 국립발레단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로 인사한다. 봄 내음과 함께 찾아올 몸짓의 향연을 만나보자. <br/> <br/>바우쉬는 ‘탄츠테아터’를 통해 무용과 연극의 경계를 허물었다. 현대무용의 문법을 확장했다. 한국 관객과도 친숙하다. 그의 무용단은 1979년 ‘봄의 제전’으로 처음 내한한 후 2000년대부터 6번 한국을 찾았다. 이번 공연은 3년 만의 방한이다. <br/> <br/> <br/>이번에 선보이는 ‘스위트 맘보’는 바우쉬의 유작으로 불린다. 그가 타계하기 1년 전 독일에서 발표한 44편 중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작품이다. 바우쉬는 2009년 암 선고를 받고 5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바우쉬가 천착한 주제는 인간, 소통이었다. 사랑과 욕망, 불안과 공포, 상실과 고독 등을 무대에 담아 관객의 마음을 흔들었다. <br/> <br/>‘스위트 맘보’ 역시 궤를 같이한다. 10명의 무용수가 사랑, 외로움, 절망처럼 인간 관계에서 파생하는 감정을 그려낸다. 무대를 달리거나 물을 끼얹고 관객에게 말을 거는 식으로 인간이 떠안은 영원한 난제를 표현한다. 무대는 환상적인 분위기다. 물결치는 하얀 커튼 위로 독일 흑백 영화 ‘파란 여우’(1939년 작)가 투사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14년 에든버러 플레이하우스에서 공연한 이 작품에 별 다섯 개 만점을 부여했다. 가디언은 “바우쉬의 육체는 이곳에 없지만 그는 여전히 여기 있다. 여전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의 많은 비밀을 샅샅이 탐구하며”라고 평가했다. 오는 24∼27일 서울 강남구 LG아트센터에서 공연한다. <br/> <br/> <br/> 국립무용단 ‘회오리’. <br/>국립극장 제공 피나 바우쉬 부퍼탈 탄츠테아터 ‘스위트 맘보’. <br/>LG아트센터 제공 국립현대무용단 ‘혼합’. <br/>국립현대무용단 제공국립현대무용단 ‘혼합’은 동서양의 음악과 무용을 뒤섞은 작품이다. 안성수 감독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창작해 지난해 6월 프랑스에서 초연했다. 당시 파리 국립샤요극장 ‘포커스 코레’를 통해 소개됐다. 이 작품은 어렵고 난해해 보이는 현대무용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다. 울림이 길고 여운 있는 장단의 한국 전통음악과 울림이 짧고 선율이 강한 서양음악을 함께 엮었다. 남도 민요, 거문고·가야금 산조와 슈만 피아노 사중주, 아프리카 타악 연주, 팝 음악을 한 무대에 올린다. 또 곡선이 아름다운 한국 전통무용과 직선적이고 외향적인 서양무용이 만난다. 남성 무용수 장경민과 김지연·김민지·김현·이주희 네 명의 여성무용수가 작품을 표현한다. 24∼26일 서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공연한다. <br/> <br/>놓쳐서 아쉬웠던 한국무용과 발레 작품도 다시 관객을 찾는다. 국립무용단은 ‘회오리’를 선보인다. 2014년 초연작이다. 무용단이 창단 52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 안무가와 협업한 작품이다. 전통의 현대화를 추구하던 국립무용단은 땅과 자연을 중시하는 핀란드 안무가 테로 사리넨에게 한국 무용의 안무를 맡겼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 작품은 2015년 프랑스 칸 댄스 페스티벌 개막작으로 초청돼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br/> <br/>사리넨은 이번 공연을 위해 작품의 큰 흐름을 유지하면서 장면 연결, 음악과의 호흡 등을 세부적으로 다듬었다. 작품의 1장에서는 남녀 군무를 통해 대비되는 두 에너지의 흐름을 보여준다. 2장에서는 지식의 전수와 전파를 통해 인류의 근원을 탐구한다. 3장에서는 자연과 근원의 이해를 통해 인류의 도약을 풀어낸다. 남녀 주역으로는 김미애와 송지영, 박혜지, 황용천과 이석준이 캐스팅됐다.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br/> <br/>국립발레단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무대다. 마르시아 하이데가 안무했다. 5회 공연 중 4회가 매진됐을 만큼 반응이 좋았다. 이 작품은 본래 발레의 교과서로 불린다. 동작 하나하나 기본에 충실하다. 구성도 고전 발레의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화려한 눈요기보다 정확한 기술과 함께 예술성을 표현해야 해 어려운 작품으로 꼽힌다. 그러나 관객의 입장에서는 자칫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면도 있다. <br/> <br/>하이데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골격은 유지하되 세세한 안무를 더해 작품의 표정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오로라 공주가 마녀 카라보스의 저주로 100년 동안 깊은 잠에 빠졌다가 왕자의 키스로 깨어난다는 이야기는 동일하다. 마녀 역할은 수석무용수 이영철·이재우와 솔리스트 김기완이 맡는다. 수석무용수 김지영·김리회·신승원이 오로라 공주를 연기한다. 연주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담당하며, 공연은 22∼26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열린다. <br/> <br/>송은아 기자 sea@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34.txt

제목: 봄 보약! 봄나물 5종 선물세트 대령이요!  
날짜: 20170312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12114940001  
ID: 01100701.20170312114940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봄~ 봄~ 봄~ 봄~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경칩도 지났으니 봄이 어김없다. 봄은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지방에만 허락된 지구의 귀한 선물이다. <br/> <br/>우리나라 24절기에 의하면, 입춘(立春)에서 입하(立夏)까지로 일기변화가 매우 심한 기간이기도 하다. <br/> <br/>과학적으로 볼 때, 초봄은 일평균 기온이 5~10℃(일최저기온이 0℃이상), 본격적인 봄은 평균 10~15℃(최저 5℃이상), 늦봄은 평균 15~20℃(최저 1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br/> <br/>꽃샘추위가 남아 있지만, 어느덧 기다렸던 봄이다. 봄이 되면 동면(冬眠)에서 깨어나듯 신체의 활동량이 겨울에 비하여 늘어나게 되는데, 활동량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많은 영양소가 당연히 필요하다. <br/> <br/>지구가 준 봄 보약! 봄나물 5종 선물 세트로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보자. <br/> <br/>먼저 냉이다. 뿌리는 인삼보다 좋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뿌리까지 먹는게 좋은 대표적 봄나물로, 비타민 B1과 C가 풍부하고 단백질, 칼슘, 철분도 풍부하여 봄의 불청객 춘곤증 예방을 비롯해 시력보호, 변비개선, 암 예방, 간 보호 및 간 기능 개선과 해독작용에도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한다. <br/> <br/>미나리다. 미나리에는 칼슘과 철분 및 비타민 C가 풍부해 해열효과가 뛰어나며, 일사병, 폐렴, 유행성 독감 예방 및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특히,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몸속에 있는 독소를 분해 해주는 역할을 해주어 간경화, 빈혈, 고혈압 및 각종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한다. <br/> <br/>취나물이다. 취나물은 아미노산, 비타민A와 B와 칼륨과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체내에 나트륨(염분)을 배출시켜주고 근육통, 요통, 복통과 같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또한 불면증과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 특히 시금치보다 칼슘성분이 3배나 많아 뼈와 치아에 도움이 많이 된다. <br/> <br/>달래다. 달래는 무기질, 비타민C, 칼슘, 인, 요오드, 철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를 보충해주며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또한 기침감기나 기관지염의 증상을 완화시켜 주고 위장을 튼튼하게 해 소화기능을 도울 뿐만 아니라 정신을 안정시켜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br/> <br/>두릅이다. 두릅에는 칼슘, 비타민A와 C, 섬유소 등의 성분이 많다. 특히 다른 나물이나 채소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월등히 높아 영양이 풍부하며 아미노산 조성에 뛰어나며 면역력 증진에 큰 효과가 있다. 게다가 쓴 맛이 나는 사포닌이 있어 혈액순환을 도와 피로를 풀어주고 암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한다. <br/> <br/>그리고 이외도 생각만 해도 입맛이 돌고 영양만점인 쑥, 봄동, 돌나물, 곤드레, 씀바귀, 원추리, 참취, 곰취, 참나물, 파드득, 썸쑥부쟁이, 민들레, 세발나물, 방풍나물 등 우리 주변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br/> <br/>봄철에만 제대로 만날 수 있는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거부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 봄엔 마음껏 받아들여서 모두가 건강해졌으면 한다. 아울러 힘들고 어려운 농촌과 농가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br/> <br/>박섭 농협 인재개발원 교수

언론사: 세계일보-3-435.txt

제목: [생명을살리는한마디"괜찮니?"] 자살에 관한 4가지 오해와 진실  
날짜: 20170312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12090349001  
ID: 01100701.20170312090349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br/> <br/> 자살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5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자살을 예방하는 것은 단순히 정신 보건 영역의 과제만이 아닌, 전 국민이 참여해야 하는 매우 시급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이처럼 자살이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데도 아직 우리 사회에는 자살 관련 많은 편견과 오해가 남아 있고, 이것이 자살을 줄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살과 관련된 4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br/> <br/>첫째,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br/> <br/>자살은 예방 가능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은 ‘한 번 죽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반드시 죽고 만다’거나 ‘자살은 예방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많은 이들에게 우울증이건, 신체질환이건, 지독한 스트레스이건 간에 자살 위험요인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반대로 삶의 의지를 회복한다면, 자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됨으로써 높은 자살률을 낮춘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암을 예방해야 하는 것처럼 자살도 예방 가능한 문제 중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br/> <br/>둘째, ‘자살예방은 전문가들의 문제일 뿐’이라는 오해입니다. <br/> <br/>물론 자살 예방을 위해 전문가들의 노력은 중요합니다. 자살 예방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정책도 제언하며, 정부도 나서서 예방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자살은 매일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살 예방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는 물론이고 주변도 관찰해 자살 고위험군을 찾아내고, 적절히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일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타깝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br/> <br/>셋째, ‘자살은 정신병’이라는 오해입니다. <br/> <br/>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학자들이 자살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자살은 단순히 우울증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혹시 따로 구별해야 하는 정신질환의 일종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하나의 현상이자 증상이지, 독립된 정신병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신의학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실제 심리 부검을 통한 사후 분석에서도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져 자살을 하나의 정신병으로 취급하는 것은 커다란 오해와 편견입니다. <br/> <br/>넷째 ‘자살은 정당화 또는 미화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br/> <br/>자살이 정당한 행동으로 간주되거나 심지어 미화되는 사회에서 자살은 항상 증가하고 만연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이웃을 이해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 장려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들을 이해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죽하면 자살을 했겠는가’ 또는 ‘주변에서 너무 괴롭혀서 죽게 했다’는 등 자살을 정당한 행동으로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미화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살은 결코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자살은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족은 물론이고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너무도 큽니다. 종교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자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1명의 자살이 주변의 가까운 6명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준다는 사실 또한 기억되어야 합니다. ‘자살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시급합니다. <br/> <br/>전문가들은 높은 국내 자살률의 원인에 대해 각양각색의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원인은 사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고 개인에 따라서는 그 원인이 너무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을 지니고 있는 자살을 예방해 모든 이들이 살고 싶은 사회, 국가가 되기 위해 우선 자살에 대한 진실이 널리 알려지고 오해와 편견이 극복되길 소망합니다. <br/> <br/>오강섭 한국자살예방협회 협회장(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br/> <br/>본 칼럼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세계일보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하는 연재형 기고문입니다.

언론사: 세계일보-3-436.txt

제목: “흡연女 혈중 독성물질, 비흡연의 3배 ↑”  
날짜: 20170310  
기자: 윤지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10193946001  
ID: 01100701.20170310193946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흡연 여성이 비흡연 여성보다 혈액 속 독성물질 농도가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흡연 남성과 비흡연 남성의 차이보다 더 큰 것이다. <br/> <br/>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은 한국 암예방 연구에 참여한 21∼73세 성인 401명(남 232명, 여 169명)을 흡연자(190명)와 비흡연자(211명)로 나눠 혈청 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 연구는 식약처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뤄졌으며, 국제학술지 ‘역학저널’ 최근호에 발표됐다. <br/> <br/>내분비계 장애물질로도 불리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다이옥신, 폴리염화바이페닐(PCBs), 디디티(DDT), 과불화화합물(PFCs) 등 독성물질 26종을 말한다. 이들 유해물질은 동식물에 축적돼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출산장애, 암 등을 일으킨다. <br/> <br/>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흡연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간 상관관계가 컸다. <br/> <br/>여성의 경우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폴리염화바이페닐(PCB 156·167·180) 농도가 최소 2.7배에서 최대 3.5까지 높았다. 남성도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PCB 157의 농도가 2.3배에 달했지만, 다른 성분들은 여성과 큰 차이가 없었다. <br/> <br/>디디티 등의 유기염소계 살충제 농도도 여성의 경우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의 3.2배에 달했다. <br/> <br/>이런 성별 차이를 두고 연구팀은 “여성이 남성보다 체내 대사능력이 떨어져 독성물질을 체외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해외에서는 이런 이유로 흡연하는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농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br/> <br/>연구팀은 “체내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쌓이면 그만큼 건강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법적 규제를 통해 이들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한국인도 흡연자의 체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농도가 높다는 게 확인된 만큼 향후 위해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r/> <br/>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37.txt

제목: WBC에서도…암 이겨낸 원종현은 건재했다  
날짜: 20170310  
기자: 안병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10162021001  
ID: 01100701.20170310162021001  
카테고리: 스포츠>야구>한국프로야구  
본문: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은 한국 대표팀과 야구팬들에게 상처만 남긴 채 끝났다. 그러나 WBC 3경기에 모두 등판해 대표팀에 기여한 ‘숨은 일꾼’이 있다. ‘인간 승리’의 상징인 NC 사이드암 투수 원종현(30)이다. <br/> <br/>사실 대표팀의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는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받았다. 해외 원정도박 파문을 딛고 한 차원 다른 수준의 투구를 보여주며 이미지 회복에 성공했기 때문. 시속 150㎞에 육박하는 전매특허 돌직구와 직구와 궤적이 비슷한 변화구에 상대 타자들은 꼼짝 못하고 당했다. 대표팀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도 오승환만큼은 자존심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br/> <br/>그러나 한국 불펜진에서 릴리프 역할을 훌륭하게 해낸 투수가 바로 원종현이다. 빠른 공을 자랑하는 원종현은 역시 시속 150㎞의 강속구로 대표팀 마운드를 굳건히 지켰다. 이스라엘전에는 1-1로 맞선 7회초 대표팀의 네 번째 투수로 나와 라이언 라반웨이와 타일러 크리거를 각각 뜬공과 땅볼로 처리, 강렬한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렀다. 다음타자 스콧 버챔에게 안타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0.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br/> <br/>네덜란드전에는 선발투수 우규민(삼성)에 이어 4회말 2사 1루에 등판, 란돌프 오뒤버르를 땅볼로 잡아내 이닝을 끝냈다. 원종현은 5회말을 무실점으로 넘겼지만 6회말 아웃카운트 2개를 잡아놓고도 오뒤버르에게 통한의 2점포를 허용했다. 점수가 0-5로 벌어진 뼈아픈 피홈런. 그러나 이 경험으로 더욱 단단해진 원종현은 대만전에서 8-8로 맞선 8회말 다시 마운드에 올라 1이닝을 삼자범퇴로 막아냈다. <br/> <br/>사실 원종현은 이른바 ‘A급’ 선수는 아니지만 김인식호 엔트리가 확정될 때 누구보다 화제가 됐던 선수다. 그의 야구인생이 누구보다 굴곡이 많았기 때문이다. 2006년 LG 트윈스에 입단한 그는 2010년 시즌을 앞두고 1군에서 한 차례도 던지지 못한 채 방출당했다. 고질적인 팔꿈치 부상이 문제였다. <br/> <br/>이후 신생팀 NC에서 새 출발했지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며 재차 방출 위기를 맞았다. 2014년에야 확실한 1군 불펜으로 자리잡으며 꽃을 피운 그는 2015시즌을 준비하던 중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지난 시즌 재활을 통해 1군에 복귀했고, 이번 WBC에선 생애 첫 태극마크까지 달았다. <br/> <br/>김인식 감독은 9일 대만전 후 대표팀 감독을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젊은 선수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걸 느꼈을 거다. 앞으로 젊은 투수가 성장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이어 원종현에게 “몸쪽의 공을 잘 던져야 한다. 최소 시속 145㎞ 공을 던져야 한다. 메이저리그 선수도 그건 못 친다”고 각별한 당부를 남겼다. <br/> <br/>늦게 기량을 만개했기 때문에 원종현을 신진급 투수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 나이도 어느덧 30줄에 들어섰다. 그러나 숱한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의 열정은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질타 받았던 대표팀 속에서 단연 빛났다. 원종현의 역투는 실패로 끝난 WBC에서 유일한 스포츠맨십으로 남게 됐다. <br/> <br/>안병수 기자 rap@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38.txt

제목: ‘소리 없는 시한폭탄’ 간경변증의 모든 것  
날짜: 20170309  
기자: 이복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09204220001  
ID: 01100701.20170309204220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10일 오후 9시50분 EBS1 ‘명의’에서는 소리 없는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간경변증’의 증상과 원인, 그에 맞는 치료법과 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br/> <br/>어느 날 갑자기 생긴 당뇨병, 두 달 만에 10kg이나 빠져버린 체중, 노랗게 변한 눈, 새카맣게 변한 얼굴. 모두 ‘간’ 때문이었다.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난 조직이지만 오랜 시간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간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간경변증이 생긴다. 간경변증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암만큼이나 무섭다. 한 번 굳어져 버린 간은 혈액이 통하지 못하고 해독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수, 거미상 혈관종(피부 모세혈관이 마치 거미줄처럼 확장되는 상태), 정맥류, 간성혼수 등의 합병증을 불러일으킨다. 최악의 경우 간암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br/> <br/> 10일 EBS1 ‘명의’에서는 간경변증의 증상과 원인, 치료방법 등 모든 것을 알아본다. <br/>EBS 제공간경변증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여남주(45·여)씨의 경우 20년 동안 술을 파는 사업을 하면서 영업을 위해 술을 마셨고 결국 술이 간경변증을 유발했다. 국내 간경변증 환자의 70~80%는 B형 간염 바이러스로 발생한다. 10~15%는 C형 간염 바이러스, 나머지 10~15%는 알코올 과다섭취와 그외 여러 질환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B형 간염의 경우, 바이러스가 간세포에 자리 잡으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면역체계가 감염된 간세포를 공격한다. 이때 간세포도 함께 파괴되면서 염증이 생긴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간조직이 굳는 간경화로 발전하게 되고 그중 50% 이상이 간암으로 이어지게 된다. 간염은 간암의 주요 원인이고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치료시기를 놓치게 돼 보균 여부를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하다. <br/> <br/>간경변증은 간의 70%가 손상되기 전까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평소 내 간이 안전한지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간경변증은 초기 발견해 관리하면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간경변증의 구체적인 예방법을 소개한다. <br/> <br/>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39.txt

제목: [양향자의 The 건강한 음식] 철든 미역 빈혈을 부탁해!  
날짜: 20170309  
기자: 송은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09100217002  
ID: 01100701.20170309100217002  
카테고리: 경제>서비스\_쇼핑  
본문: 미역은 칼슘이 풍부하면서 다이어트에도 제격인 해산물이다. 게다가 요리하기 쉽고 가격도 저렴해 부담없이 식탁에 올릴 수 있다. <br/> <br/>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다. 알긴산은 미역과 다시마 같은 갈조류에 많이 포함돼 있다. <br/> <br/>미역을 만졌을 때 느껴지는 미끈미끈하고 끈끈한 점액질이 바로 이것이다. 알긴산은 체내에 쌓인 중금속은 물론 환경호르몬, 발암물질 등을 흡착해 배출시켜준다. <br/> <br/>특히 장내의 발암물질을 흡착, 배출하고 장내 유익한 균을 증식시키는 효능이 있어 대장암 예방에 매우 좋다.  <br/> 미역줄기볶음 <br/>재료: 미역 300g, 팽이버섯 1/2봉지, 청·홍고추 2개씩, 다진마늘 1작은술, 참기름 1큰술, 깨소금 약간 <br/>만드는 법 <br/>① 미역은 끓는 물에 데쳐서 물기를 제거하고 3㎝로 썰어준다. <br/>② 팽이버섯은 밑둥을 잘라내고 씻은 후 가닥가닥 떼어 물기를 뺀다. <br/>③ 고추는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하고 가늘게 채썰어 놓는다. <br/>④ 볼에 데친 미역줄기, 다진마늘, 참기름, 깨소금 약간 넣고 조물조물 무쳐 놓는다. <br/>⑤ 달군 팬에 식용유, 팽이버섯, 고추채, 소금 약간 넣고 볶아 넓은 쟁반에 식힌다. <br/>⑥ 다시 팬에 양념미역 넣고 센 불에서 살짝 볶아 고추채 옆에 펼쳐 식혀 한 김 나간 후 고루 섞어 담는다. <br/>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br/> <br/>또한 미역에는 항암활동을 해주는 후코이단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br/> <br/>암 세포가 아니더라도 몸에 해로운 세포들을 없애주고 미네랄을 얻게 해줌과 동시에 암 세포가 전이되지 않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 <br/> <br/>우리나라에서는 산모가 아기를 낳고 미역국을 먹는 풍습이 있다.  <br/> 미역 새우죽 <br/>재료: 새우 200g, 미역 말린 것 1/2컵, 물 6컵, 국간장 2큰술, 다진마늘 1큰술, 쌀 1컵, 참기름 약간 <br/>만드는 법 <br/>① 새우는 껍질을 벗기고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삶아준다. <br/>② 쌀은 씻어 30분 정도 불려 건진다. <br/>③ 마른 미역은 물에 불려 잘게 다져 놓는다. <br/>④ 밑이 두꺼운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쌀을 볶다가 쌀알이 투명하게 익으면 물 6컵을 붓는다. ①의 새우를 넣고 주걱으로 저어가면서 끓인다. <br/>⑤ 냄비의 가장자리가 끓기 시작하면 불린 미역을 넣고 주걱으로 저어가며 끓인다. <br/>⑥ 새우와 미역이 다 퍼져 익으면 그릇에 담아낸다. <br/>미역에 칼슘이 풍부하여 자궁을 수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비타민K가 출혈을 멎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엽산이 풍부하여 엽산이 많이 필요한 임산부에게도 매우 좋은 식품이다. <br/> <br/>이외에도 뼈를 구성하는 요소인 칼슘이 우유의 13배나 함유되어 있어 뼈를 튼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br/> <br/>건조미역은 색이 검은색에 가깝고 미역 심이 가늘수록 맛이 좋다. 또한 줄기보다 잎이 큰 것이 좋다. <br/> <br/>생미역은 전체적으로 짙은 녹색을 띠고 잎이 두껍고 손으로 눌렀을 때 탄력감이 느껴지는 것이 좋다. <br/>미역을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없는 건냉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br/> <br/>줄기미역의 경우 반드시 비닐팩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면 1년 정도 양호한 상태가 유지된다. <br/> <br/>(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언론사: 세계일보-3-440.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저승길 먼저 간 게 다 OO 때문이었어?  
날짜: 20170309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09050151001  
ID: 01100701.20170309050151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2015년에 태어난 우리 아이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올해 초 팔순 잔치를 치른 우리 부모님의 기대여명(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은 어느 정도일까요? <br/>통계청이 발표한 '생명표'를 통해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br/>먼저 2015년에 태어난 아기는 평균 약 82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성의 기대여명이 남성보다 6년 정도 더 길지만, 그간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br/>40세인 남녀의 기대여명은 각각 약 40년과 46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2015년 출생한 남자아이가 숨진다면 이 중 27.3%는 암(cancer)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여자아이도 암(16.1%)이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요인으로 드러났는데요. 앞으로 암이 완전 정복된다면 남성의 기대여명은 약 5년, 여성은 3년가량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br/>다만 한국인의 기대여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이가 장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값이기 때문입니다. <br/>생명표에는 생존확률도 나와 있습니다. 2015년에 태어난 남아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약 56% 수준입니다. 바꿔 말하면 남아 10명 중 6명가량은 80세 이전에 이승과 작별을 고할 확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모든 국민이 ‘100세 시대’를 온전히 누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남성은 앞으로 18년 정도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0.2년 더 긴 수명이다. <br/> <br/>같은 기준으로 40세 남녀의 기대여명은 각각 약 40년과 46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시 말해 남성은 약 80세까지 살고, 여성은 86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br/> <br/>전에 비해 남녀 격차가 6년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최근 남성의 간질환 사망률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br/> <br/>암과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 등 5대 사망원인 가운데 남녀 대부분 암에 걸려 숨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확률 자체는 전보다 낮아졌다. <br/> <br/>2015년에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2.1년으로, 전년보다 0.3년 늘었다. <br/> <br/>◆2015년 출생한 남아 10명 중 6명, 80세 이전 세상 떠난다 <br/> <br/>9일 통계청의 '2015년 생명표'에 따르면 이해 태어난 남성의 기대수명은 79년, 여성은 85.2년으로 전년보다 각각 0.4년, 0.1년 증가했다. 남녀를 더한 평균치는 82.1년인데, 이는 전년 대비 0.3년 더 살게 됐다. <br/> <br/>남녀 모두 대부분 연령층에서 사망률이 낮아진 게 기대수명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br/> <br/> 이를 OECD 평균과 비교해보면 남성의 기대수명은 1.1년, 여성은 1.9년 각각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br/> <br/>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전체 12위였으며 남성은 18위, 여성은 7위를 각각 기록했다. <br/> <br/>2015년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는 6.2년으로, 전년보다 0.2년 좁아졌다. <br/> <br/>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는 1970년(7.1년) 이후 벌어져 1985년 8.6년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후 남성 기대수명이 개선되면서 급격히 좁혀지는 추세다. <br/> <br/>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OECD 평균(5.4년)보다 크며, 일본(6.3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br/> <br/> 통계청 측은 "남녀 기대수명 격차가 가장 컸던 1985년 당시 남성의 간질환 사망률이 여성보다 4∼5배 높았지만, 이후 사망률이 낮아진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br/> <br/>◆"남녀 기대수명 격차 줄어든 게 다 간 때문이야?" <br/> <br/>남녀 모두 대부분 연령층에서 기대여명이 증가했지만, 80세 이상 여성은 전년과 비교해 0.0~0.1년 감소했다. <br/> <br/>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고령층의 기대여명은 2015년 기준 65세에서는 남성의 개선 폭이 컸고, 75·85세에서는 여성이 더 컸다. 특히 65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18.2년으로, OECD 평균(17.9년)을 처음 넘어섰다. <br/> <br/> 65세 여성의 기대여명은 22.4년이었다. 65세 여성의 기대여명은 2008년 처음으로 OECD 평균을 넘어선 뒤 지속해서 늘고 있다. <br/> <br/>2015년 기준 40세 남자는 앞으로 40.1년, 여자는 46.0년 각각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전년 대비 남자는 0.3년, 여자는 0.1년 각각 더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br/> <br/>2015년 출생한 아이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성 56.5%, 여성 77.7%로 전년보다 각각 1.1%포인트, 0.6%포인트 커졌다. 이는 1970년과 비교하면 무려 44.9%포인트, 44.7%포인트 급상승한 수준이다. <br/> <br/>2015년에 태어난 아이는 앞으로 5대 사망원인 중 암에 걸려 숨질 확률이 가장 높았다. 다만 남성은 27.3%로 전년보다 1.0%포인트 낮아졌고, 여성 역시 16.1%로 0.4%포인트 하락했다. <br/> <br/>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남성 9.7%, 여성 12.6%로 뒤를 이었다. 뇌혈관 질환은 각각 8.6%와 10.0%로 3위였다. <br/> <br/>남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가장 높았지만, 80세 여성은 심장질환(13.4%)으로 숨질 가능성이 암보다 높았다. <br/> <br/>◆암 없으면 男 5년, 女 3년 더 산다 <br/> <br/>전년 대비 2015년 사망원인별로 신생아가 숨질 확률이 높아진 질환을 보면 남성은 폐렴(1.2%포인트)과 심장질환(0.2%포인트), 여성은 폐렴(0.8%포인트)과 심장질환(0.3%포인트),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0.2%포인트) 등이 꼽혔다. <br/> <br/> 반면 남성은 폐암(-0.4%포인트)과 뇌혈관 질환(-0.3%포인트) 등이, 여성은 뇌혈관 질환(-0.4%포인트)과 위암(-0.2%포인트)의 사망 확률이 낮아졌다. <br/> <br/>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하면 남녀 모두 암과 심장질환, 폐렴을 비롯해 호흡계통 질환으로 숨질 확률이 높아졌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가장 많이 하락했다. <br/> <br/>암이 제거된다면 2015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성 5.1년, 여성은 2.9년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br/> <br/>또 심장 및 뇌혈관 질환에 걸리지 않으면 남성은 각각 1.5년, 1.2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이에 따른 기대 수명이 각각 1.3년, 1.1년 증가했다. <br/> <br/>65세 남성이 암에 걸리지 않으면 4.3년, 여성은 2.1년 기대수명이 각각 늘어났다. <br/> <br/>이를 통해 암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41.txt

제목: “이롬 생식과 함께 올바른 건강문화 전파할 터…”  
날짜: 20170308  
기자: 김정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08172605001  
ID: 01100701.20170308172605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사진 : 이롬 경기수석사업단 박현숙 사장건강전문기업 이롬의 경기수석사업단 박현숙 사장이 평범한 주부에서 남다른 세일즈 전략으로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으며, 이롬의 전국 가맹점 중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뽑히고 있다. <br/> <br/>평범한 주부이자 암환자의 가족에서 성공한 비즈니스 사장으로 거듭나기까지 박현숙 사장이 이롬과 인연을 맺게 된 과정과 세일즈를 풀어갔던 과정, 성공 노하우들을 들어본다. <br/> <br/>Q. 이롬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는가? <br/> <br/>아들이 8살 때 백혈병이 발병 되서 5년정도 치료를 했다. 5년 이후에 완치가 됐는데, 병원 담당 의사 분이 치료 이후의 관리, 특히 식습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습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하게 됐는데, 건강한 식품을 한번에 부담 없이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이롬의 생식을 만나게 됐다. <br/> <br/>Q. 가맹점 사장이 된 계기는? <br/> <br/>건강한 식품에 대해 매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는데 뒤늦게 이롬을 만나게 돼 억울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생식의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았고 아들의 건강상태도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이롬의 생식에 많이 빠지게 됐는데, 저렴하게 구매하려면 가맹점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 42살에 전업주부에서 늦깎이 가맹점 사장이 됐다. <br/> <br/>Q. 이롬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떨 때 보람을 느끼는가? <br/> <br/>이롬 가맹점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암 환자들을 접하게 된다. 그 분들이 이롬의 생식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가장 큰 보람이다. 단순히 비즈니스를 한다는 차원을 넘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문화를 알리는 전파자라는 느낌이랄까? <br/> <br/>암을 비롯해 질병에서 회복하고 가맹점 직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꽤 많다. 그 분들과 함께 보다 많은 이웃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전파해 나가고 싶다. <br/> <br/>Q. 이롬 가맹점만의 장점이 있다면?  <br/> <br/>보통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가맹점끼리 경쟁구도인데 이롬은 가족같이 서로가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분위기다. 이러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한다. <br/> <br/>또한 우리는 굉장히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함께 한 지가 10년이 넘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 많아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다. 대학교와 연계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전 세계로 여행을 갈 수도 있다. 실제로 호주 동유럽 하와이 등 거의 전 세계를 다 다녔고 내년에는 북유럽을 간다. <br/> <br/>Q. 비즈니스를 하면서 지키는 경영철학이 있다면? 앞으로의 꿈은? <br/> <br/>7가지가 철학이 있다. 언행일치하자. 솔직하자. 정직하자, 약속을 지키자, 내 이익보다는 직원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자. 수익의 80%를 재투자하고 환원하자, 관계성 좋은 이별을 하자가 그것이다. 무엇보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후원을 하며 가맹점을 키워나가고 싶다. <br/> <br/>Q. 마지막으로 특별히 할 말이 있다면? <br/> <br/>40대에 평범한 주부에서 시작해서 이롬의 경기사업단 대표가 됐다. 평범한 사람들도 건강한 문화를 전파하고 실제로 건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강한 사명감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무것도 없고 힘들었던 삶 속에서 이롬은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었다. <br/> <br/>더 넓은 시야와 사명감을 가지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게 도와준 가맹점 식구들, 특히 남편한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br/> <br/>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42.txt

제목: 다리 셋인 개와 하나뿐인 소년의 특별한 우정  
날짜: 20170308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08145008001  
ID: 01100701.20170308145008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암으로 오른쪽 다리를 잘라낸 미국의 10대 소년이 다리가 3개뿐인 개를 입양해 훈훈한 우정을 나누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준다. <br/> <br/>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피플지 등 외신들에 따르면 퀸 샨(12)은 2년 전 골(骨)암으로 오른쪽 다리와 엉덩이 일부를 잘라내야 했다. <br/>  <br/>이전에도 한 차례 위기를 넘겼던 퀸은 심해진 병세 탓에 어쩔 수 없이 수술대에 올랐다. <br/> <br/>수술 후 깨어난 퀸은 제일 먼저 이렇게 말했다. <br/> <br/>“<span class='quot0'>저처럼 다리가 하나 없는 개를 키우고 싶어요.</span>”. <br/> <br/> <br/>  <br/> <br/> 2년 전 골(骨)암으로 오른쪽 다리와 엉덩이 일부를 잘라낸 퀸 샨(12)은 최근 자기처럼 다리가 하나 없는 핏불믹스견 '로건'을 입양했다. 퀸이 잔디밭에 앉아 로건의 배를 쓰다듬고 있다. 동물보호소 'Front Street Animal Shelter' 페이스북 영상캡처. <br/> <br/> <br/> <br/>이후 암을 완전히 이겨낸 퀸은 최근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있는 한 동물보호소에서 핏불믹스견 한 마리를 입양했다. 소밍대로 다리가 하나 없는 개를 골랐다. <br/> <br/>앞서 퀸의 가족은 동물보호소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다리 하나 없는 개가 있다는 소식을 보고는 당장 입양을 희망했으나, 이미 관심을 준 가족이 있다는 관계자의 말에 낙담했다. <br/> <br/>다행히 나중에 입양이 철회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망설임 없이 데려올 수 있었다. <br/> <br/>퀸의 가족은 개에게 로건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br/> <br/>동물보호소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처음에 개를 껴안은 소년을 봤을 때 눈물이 흘렀다</span>”며 “<span class='quot1'>그건 기쁨과 벅참으로 가득한 눈물이었다</span>”고 말했다. <br/> <br/>다리가 하나 없는 탓에 로건은 계단을 쉬이 오르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로건과 퀸이 함께라면 힘을 보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게 둘을 지켜보는 이들의 하나같은 전망이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43.txt

제목: "원전은 되고 연구로는 안되나"…기장군수 1인 시위  
날짜: 20170307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07172324001  
ID: 01100701.2017030717232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span class='quot0'>0.2ｇ(ｇ중력가속도)로 내진 설계 된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버젓이 가동해 놓고, 0.3g(지진 규모 7.0)로 안전하게 내진 설계 된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은 왜 중단시켜 놓고 있습니까?</span>"  <br/> <br/> .오규석(사진) 부산 기장군수는 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허가 촉구'를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br/> <br/>수출용 신형 연구로는 암 조기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대량 생산하고 중성자를 이용한 반도체 생산, 비파괴 검사 등에 활용되는 소형 연구 설비를 말한다. <br/> <br/>2010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을 공모했다. <br/> <br/>9개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2010년 7월 30일 사업자로 선정된 기장군은 비발전 분야를 선도할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사업비 3천512억원)에 수출용 신형 연구로를 건설하기로 하고 준비해왔다. <br/> <br/>수출용 신형 연구로 허가권을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지진(규모 5.8)의 여파로 활성단층 안전성 심사를 강화했다. <br/> <br/>기장군은 "수출용 신형 연구로는 원자력발전소와 애초부터 건설의 목적과 규모가 다르다"며 "선진국에서도 안전하게 운영 중인 검증된 원자로"라는 점을 강조했다. <br/> <br/>열 출력은 발전용의 0.3%에 불과하고 내진 설계도 발전용 원자로보다 훨씬 더 견고한 0.3g를 채택했다는 것이다. 지진해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리원전보다 8배 이상 높은 해발 80ｍ 지점에 건설예정부지를 정했다. <br/> <br/>군수가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허가가 지연되고 있어 최악에는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br/> <br/>기장군은 "연구로 건설허가가 안 되면 2천500여 억원이 투입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 입주를 기다리는 의료·바이오 기업과 파워 반도체 관련 30여 개 기업 유치가 불가능하고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파워 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자체가 물거품이 된다"고 우려했다. <br/> <br/>오 군수는 "<span class='quot1'>원안위가 질병 진단과 치료 등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시설인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을 왜 중단시켜 놓고 있는지 명백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이 중단된다면 0.2ｇ로 내진 설계 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span>"고 목소리를 높였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44.txt

제목: 뇌종양 원인 유전체의 진화패턴 세계 최초 규명  
날짜: 20170307  
기자: 김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07143010001  
ID: 01100701.20170307143010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뇌종양 유전체가 시간 흐름에 따라 발병 부위별로 진화하는 패턴이 세계 최초로 규명됐다. 암 질환의 맞춤형 치료 및 정밀의료의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평가된다. <br/> <br/> .보건복지부는 국내 연구진이 뇌종양 유전체에 대한 시공간적 구조 분석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는 삼성서울병원 난치암연구사업단 남도현(사진) 교수팀이 미국 컬럼비아대 라울 라바단 교수팀과 협력해 진행했다. <br/> <br/>연구팀은 뇌종양 중 가장 악성으로 분류되는 교모세포종 환자 52명으로부터 127건의 부위별 원발암-재발암 짝 유전체를 채취해 구조와 약물반응 결과를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했다. 종양 유전자의 다양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로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모였다. 이를 통해 원발암과 재발암 종양의 거리가 가까우면 발현과 변이 양상이 비슷하지만 멀리 떨어질수록 양상도 달라짐을 규명했다. <br/> <br/>교모세포종은 다른 암에 비해 항암치료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높아 진단 후 기대 생존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하다. 재발하는 시간과 부위에 따른 유전체 진화의 다양성이 천차만별인 탓에 개인별 맞춤 표적치료가 시도됐으나 성공률이 높지 않았다. <br/> <br/>연구팀은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뇌종양 환자의 유전체 진화 및 종양 발생 위치에 따른 유전체 다양성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며 “향후 뇌종양 환자별로 최적의 치료법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달 1일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제네틱스’에 게재될 예정이다. <br/> <br/>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45.txt

제목: 암·치매 걸리는 실험쥐 개발… 치료 길 연다  
날짜: 20170307  
기자: 김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07010236001  
ID: 01100701.20170307010236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이나 치매 등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실험쥐 모델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br/> <br/>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6일 단백질을 비정상적으로 변형시켜 암과 치매 등 퇴행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실험쥐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br/> <br/>이번 연구를 공동 수행한 카이스트 박희성 교수와 아주대 박찬배 교수는 동물 수정 후 성장 과정에서 특정 조직·기관의 표적 단백질을 비정상적으로 변형(아세틸화)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암과 같은 다양한 질환을 만들 수 있게 됐다. <br/> <br/> <br/> 박희성 교수 박찬배 교수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2만여종의 단백질은 대사 과정을 거쳐 아세틸화, 인산화, 당화 등으로 변형된 뒤 체내에서 세포 신호 전달이나 성장 등 신진대사 활동을 조절한다.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단백질 변형이 일어나면 세포의 신호 전달과 대사활동의 손상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암, 치매, 당뇨 등의 질환을 일으킨다. <br/> <br/>연구진은 “<span class='quot0'>암과 치매 등 질병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춤형 표적 항암제나 뇌신경 치료제 등 신약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달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의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br/> <br/>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46.txt

제목: 환경오염으로 매년 5세 미만 어린이 170만명 사망  
날짜: 20170306  
기자: 김민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06233843001  
ID: 01100701.20170306233843001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환경오염으로 매년 5세 미만 어린이 170만명이 숨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세계보건기구(WHO)는 6일(현지시간) 펴낸 보고서에서 환경오염은 신체 기관이 아직 자라는 단계에 있는 어린이에게 특히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br/> <br/>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57만명의 5세 이하 어린이가 공기 오염, 간접흡연과 관계가 있는 호흡기 질환으로 숨지고 있고 36만1000명은 식수 오염과 위생시설 미비로 설사, 탈수증 등을 일으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WHO는 공기오염과 간접흡연, 식수오염 등이 태아 때부터 영향을 미쳐 조산을 일으키거나 평생 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유아기에 공기 오염에 노출된 어린이는 천식 등 만성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병, 뇌졸중, 암 등에 걸릴 위험이 늘었다. <br/> <br/>WHO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환경오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해마다 20만명의 아동의 생명을 앗아가는 말라리아, 설사 등을 예방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47.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내 남편을 소개합니다"  
날짜: 20170306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06142925001  
ID: 01100701.20170306142925001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말기 난소암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작가가 홀로 남을 남편을 미래 배우자(?)에게 소개하는 글을 공개해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br/> <br/>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와 피플지 등에 따르면 시카고에 사는 에이미 크루즈 로젠탈은 최근 이들 매체에 사별 후 홀로 살아갈 남편을 소개하는 기고를 3일자로 게재했다.  <br/> <br/>자신의 사후 남편이 재혼할 수 있도록 돕고자 유머와 진심을 뒤섞어 써내려간 이 글에서 오히려 에이미가 얼마나 반려자를 사랑하는지 느껴진다는 게 기고를 접한 누리꾼들의 한결 같은 반응이다. <br/>  <br/>에이미는 쿠키를 만들고 나눠 먹는 과정을 통해 믿음과 공평, 배려 등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줬다는 평가를 받은 창작동화 ‘쿠키 한 입의 인생수업'(Cookies : Bite-size Life Lessons)의 저자다. <br/> <br/>에이미의 남편 사랑을 생생히 전하기 위해 아래부터는 기고문 원래 형태대로 1인칭에서 글을 쓰기로 한다. <br/> <br/>  말기 난소암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미국 작가 에이미 크루즈 로젠탈이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남편 소개 글의 인터넷판 표지.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br/> <br/>예전부터 글을 쓰려고 했어. 하지만 꽤 오랫동안 치즈버거를 먹지 못했고, 모르핀 주사를 맞느라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한 탓에 손가락 들 힘이 없었어. <br/> <br/>더 이상 늦출 수 없을 것 같아. 인생의 데드라인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맥박이 뛰고 있으므로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어. <br/> <br/>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특별한 남자와 26년간 결혼생활을 했지.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26년의 결혼생활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더는 그러지 못하게 됐네. 슬픈 농담 같다고? <br/> <br/>2015년 9월5일 한 여자가 응급실로 실려갔어. 오른쪽 아랫배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던 그는 “별것 아닙니다, 맹장염이에요”라는 의사의 말을 들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병원은 난소암 판정을 내렸지. 9월6일부터 이 부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 <br/> <br/>가족과의 남아프리카 여행도 무산됐고, 엄마를 모시고 아시아로 놀러 가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됐지. 그동안 꿈꿨던 여러 계획이 모두 취소되거나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어. <br/> <br/>‘암'(cancer)과 ‘취소'(cancel)라는 단어는 내게 같은 의미가 되어버렸지. <br/> <br/>현재에 충실하게 되면서 난 ‘플랜 비(Be)’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여기서 에이미는 ‘Plan B’ 대신 ‘Plan Be’를 사용해 동음이의어를 구사했다.) <br/> <br/>  말기 난소암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미국 작가 에이미 크루즈 로젠탈이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남편 소개 글의 인터넷판 표지.에이미 크루즈 로젠탈의 모습. 미국 피플지 홈페이지 캡처. <br/> <br/>신사 숙녀 여러분, 나의 사랑스러운 남편, 제이슨 브라이언 로젠탈을 소개해볼까 한다. <br/> <br/>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제이슨은 쉽게 사랑에 빠지게 하는 그런 남자다. 내가 그랬다. <br/> <br/>대학을 마치고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다 고향 시카고로 돌아온 1989년 스물네살의 어느 날. 나와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소개팅을 주선한 지인 덕분에 제이슨을 만났지. <br/> <br/>사실 기대도 안 했어. <br/> <br/>하지만 만나기로 한 장소의 문을 열고 들어온 제이슨을 보면서 후광이 비친다는 느낌을 받았지. 저녁을 함께 먹은 뒤 난 그와 결혼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어. <br/> <br/>바보 같게도 제이슨은 그걸 1년이 지난 뒤에야 알았단다. <br/> <br/>정확히 9490일 동안의 결혼생활을 토대로 제이슨을 홍보해보려 한다. <br/> <br/>제이슨의 키는 5피트10인치(약 178cm)에 몸무게는 160파운드(약 73kg)다. 머리가 조금 희끗희끗하지만 녹갈색 눈동자가 매력적이지. <br/> <br/>옷도 무척 잘 입어. 우리 아들들이 이따금 아빠 옷을 빌려 입고 나갈 정도야. 운동도 좋아해 몸매도 무척 잘빠졌지. <br/> <br/>우리 집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내 칭찬에 힘을 보탰을텐데. 복도를 따라 걸어오는 그의 모습만 보더라도 어디선가 달콤한 향이 풍기는 느낌이야. <br/> <br/>제이슨은 공연도 좋아해. 부부로 함께 즐겼던 것이기도 하지. <br/>  <br/>오, 이쯤에서 사랑스러운 열아홉살 딸 패리스를 빼놓지 않을 수 없지. 패리스는 누구보다 아빠와 공연 보러 가는 걸 무척 좋아해. <br/> <br/>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해 사무실에 있을 때를 뺀 나머지 시간에 제이슨을 만난다면, 예술가라고 부를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아프고 난 뒤부터 그림을 거의 그리지 않았어. <br/> <br/>첫아이를 임신하고 초음파 촬영이 있던 날 꽃다발 들고 나타났던 제이슨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br/> <br/>이 정도면 남편이 어떤 사람일지 여러분이 쉽게 예상하리라 생각돼. 이제는 당신이 선택할 시간이야. <br/> <br/>남편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어. 아이들과도 같이 있어 주고 싶었고. 재즈를 들으며 안락한 목요일 밤을 지내고도 싶었지. 그러나 그럴 수 없게 됐어.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테니 말이야. <br/> <br/>이 세상 사람으로 살게 될 날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 부디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 제이슨의 손을 잡아주기를 바래. <br/> <br/>그러면 그때부터 또 다른 러브스토리가 시작되겠지.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48.txt

제목: 민욱 오늘 4일 발인, 네티즌…“부디 하늘에선 아프지 마시길”  
날짜: 20170304  
기자: 이규화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04142215001  
ID: 01100701.20170304142215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배우 故 민욱의 발인이 진행됐다. <br/> <br/> 4일 오전 서울 한남동 순천향병원 VIP 장례식장에서는 故 민욱의 발인식이 치러졌다. 고인의 장지는 서울추모공원이다. <br/> <br/> 한편, 故 민욱은 지난 2일 두경부암으로 별세했다. 지난 2015년 암 선고를 받고 약 2년간의 투병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br/> <br/>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dkdk\*\*\*\*) 용의 눈물 태조 왕건 초등학교 때 봤던 사극인데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beat\*\*\*\*) 김지영 여운계 민욱 김자옥 이런 연기자 분들 돌아가실 때마다 뭔가 세월이 진짜 빨리 흐르는구나. 그런 거 느껴요. 말로 설명 못하겠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itjo\*\*\*\*) 다정다감한 아빠 연기. 항상 울 아빠 생각나게 하셨던 분인데 ㅠㅠ 부디 하늘에선 아프지 마시길 ㅠ” “(lchm\*\*\*\*) 어렸을 적 선생님 드라마 보고 큰 기억이 있네요. 위에선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시길”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이슈팀 ent@segye.com <br/> <br/>  

언론사: 세계일보-3-449.txt

제목: 대물림되는 가족력… 유전자 정체 뭐길래?  
날짜: 20170303  
기자: 정승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03194909001  
ID: 01100701.20170303194909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가족 내력에 정신 병력이 있고, 자신은 물론 자녀에게로 전이될 확률이 50%라는 것을 들춰내는 사람이 있을까? <br/> <br/>미국 컬럼비아 의대 암센터 전문의인 저자 싯다르타 무케르지(Siddhartha Mukherjee)는 용기있게 가족 병력을 들춰내면서 이 책을 썼다. 저자는 정신병이 유전자에 의해 대물림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유전자의 정체를 쫓는다. 유전자가 인간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결손 유전자가 어떤 요인에 의해 증상을 유발하는지 풀어놓았다. 우생학자와 독일 나치 등 유전자를 왜곡한 사람들의 잔혹한 행위도 가감없이 전한다. 퓰리처 상을 받은 전작 ‘암-만병의 황제의 역사’로 국내 독자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br/> <br/>저자는 아버지의 형제들인 두 명의 삼촌과 사촌형이 조현병 환자라고 고백한다. 자신도 조현병 환자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의 두 딸도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토로한다. 그는 “지금껏 유전병의 공포 속에서 살아오면서 집안 전체가 고통을 받아왔다. 나는 이런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고 했다. <br/> <br/>저자는 우선 멘델의 이야기로 운을 뗀다. 1800년대 무렵 수도원의 수도사였던 멘델이 완두콩 실험으로 기초적 유전의 법칙을 규명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유전학을 잘못 이해한 탓에 우생학을 고안한 몇몇 학자들을 지적한다. 열등한 유전자는 아예 유전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이 이른바 우생학의 골자다. 우생학은 정신병자라고 치부한 여성들에게 강제 불임 수술을 자행했고, 나치의 700만 유대인 대학살 같은 끔찍한 사태를 초래했다. <br/> <br/> <br/>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br/> <br/>저자는 초파리 실험을 통해 염색체와 유전의 규칙을 학문적으로 정리했다. 영국의 그리피스는 유전자가 수평적으로 교환한다는 형질전환을 발견하면서, 유전자가 일종의 단백질 결정체임을 밝혀낸다. 유전 정보를 가진 물질이 DNA라는 것과 DNA 구조도 규명된다. DNA 모형을 만들어낸 학자는 왓슨과 크릭이었다. 이들을 통해 유전자 비밀이 풀리면서, 유전자의 기능도 차츰 밝혀졌다. <br/> <br/>1978년 유전자 합성을 통한 인슐린이 발명되면서 생명공학의 길이 열린다. 이를 통해 기념비적인 인간 유전체(Human Genome) 지도가 완성된다. 결함있는 유전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유전자 요법도 발전했다. 이른바 ‘긍정 우생학’의 시작이다. 그러나 유전자를 이용한 기술들에는 여전히 사회적, 윤리적 논란이 존재한다. <br/> <br/>저자에 따르면 유전자가 지닌 암호의 본질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분자는 단 하나에 불과하고, 유전 암호도 단 한 종류에 불과하다. 유전자는 염색체에 들어 있다. 염색체는 세포 안에 들어 있는 긴 실 같은 구조물로, 그 안에 유전자들이 줄줄이 연결되어 있다. 사람의 염색체는 총 46개다. 양쪽 부모로부터 23개씩 물려받는다. 한 생물이 지닌 유전자 명령문의 집합 전체를 유전자 덩어리 즉, 유전체(genome)라고 한다. 유전체는 모든 유전자에 각주, 주석, 설명서, 참고문헌까지 달린 백과사전 격이다. 개인의 종합적 특성은 이 같은 유전체에 의해 발현된다. 유전체에는 사람을 만들고 수선하고 유지하는, 명령문들을 담은 유전자가 2만1000∼2만3000개 들어 있다. <br/> <br/>유전학의 발전 덕분에, 생명과학자들은 유전자들 중 몇 개가 시공간에서 어떻게 작용하여 그런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해독할 수준에 이르렀다. 유전자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변형시켜 기능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인체의 생리, 존재에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저명한 유전학자 토머스 모건은 “유전의 근본적인 측면들이 그토록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우리는 어쨌거나 자연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된다. 자연이 불가사의하다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자신했다. <br/> <br/>저자는 “<span class='quot0'>앞으로의 세계에서 유전자를 이용한 과학이 어디까지 나아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그 기본이 되는 유전자의 정체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span>”고 강조한다. 저자는 긍정적 우생학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유전자 탐험을 마무리했다. 로즈 장학금으로 옥스퍼드 대학교에 유학했으며,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수재다. 혈액암, 뼈와 골수의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주로 연구 중이다. <br/> <br/>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50.txt

제목: [사설] 증오와 분열 부추기는 막말 정치인 퇴출시켜야  
날짜: 201703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03011041001  
ID: 01100701.20170303011041001  
카테고리: 정치>외교  
본문: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어제 “<span class='quot0'>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동안 소녀상에 대한 일본 폭거에 뒷짐만 지고 있더니 이제 대놓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span>”고 비난했다. “<span class='quot1'>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span>”고도 했다. 그의 비판은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실천해야 한다”는 황 권한대행의 3·1절 기념사를 겨냥한 것이다. 4류 정치인에나 어울리는 부적절한 언행이다. <br/> <br/>한·일 양국 정부가 2015년 12월 타결한 위안부 합의는 찬반 논란으로 여태껏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연말 부산 소녀상 설치와 일본의 대사 귀국 조치 등 반발로 한·일 관계는 꽁꽁 얼어붙었다. 실질적인 국정 책임자로선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려고 위안부 합의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고 반대하는 입장에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앞잡이’와 같은 치욕적 언사를 동원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 <br/> <br/>상대를 향한 분노와 증오를 표출하는 막말은 중독성과 전염성이 강하다. 또 다른 막말을 부르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긴다. 사회통합을 깨뜨리는 막말의 악순환은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암적 존재다. 친박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제 태극기 집회에서 “<span class='quot2'>망나니 특검이 짐을 싸 집으로 가 정말 시원하다</span>”고 했다. 그러자 김성태 바른정당 사무총장은 어제 “<span class='quot3'>망나니 친박들은 태극기를 몸에 둘러서 안 된다</span>”고 응수했다. <br/> <br/>최근에는 대선주자들도 막말 대열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달 28일 “<span class='quot4'>지금 민주당 1등 하는 후보는 자기 대장이 뇌물을 먹고 자살한 사람</span>”이라고 말했다. “<span class='quot1'>비서실장이 그 내용을 몰랐다면 깜이 안 된다</span>”고도 했다. 조직폭력배에게서나 들을 법한 험한 투의 발언으로 문재인 전 대표는 물론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욕보인 것이다.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홍 지사의 의도는 뻔하다.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인지도를 올리겠다는 계산이다. 자신의 존재감은 커졌을지는 몰라도 그가 소음을 쏟아낸 우리 사회는 어찌 되겠는가. 유권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막말 정치인은 지지를 보내지도, 표를 주지도 않아야 한다. 막말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반드시 추방해야 할 ‘퇴출 1순위’다.

언론사: 세계일보-3-451.txt

제목: 중견배우 민욱 암투병 끝 별세  
날짜: 20170302  
기자: 이복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02205938001  
ID: 01100701.20170302205938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배우 민욱(70)이 지난 1일 별세했다. <br/> <br/>고인은 1년 반 전 두경부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이었다. 두경부암은 쇄골보다 상부에 발생하는 암 중에서 갑상샘을 제외한 암으로 상악암, 인두암, 설암, 후두암 등을 가리킨다. <br/> <br/>고인은 1969년 KBS 8기 공채 탤런트로 연기자의 길에 입문, ‘용의 눈물’과 ‘태조 왕건’ 등에서 선이 굵은 연기를 했다. 1976년에는 영화 ‘강력계’에서 주연도 맡았다. 2010년 주말극 ‘결혼해주세요’에도 출연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박정옥씨와 1남3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 순천향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은 4일 오전 7시40분이다. <br/> <br/>이복진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3-452.txt

제목: 英 엄마는 악성 유방암 "미리 알려준 아이에게 고마워.."  
날짜: 20170302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02150430001  
ID: 01100701.20170302150430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모유를 거부한 젖먹이 아들 덕에 유방암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에 나선 여성의 사연이 1일(현지시간) 영국 메트로 등 현지 언론에 보도됐다. <br/> 영국 스태퍼드셔에 사는 사라 보일(26·왼쪽)이 아들을 들어올리고 있다. 젖먹이 아들 덕에 암을 조기 발견한 그녀는 "고맙다"고 말했다. 영국 스태퍼드셔에 사는 사라 보일(26)은 지난해 2월 건강한 아들을 낳은 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오른쪽 가슴에 생긴 응어리로 유방암 발병을 걱정해 한때 출산을 포기하려고도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br/> <br/> 그녀는 응어리를 발견한 뒤부터 지난해까지 5번 받은 검사에서 모두 '여성 호르몬으로 인한 양성 낭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아직 암 발병으로 이어지지 않아 당장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료진 소견에 안도할 수 있었다. <br/> <br/> 하지만 아들이 생후 6개월이 됐을 때쯤부터 모유를 거부하면서 사라는 다시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기가 모유를 먹지 않아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 갔다"고 기억했다. <br/> <br/> 그녀는 어떻게든 먹이려고 노력했으나, 아들은 유독 오른쪽 가슴으로 수유할 때 고개를 돌렸다. 그렇게 2개월이 더 지나자 아들은 가슴 위치와 상관없이 거부하기 시작했고, 심할 때는 먹었던 것을 모두 토해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사라의 가슴이 검붉게 변해갔다. <br/> <br/> 사라는 결국 병원을 찾아 초음파 검사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얻고자 생체 조직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충격적이게도 '트리플 네거티브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았다. <br/> <br/> 의사는 "<span class='quot0'>3개월 전부터 암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span>"고 전했다. 아들이 모유에 처음 거부반응을 보인 시기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사라는 깜짝 놀랐다. <br/> <br/> 그녀는 "아이에게 억지로 모유를 먹이려 했는데, 먹지 않아 다행"이라며 "의사도 발견하지 못한 암을 아이가 알아채곤 행동으로 알려줬다"고 고마워했다. <br/> <br/> 유방암 전문의인 캐서린 프리스틀리는 "<span class='quot1'>지금까지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아기가 유방암을 알아채는 사례가 매우 드물게 있다고 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어머니와 아이의 깊은 유대감이 놀라운 결과를 만든 것 같다</span>"고 설명했다. <br/> <br/>한편 유방암 중 환자 중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트리플 네거티브'라고 한다. 주로 젊은 여성에게서 나타나고, 악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방암 전체의 2%를 차지한다. 항암제로 치료해야 하며, 전이를 막으려고 유방을 잘라내기도 한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메트로 캡처

언론사: 세계일보-3-453.txt

제목: 민욱, 1년 반 암투병 끝에 별세…향년 70세  
날짜: 20170302  
기자: 정은나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02100841001  
ID: 01100701.20170302100841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배우 민욱(본명 민우기)이 지난 1일 별세했다. 향년 70세.  <br/> <br/>민욱은 2015년 암 판정을 받은 뒤 투병 중이었으나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br/> <br/>민욱은 1968년 연극배우로 시작해 이듬해 KBS 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용의 눈물' '태조 왕건' '제3공화국' '무인시대'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br/> <br/>고인의 빈소는 서울 한남동 순천향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4일 오전 7시 40분이다. 장지는 서울추모공원으로 정해졌다.   <br/> <br/>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br/>사진=KBS

언론사: 세계일보-3-454.txt

제목: ‘효녀 골퍼’ 이보미 “올 평균타수 60대 칠 것”  
날짜: 20170301  
기자: 박병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301211507002  
ID: 01100701.20170301211507002  
카테고리: 스포츠>골프  
본문: 일본 여자프로골프(JLPGA)투어에서 활약 중인 ‘효녀 골퍼’ 이보미(29·사진)는 2015년과 2016년 상금왕을 차지했다. 2015년에는 무려 7승, 지난해에는 5승을 거뒀다. 일본에서 7년째 활약하고 있는 이보미는 2014년 10월 아버지가 암으로 사망하면서 일본 여자골프를 평정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게 한이라고 한다. 뒷바라지를 해준 아버지라는 말만 나오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인다. 이보미는 대신 시즌이 끝나면 엄마, 언니, 여동생을 데리고 늘 가족 여행을 간다. 지난겨울에도 괌 여행을 다녀왔다. 이보미는 미국 팜스프링스 동계훈련에서 체중을 2kg가량 줄이려 했으나 자칫 스윙 밸런스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트레이너의 지적에 따라 감량을 포기했다. <br/> <br/>JLPGA투어에서 3년 연속 ‘상금 퀸’을 노리는 이보미가 2일 일본 오키나와의 류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시즌 개막전인 다이킨 오키드 레이디스 골프 토너먼트(총상금 1억2000만엔·약 12억1200만원)에 출전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키나와 나하공항에 도착했을 때 성대한 환영행사가 열렸음은 물론이다. 늘 웃는 얼굴에다 매너도 빼어나 ‘스마일 캔디’라는 별명을 얻은 이보미는 일본에서 인기스타로 자리한 지 오래다. <br/> <br/>이보미는 “<span class='quot0'>올 시즌 목표는 평균타수 60대를 기록하는 것</span>”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평균타수 70.092타로 역대 최저타수 기록을 세웠지만 올해 또 한번 경신하겠다는 각오다. 60대 타수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개막전부터 집중해야 한다. 이보미는 “<span class='quot0'>지난해 파5홀에서 버디가 거의 없었지만 버디를 목표로 한다면 60대 타수가 가능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리우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랭킹 점수가 높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 세 차례 출전했지만 올해에는 이달 30일 열릴 메이저대회인 ANA인스피레이션에만 출전하며, 일본투어에 전념한다. 30개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br/> <br/>이보미는 1,2라운드에서 지난해 17살의 나이로 일본여자오픈을 깜짝 제패한 히타오카 나사가, 요코미네 사쿠라와 한조로 편성됐다. 이 대회에는 이보미와 동갑내기인 김하늘, 신지애를 비롯해 안선주 등도 출전한다. <br/> <br/>한편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LPGA투어 HSBC유민스 챔피언스(총상금 150만달러·약 18억원) 대회조직위원회는 1일 대회 1,2라운드에서 데뷔전을 치르는 박성현(24·하나금융그룹), 세계랭킹 2위인 에리야 쭈타누깐(22·태국), 세계랭킹 4위인 전인지(23)를 같은 조에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2일 오전 11시6분 1번홀에서 티오프한다. <br/> <br/>박병헌 선임기자 bonanza7@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55.txt

제목: [재테크 브리핑] 2030보험 출시 기념 ‘조이찾GO’ 이벤트 외  
날짜: 20170228  
기자: 김라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28233636001  
ID: 01100701.20170228233636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2030보험 출시 기념 ‘조이찾GO’ 이벤트 <br/> <br/>MG손해보험이 최근 2030세대를 타깃으로 출시한 ‘2030보험’을 기념해 3월10일까지 ‘조이찾GO, 혜택받GO!’ 경품이벤트(사진)를 실시한다. MG ‘2030보험’은 2030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7가지 테마를 마련해 생활 속 위험을 종합 보장하는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지난 6일 새롭게 출시됐다. 이번 이벤트는 MG손보의 온라인 채널인 ‘#JOY다이렉트’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30보험’ 상품소개 페이지 등 홈페이지 곳곳에 숨어 있는 4명의 캐릭터 ‘조이’를 모두 찾으면,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를 제공한다. 또 SNS에 작성한 가입 후기를 MG손보 페이스북에 공유한 고객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5000원을 100% 지급한다. <br/> <br/>1명만 가입해도 가족 모두 보장 ‘인기몰이’ <br/> <br/>NH농협손해보험이 출시한 무배당 NH프리미어운전자보험이 가족 중 1명만 가입해도 가족과 운전자가 모두 보장되고 가입연령도 80세까지 확대해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상품은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가족 중 1명의 가입으로도 가족 운전자 모두 부상치료비, 벌금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운전자담보’ 가입 후 운전면허를 소지한 가족이 증가한 경우 ‘가족운전자담보’로 전환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 이 상품은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비해 80세까지 가입, 최대 100세까지 보장가능하며 자가용 운전자뿐만 아니라 영업용 운전자도 가입가능하다. <br/> <br/>하나의 보험으로 암·생활비 보장 ‘함께’ <br/> <br/>신한생명이 하나의 상품으로 각종 암보장과 생활비 지급 보장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신한받고또받는생활비암보험’(무배당, 갱신형)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특정암 진단을 받으면 매월 100만원씩 5년간 총 60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특정암은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대장점막내암·비침습방광암을 제외한 암이다. 주계약은 3종(순수보장·건강관리·만기지급형)으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건강관리형은 특정암으로 진단받지 않으면 3년마다 20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최대 5회 지급한다. 만기지급형은 특정암으로 진단받지 않고 만기 생존 시 200만원의 건강관리자금을 준다.

언론사: 세계일보-3-456.txt

제목: 돈받고 건강식품 허위 과대광고한 개인블로거들, 처음으로 고발당해  
날짜: 20170228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28103808001  
ID: 01100701.20170228103808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를 실어 준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고발 당했다. <br/> <br/>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17일 상습적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일삼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5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1개월과 품목제조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 했다. <br/> <br/>또 이들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허위 과대광고를 게재한 56명도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아울러 고발했다. <br/> <br/>식품당국이 실정법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체가 아니라 개인 블로그 운영자를 허위 과대광고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r/> <br/>이들 개인 블로그에는 "화학첨가물이 든 제품을 섭취하면 암이나 천식을 유발할 수 있고,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등 공포를 자극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광고내용이 그대로 실렸다. <br/> <br/>식약처에 따르면 행정처분된 이들 업체는 '뉴트리코어', '프로스랩 맘스'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합성원료를 사용했는데도 마치 천연원료를 쓴 것처럼 '100% 천연원료 비타민'이나 '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無화학첨가물' 등으로 허위광고했다. <br/> <br/>구체적 위반업체와 허위 과대광고 제품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57.txt

제목: 신내차량기지에 야구·축구장 짓는다  
날짜: 20170228  
기자: 김유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28010039001  
ID: 01100701.20170228010039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축구장 23배 규모의 생활체육시설을 만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도 야구장과 축구장 등 92개 시설을 조성해 누구나 쉽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br/> <br/>서울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994억원을 투입, 215개(25개 종목)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했다고 27일 밝혔다. 총 면적은 축구장 23개 면적인 24만7303㎡에 달한다. 매년 축구장 7개 정도의 생활체육시설이 생긴 셈이다. 조성된 시설에는 야구장(7개)과 축구장(11개), 농구장(16개) 등 주요 종목 시설은 물론 인공암벽장(2개)과 파크골프장(1개) 등도 포함됐다. <br/> <br/>생활체육시설은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 중요한 시설이다. 시에서 만든 생활체육시설은 대부분 민간 시설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데다 시나 자치구가 관리해 주민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특히 2015년 문을 연 용마폭포공원 인공암벽장(중랑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은 매달 평균 1000여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다.  <br/> <br/> <br/>3년간 가장 많이 만들어진 시설은 배트민턴장으로 총 83개가 생겼다. 이어 △족구장 35개 △풋살장 20개 △농구장 16개 △축구장 11개 △야구장 7개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가용부지가 많았던 동북권(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에 확충된 시설이 81개로 가장 많았고,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이 58개,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36개로 뒤를 이었다. 서울 시내에 유휴공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서울대공원 등 타 시·도 소재의 부지에도 7개의 시설이 확충됐다. <br/> <br/>올해에는 357억원을 투입해 △야구장 3개 △축구장 2개 △배드민턴장 52개 등 17개 종목, 92개 시설을 만든다. 중랑천 등 하천변 국유지와 도림유수지 상부, 신내차량기지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랑구의 신내차량기지 안에 야구장과 축구장을, 중랑천변 국유지 내에 국궁장과 테니스장, 농구장을 만든다. 또 영등포구 도림유수지 안에 실내 배드민턴장(12코트)과 인공암벽장을, 안양천변 국유지에 야구장과 파크골프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고척돔구장 안에도 풋살장을 2개 조성한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58.txt

제목: 고령화 영향… 건보 진료비 64조 돌파  
날짜: 20170227  
기자: 김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27200839001  
ID: 01100701.20170227200839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고령화 가속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64조원을 넘어섰다. <br/> <br/>27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6 건강보험 주요 통계 및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64조5768억원 중 노인(65세 이상·피부양자 포함)의 진료비가 25조187억원을 차지했다. <br/> <br/>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노인 인구(645만명) 비율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076만명)의 12.7%에 불과했지만 진료비 규모는 전체의 38.7%나 됐다.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32만8599원(70세 이상은 35만7405원)으로 가입자 전체 평균인 10만6286원의 3배가 넘었다. <br/> <br/>지난해 노인 진료가 많았던 질병은 입원진료의 경우 노년 백내장(19만9039명)과 치매(9만3414명), 폐렴(8만7300명) 등이었고, 외래진료는 본태성 고혈압(250만1963명)과 치은염 및 치주질환(214만7596명), 급성 기관지염(181만7590명) 등이었다. <br/> <br/>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치료비가 늘고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질환·희귀 난치성질환)의 보장강화, 임플란트를 포함한 치과보험 확대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전체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br/> <br/>여기에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전년도 진료비 증가율이 6.7%로 둔화한 것과 겹치면서 지난해 전체 진료비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최대인 11.4%를 기록했다. <br/> <br/>지난해 부과된 총 보험료는 47조5931억원이었고, 실제 징수한 금액은 47조4428억원(직장가입자 39조8675억원·지역가입자 7조5753억원)이었다. <br/> <br/>대형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중 이른바 ‘빅5’(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강남성모병원)에 지급된 진료비는 3조838억원으로 전년보다 22.8% 늘었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약국 제외)에 지급된 진료비의 8.1%를 차지했다. <br/> <br/>이밖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인구는 전년 대비 10.1% 늘어난 88만3774명(직장가입자 63만5295명·지역가입자 24만8479명)이었다. <br/> <br/>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59.txt

제목: 예매율 1위 ‘23아이덴티티’ 실화 모티브 ‘빌리 밀리건’은 누구?  
날짜: 20170226  
기자: 박진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26093217001  
ID: 01100701.20170226093217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지난 22일 국내에 개봉해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 ‘23아이덴티티’는 미국인 빌리 밀리건(1955∼2014, 본명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의 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밀리건은 미국에서 다중 인격 장애가 존재한다는 정신 감정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인물이다. 전 세계에서도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1977년 여대생 3명을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미국인 빌리 밀리건(오른쪽)과 그의 변호사 알란 골즈베리의 모습. 콜럼버스 디스패치 캡처25일(현지시간) 미국 피플지 등에 따르면 밀리건은 1977년 오하이오주립대 인근에서 여대생 3명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한 혐의로 이듬해 검찰에 기소됐다. 정신과 의사인 코닐리아 윌버는 밀리건이 서로 다른 10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강간을 저지른 인격은 아이러니하게도 19세 레즈비언 인격인 ‘아달라나’라고 결론 내렸다. 실제로 밀리건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br/> <br/>판사는 윌버를 비롯한 정신과 의사 7명의 증언을 기반으로 밀리건에게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밀리건은 최종적으로 24개의 인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명 났다. <br/> <br/>밀리건의 또 다른 인격들은 면면이 달랐다. 연령대는 3∼23세에 달했고, 침착하고 지적인 22세 영국인 ‘아서’, 밀리건과 생일이 같은 23세 유고슬라비아인 ‘라젠’ 등 국적도 다양했다. 아서와 라젠은 각각 영국 억양과 체코 억양을 써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br/> <br/>밀리건이 이 같은 다중 인격 장애를 겪게 된 건 계부의 학대를 비롯한 유년기 아픔 때문. 밀리건은 계부가 어린 시절 자신을 육체적,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br/> <br/>학대로 인한 트라우마는 탈출의 명수 16세 ‘토미’와 폭력적인 ‘라젠’, 눈물이 많은 세 살배기 ‘데이비드’란 인격을 만들어냈다. 알코올중독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밀리건의 친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r/> <br/> 빌리 밀리건이 자신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 알란 골즈베리를 그린 초상화.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에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아테네 뉴스 캡처생전 밀리건의 지능 지수(IQ)는 140에 달했다. 밀리건은 특히 그림에 소질이 있었다. 그의 변호를 맡았던 알란 골즈베리는 2015년 그리스 아테네 뉴스와 인터뷰에서 “밀리건은 그림을 독학했고 주로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의 아이들을 그렸다”며 “미국의 한 여성에게 그의 그림이 1만달러(약 1130만여원)에 팔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밀리건이 그린 아이들이 그의 다중 인격 중 하나인지, 그가 상상한 아이들의 모습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br/> <br/>이 같은 재능은 그의 다중 인격 장애와 무관하지 않다. 밀리건의 친모와 가까운 사이였던 18세 ‘앨런’과 ‘대니’는 초상화, ‘토미’는 풍경화, ‘라젠’은 연필 스케치에 뛰어났다고 피플지는 전했다. <br/> <br/>밀리건은 10년간 정신병원에 있다가 퇴원해 치료를 받다가 1991년 8월 더 이상 다중 인격 장애를 겪지 않는다고 인정받았다. 2014년 12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한 요양원에서 암으로 숨을 거뒀다. 그의 실화는 1981년 미국에서 ‘The Minds of Billy Milligan’이란 논픽션 소설로 출간됐으며, 국내에도 2007년 ‘빌리 밀리건’이란 제목으로 번역돼 나온 바 있다. <br/> <br/>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60.txt

제목: [김현주의 일상 톡톡] "돈 많을수록 암 더 잘 걸린다고?"  
날짜: 20170225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25050222001  
ID: 01100701.2017022505022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발병률이 높은 암을 지역별로 정리한 '암 지도'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시·군·구별로 암 종류별 발생률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는 폐암의 발생이 각각 증가했으며, 대장암은 남녀 모두 늘어났습니다. 서울 강남·서초구와 경기 분당 등 고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여성들은 유방암에 많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또 최근 갑상선암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검진률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암 검진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갑상선암이 발견된 셈이지요. <br/>하지만 갑상선암을 둘러싸고는 과잉진단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해 8월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3~07년 한국에서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환자 중 여자는 90%, 남자는 45%를 각각 과잉진단으로 추정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br/>서울 등 대도시에 사는 이들은 다른 지역보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높고, 스트레스나 비만 등으로 인한 발병률 역시 높다는 점이 암 발생 증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br/>다만 암 발생과 거주환경 간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에는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암 발생자의 주소지가 진단 당시 기준인데다 실제 환자가 발병 전 오랜 기간 거주한 곳과 다를 수 있는 탓입니다. 부촌(富村)이라 불리는 서울 강남·서초구 등 강남권에서 서구형 암으로 꼽히는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갑상선암 발생은 대도시에 집중됐고, 시군구별로 최대 15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br/> <br/>또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는 유방암과 폐암의 발생이 각각 증가했으며, 대장암은 남녀 모두 잦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이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가 1999~2013년간 5년 단위로 분석해 발표한 '시군구별 암 발생 통계 및 발생지도' 보고서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br/> <br/>◆'부자동네' 강남권 주민 OO암 더 잘 걸린다 <br/> <br/>보고서에 따르면 시군구별 암 발생률은 그 종류에 따라 적게는 2배, 많게는 15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지역별 암 발병률(거주민 10만명당 암 진단자)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암은 갑상선암이었는데 2004∼08년 남자 기준으로 14.5배의 차를 기록했다. <br/> <br/>갑상선암 다음으로 담낭 및 기타 담도암(6.0배)과 전립선암(5.8배)도 지역별 차이가 컸다. 위암(2.2배)과 폐암(2.2배), 대장암(2.3배)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작았다. <br/> <br/> 갑상선암은 여수와 광양, 순천 등 전남 대부분과 서울, 대전, 대구 등 대도시에서 많이 발생했다. 2009∼13년 남자 갑상선암의 발병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인구 10만명당 47.7명의 환자가 나왔고, 여자 환자의 최대 발생지는 광양으로 인구 10만명당 185.1명이 걸렸다. <br/> <br/>갑상선암 발병이 가장 적었던 지역은 횡성과 동해, 정선, 평창, 삼척 등 강원 지역이었다. 횡성에서는 남자 10만명당 3.8명, 삼척에서는 여자 10만명당 44.6명이 시달렸다. 갑상선암 발생의 증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검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며, 상당수는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과잉진단으로 볼 개연성이 크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br/> <br/>◆흡연율·식습관·음주율·산업환경 등 다양한 요인 암 발생에 영향 <br/> <br/>실제로 대표적인 서구형 암으로 꼽히는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서울 강남과 서초, 경기 분당에서 많이 발생했다. 강남 3구와 분당 거주자는 초경 연령이 빠르고 출산율은 낮았으며, 따라서 아이를 낳는 나이도 늦어 유방암 발생 위험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발생률이 낮은 지역은 전북 장수와 순창, 강원 정선 등이었다. <br/> <br/>간암은 경북 울릉군과 경남, 전남 남부가, 담낭 및 기타 담도암은 낙동강 유역 인근에서 각각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br/> <br/> 경남과 전남은 거주민의 높은 B·C형 간염의 유병률이, 낙동강 지역은 민물고기 생식 습관과 이에 따른 장내 기생충 감염이 각각 암 발생률을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병률은 질병이 특정 지역에서 일정한 시점 동안 발병한 수를 당시 인구와 비교해 계산한 비율을 가리킨다. <br/> <br/>대장암은 대전과 충청에서 많이 발생했고, 경남과 강원 철원에서는 적게 발생했다. <br/> <br/>위암은 충청과 경상, 전라의 경계지역에서 발병률이 높았다. 특히 충북 옥천군은 남자의 위암 발생률이 꾸준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폐암은 전남과 경북, 충북에서 많이 생겼다. <br/> <br/>대장암과 폐암, 위암 등은 이처럼 특정 지역에서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br/> <br/>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이들 암의 발생률과 흡연율, 식습관, 음주율, 산업환경 등의 관련성을 추적했지만 뚜렷한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br/> <br/> 전국적인 암 발생 추세를 보면, 남녀 모두 갑상선암과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졌다. 남자 갑상선암은 1999∼2003년 10만명 당 2.9명 발병하던 것이 2009∼13년 24.3명으로 8.4배 늘었고, 여자는 같은 기간 16.7명에서 110.6명으로 6.6배 증가했다. 남자의 대장암 발생률은 31.1명에서 50.8명, 전립선암은 9.7명에서 26.5명으로 각각 상향됐다. 여자 대장암은 18.8명에서 27.4명, 유방암은 28.2명에서 49.5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br/> <br/>시군구별 암 발생 통계가 발표된 것은 1999년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이 시작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 대상인 암은 모두 24종이다. 정부는 시군구별 암 발생 통계를 지역별 관리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61.txt

제목: 세스코, 라돈방사능과 극초미세먼지 진단하는 공기청정기 출시  
날짜: 20170224  
기자: 김정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24181356001  
ID: 01100701.20170224181356001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사진 : 세계최초 라돈방사능 센서와 극초미세먼지 정밀 센서 및 필터가 적용된 ‘세스코에어IoT라돈플러스 공기청정기’글로벌 생활환경기업 세스코는 생활 속 자연 방사능 물질인 라돈방사능과 극초미세먼지까지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공기청정기를 런칭했다. <br/> <br/>라돈 방사능은 우라늄이 붕괴하며 발생되는 자연 방사능 물질로 세계보건기구가 폐암 발병 원인 2위로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지표면에서 발생하여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라돈은 1년 동안 사람에게 노출되는 자연 방사능의 무려 50%를 차지하는데, 라돈 방사능이 붕괴되는 과정에 발생하는 알파선에 사람이 노출될 경우 DNA에 손상을 일으켜 돌연변이와 각종 암을 유발한다. <br/> <br/>특히 우리나라는 우라늄 함량이 높은 화강암 지대가 많아그 방출량이 일본보다 7.8배나 많은 라돈 방사능 적색 국가로 지정되어 있다. 라돈 방사능은 지표면과 가까운 저층 아파트, 단독주택에서 많이 방출되며, 배관 틈을 통해 유입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br/> <br/>라돈 방사능과 함께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특히 그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극초미세먼지는 곰팡이 포자보다 작아 폐 속까지 침투하여 모세혈관으로 유입, 온몸을 돌아다니며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br/> <br/>이 라돈방사능과 극초미세먼지까지 진단하는 세스코 공기청정기는 세계 최초 라돈 방사능 센서가 적용되어 생활 속 라돈방사능까지 정확히 진단하며, 기존 타사 공기청정기 센서가 극/초/미세먼지의 구분 없이 오염된 먼지의 양만을 측정한 반면 세스코 공기청정기는 최소 0.5㎛ 크기의 초미세파티클을 셀 수 있는 정밀센서를 적용, 극/초/미세먼지의 양은 물론 개수까지 정확히 측정이 가능하다. <br/> <br/>세스코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최근 실내 공기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라돈방사능과 극초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세스코 공기청정기가 출시됨으로써 국민 건강과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개선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62.txt

제목: 한국 최고 의사 511명 10년간의 기록  
날짜: 20170223  
기자: 이복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23204241001  
ID: 01100701.20170223204241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24일 오후 9시50분 EBS1 ‘명의’에서는 방송 1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의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명의는 어떻게 선정되며 프로그램은 어떻게 제작되는지 등을 소개한다. <br/> <br/>1회의 주인공이었던 간이식 분야 최고 권위자인 이승규 박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모습, 같은 수술실에 있지만 더 발전된 의술로 환자들을 만나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명의의 의미는 무엇일까. <br/> <br/>‘명의’는 지난 2007년 3월 1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511명의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들을 소개했다. 한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10대 암을 비롯해 23가지의 각종 암과 뇌혈관, 심혈관 질환,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척추 질환을 비롯한 노화로 인해 많이 발병하는 관절 질환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치매, 파킨슨, 임플란트, 백내장 등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질환 250여개를 다뤘다. 또한 수술실의 생생한 촬영과 상세하고도 전문적인 CG, 우리나라 최고 의사들의 이해하기 쉬운 해설로 정확한 의학 정보를 담아왔다. <br/> <br/> <br/> 24일 오후 9시50분 EBS1 ‘명의’에서는 10주년 특집으로 그 동안 소개했던 각종 질병과 출연했던 명의들, 환자들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br/>EBS 제공명의의 선정 방식도 공개된다. 제작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설문조사 등 7회에 걸친 검증을 통해 뽑힌 각 분야의 명의들을 대상으로 섭외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소한 것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검수로 매회 최선을 다하는 제작진들의 숨은 제작 과정을 보여준다. <br/> <br/>‘명의’에 출연했던 환자들의 이후 삶의 변화도 소개한다. 선천성 담도 폐쇄증으로 생후 7개월 만에 엄마에게 간이식을 받아야 했던 단영군, 위암 4기로 위 전절제술을 받아야 했던 배길순씨, 하루아침에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전체를 들어내야 했던 김옥남씨, 35세라는 젊은 나이에 직장암이 간까지 전이돼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했던 최미선씨까지 명의를 만난 후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환자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명의를 만난 후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 <br/> <br/>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63.txt

제목: [김기자의 톡戰] "3명이 할 일 1명이 하니 일자리가 줄어들죠"  
날짜: 20170223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23130218001  
ID: 01100701.20170223130218001  
카테고리: 사회>노동\_복지  
본문: "앞으로 집배원을 배 이상 늘려야 한다. 업무가 과도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집배원 처우가 이렇게 열악한지 몰랐다. 현장에서 고생하면서 육체 노동을 하는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일부 근무태만 공무원들 자리를 없애고, 그 예산으로 집배원을 늘려라."(20대 취업준비생 A씨) <br/> <br/>"1년 반 동안 한 우체국에서 창구직원으로 근무했다. 우편창구에 앉아있는 나도 각종 예금과 보험 유치 때문에 힘들었다. 그래서 결국 2년도 못 채우고 퇴사했다. 집배원 초과근무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고생하는 집배원들과 마주치면 따스한 말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30대 주부 B씨) <br/> <br/>"사람이 우선인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 대한민국은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 가히 살인적이다. 무엇보다 근로·사회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대기업 등 기득권만 옹호하지 말고, 힘 없는 노동자들도 좀 생각해달라. 과도한 업무를 당연시하는 풍토부터 고쳐야 한다. 일하는 만큼 돈을 버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40대 직장인 C씨) 전국 1만6000여명의 집배원들이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br/> <br/>이들은 각종 질병을 앓는 것은 물론,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23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연간 집배원 사망자 수는 2012년 22명, 2013년 16명, 2014년 12명, 2015년 15명, 지난해 19명 등 두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벌써 2명이 숨졌다. <br/> <br/>2012년 이 집배원 86명의 사망을 원인별로 분류하면 사고사 24명(28%), 암 29명(34%), 뇌심혈관질환 14명(16%), 간 질환 등 기타 19명(22%)이었다. <br/> <br/>집배원들은 일반 노동자보다 매주 12시간, 매년 621시간씩 더 일하고 있다. <br/> <br/>노동자운동연구소의 ‘전국 집배원 초과근로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집배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5.9시간, 연 평균 노동시간은 2888시간이었다. 통계청의 '2015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의 일반 노동자와 비교하면 주 12시간, 연 621시간 더 일하는 셈이다. <br/> <br/>게다가 경영 적자 때문에 2015년 8월부터 토요근무까지 재개되면서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토요근무제 도입 후 월 평균 초과 노동시간은 76.7시간으로, 도입 전보다 6시간 가량 늘었다. <br/> <br/>◆집배원들 일반노동자보다 매년 621시간 더 일한다 <br/> <br/>강도 높은 노동 탓에 집배원들의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폭우나 폭설 등 악천후(惡天候)에도 어김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배 업무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도 높은 편이다. <br/> <br/>실제 지난달 18일 경북에서 34살의 젊은 집배원이 배달 중 1t 트럭에 부딪혀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br/> <br/>같은달 31일 경기 파주에서 54살의 집배원이 근무 중 심근경색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br/> <br/> 최근에도 또 1명의 집배원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 6일 충남 아산 영인우체국 소속 집배원 조모(45)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r/> <br/>조씨는 전날인 일요일에도 출근, 우편물 분류업무를 마친 뒤 오후 10시30분쯤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전국집배노동조합 "과로사 막으려면 인력 충원만이 유일한 해법" <br/> <br/>전국집배노동조합은 조씨가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려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같은 팀 동료가 일을 그만둔 데다, 이번 설 연휴 동안 또 다른 동료가 다리를 다쳐 출근하지 못하자 조씨가 떠안은 업무량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br/> <br/>집배원들은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호소한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 탓에 매달 20시간가량 '무료 노동'으로 착취당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br/> <br/>특히 신도시에서 근무하는 집배원들의 업무량은 가히 살인적이라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조씨가 근무했던 아산에도 1만여세대 입주가 예정된 신도시가 들어선다. 세대가 급증하면서 물량 폭주가 충분히 예상된 상황이었으나 인력 충원은 없었고, 결국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br/> <br/> 관리자들이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조 측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모르니 집배원들이 개선사항을 요구해도 반영되지 않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폭로했다. <br/> <br/>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집배원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 일본은 집배원 1명의 담당인구가 660명이지만, 한국은 2800명에 달한다. 국내 집배원의 업무가 4.2배 가량 더 많은 것이다. <br/> <br/>◆우정사업본부 "근무시간 단축, 차량배달 확대하겠다" <br/> <br/>이처럼 최근 과로 등에 따른 집배원의 돌연사(突然死)가 잇따르자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는 근무시간 단축과 차량배달 확대 등 개선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br/> <br/>이병철 우본 경영기획실장은 지난 20일 "<span class='quot0'>최근 집배원 사망사고가 잇따라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집배원들이 사고 없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span>"고 밝혔다. <br/> <br/> 이 실장은 "<span class='quot0'>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배달물량과 세대수가 증가하는 지역에 집배원을 증원하고, 민간위탁배달을 확대해 집배원의 업무를 경감하겠다</span>"고 약속했다. 이어 "우체국·지방우정청간 집배인력 재배치를 통해 업무 부하도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br/> <br/>다만, 증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내놓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64.txt

제목: 암·뇌출혈 등 7대 질병… 보험료 변동없이 평생보장  
날짜: 20170223  
기자: 김소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23032629001  
ID: 01100701.2017022303262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한화생명이 2017년 새해 첫 신상품으로 ‘한화생명 변액유니버셜 GI보험’(사진)을 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br/> <br/>이 보험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주요 성인질환인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말기폐질환, 말기간질환, 말기신부전증, 장기간병 등 7대질병을 보험료 변동 없이 평생토록 보장한다. 특히 발병률이 높고 고객 니즈가 큰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은 기존 치명적질병(CI)보험에서 일반질병(GI)보험으로 조건을 완화하여, 질병의 중등도와 관계없이 보장받도록 확대한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7대질병보장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7개 각각 질병의 진단자금을 각 1회씩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다. <br/> <br/>김라윤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3-465.txt

제목: 김정남 암살 리정철 "난 모른다"지만 유학파 출신 독극물 전문가  
날짜: 20170220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20075442001  
ID: 01100701.20170220075442001  
카테고리: 국제>아시아  
본문: 김정남 북한 노동당 위원장 이복형 김정남 암살사건에 연루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경찰에 의해 체포된 북한 국적자 리정철(리종철 李鐘哲·46)이 독극물 전문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br/> <br/>20일 말레이시아 중국어 신문 중국보와 동방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 쿠알루룸푸르 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붙잡힌 리정철<사진>은 "나는 아니다. 암살에 참여하지 않았다. 난 김정남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r/> <br/>그러면서 "지난 13일 사건 당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가지 않았다며 죄가 없으니 당장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 <br/> <br/>하지만 리정철이 그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항암 보건약품회사에서 일했으며 인도 유학까지 마친 화학과 약학 전공자로 나타났다. <br/> <br/>중국보 등에 따르면 리정철은 인도에서 의약학과 화학을 배운 후에 말레이시아에 왔으며 독극물에 관한 지식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br/> <br/>리정철이 일하는 회사는 암 관련 약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그의 직책은 약제사 겸 제약전문가이다. <br/> <br/>이에 따라 리정철은 김정남을 살해한 일당에 독극물을 건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br/> <br/>말레이시아 경찰은 리정철이 접촉한 사람과 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그가 김정남 살해에 쓰인 독극물을 만들거나 제공했는지를 캐고 있다. <br/> <br/>리정철은 40대 아내, 10대 자녀 2명과 쿠알라룸푸르 고급 아파트에서 1년6개월 전에 이사와 살고 있다. <br/> <br/>이웃들에 따르면 리정철은 인사를 잘하는 등 친근한 인상이었다. <br/> <br/>말레이시아 경찰은 리정철은 김정남 암살 당시 용의자의 도주를 위한 운전과 망보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단정하고 있다. <br/> <br/>한편 김정남 암살 사건 관련해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북한 국적 의 남성 용의자 4명은(리지현, 홍송학, 오종길,리재남)은 암살 당일인 13일 모두 비행기로 말레이시아를 떠나 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 러시아를 거쳐 17일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싱가포르 채널 뉴스아시아가 보도했다. <br/> <br/>뉴스아시아는 말레이시아 경찰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추적 중인 북한 국적 용의자들이 현재 평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br/> <br/>앞서 탄 스리 누르 라시드 이브라힘 경찰청 차장은 이들이 리지현(33), 홍송학(34), 오종길(55), 리재남(57)이라고 발표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br/>사진=MBC TV 캡쳐

언론사: 세계일보-3-466.txt

제목: [권상호의 문자로 보는 세상] 차고 넘쳐서 병든 세상… ‘과유불급’ 교훈 되새겨라  
날짜: 20170219  
기자: 류영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19130356001  
ID: 01100701.20170219130356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따지고 보면 물질만의 과잉이 아니다. 우리의 정신도 과잉시대를 맞고 있다. 이른바 정보의 홍수 속에 생각의 선은 끊어지고, 단편적이고 단절된 정보들만이 끓어 넘치고 있다. <br/> <br/>검증된 정보의 전달 장소인 교실은 어떠한가.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모든 학생은 정보의 궁핍 속에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선생님의 말씀을 경전이라 생각하며 잘 들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생들은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나, 십인십색(十人十色)의 공부에 천차만별(千差萬別)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하다. ‘거꾸로 교실’과 같은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교육은 특별한 대안 없이 ‘개혁’의 목소리만 무성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br/> <br/>SNS에 의한 과잉정보가 교실을 무기력하게 만들 듯이, 영양의 과잉공급에 의한 비만은 몸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전한다. 교육에서는 자신의 수준과 취향에 맞는 정보의 질 선택이, 건강에서는 자신의 건강에 좋은 영양 선택과 적정량 섭취가 문제가 된다.  <br/> <br/> 과유불급서양 중심의 산업혁명 이후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간은 ‘부족시대(不足時代)’에서 ‘과잉시대(過剩時代)’로 직행했다. 당연히 그 중간에 ‘적정시대(適正時代)’가 있어야 마땅하겠지만,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철학적 인식 부족으로 적정시대 없이, 부족시대에서 곧바로 과잉시대로 넘어갔다. 과잉시대가 낳은 결과로는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물과 공기의 오염 등을 들 수 있다. 인간의 과욕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크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미 많이 늦었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개발과 성장의 논리로 하나뿐인 ‘푸른 별(Blue planet)’의 숨통을 끊고 있다. <br/> <br/>다행히 동양인은 일찍이 자연과의 공생 가치를 깨닫고 자연의 일부로 살아왔다. 그러나 뒤늦게 서양 중심 세계관에 사로잡혀 서양을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br/> <br/>우리는 잊어버린 ‘적정시대’를 찾아야 한다. 이것이 지구와 인간의 공생길이다. ‘자본주의(資本主義)’는 말 그대로 오직 재물(資)을 근본(本)으로 삼기 때문에, 더 많은 생산을 통한 이익추구가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본주의를 버리고, 적절한(適) 것을 근본(本)으로 삼는 ‘적본주의(適本主義)’로 나아가야 한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알맞고 바른 선택, 곧 적정(適正)한 선택을 해야 한다. 부족도 좋지 않지만 과잉보다는 낫다. <br/> <br/>적정가격, 적정인구, 적정규모, 적정수준, 적정생산, 적정소비, 적정지출, 적정수면, 적정생활, 적정평가, 적정성장…. 이상에서 보듯이 적정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적(適)’에는 ‘맞다, 가다’의 두 가지 뜻이 있다. 이는 아무 데나 갈 것이 아니라 알맞은 곳으로 가라는 의미가 깔려 있다. <br/> <br/>우리는 앞으로 적정을 통한 행복 추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고,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위해 적정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축복이다. <br/> <br/>적본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 시급한 과제이다.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위해서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구환경을 위해서는 과잉시대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적정한 삶의 추구와 나눔의 미덕을 실천해야 한다. <br/> <br/>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도 맹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그리고 지구를 중심에 두고 신중하게 재검토해 봐야 한다. 만약 4차 산업혁명이 진정한 살길이라 믿는다면, 인류 역사에서 1, 2차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했던 우리가, 그나마 3차산업에서 앞서간 경험을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에서는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한다.  <br/> <br/> 동주공제최근 신라호텔에서 국내 기업과 러시아 기업 간의 워크숍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서예 퍼포먼스 ‘라이브 서예’를 펼쳤다. 주제 선정으로 고심을 했는데 처음에는 ‘무신불립(無信不立)’으로 정했다가 나중에 ‘동주공제(同舟共濟)’로 바꾸었다. ‘무신불립’은 ‘신의가 없으면 함께 설 수 없다’는 뜻으로 신의를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갓 친교를 시작하는 마당에 글의 의미가 너무 절박하게 다가온다. 그리하여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뜻에서 ‘동주공제’를 최종 테마로 결정했다.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자’는 뜻이다. 어떠한 질풍과 노도가 오더라도 힘을 모아 헤치고 나아가자는 뜻을 살리기 위해 온힘을 다해 노를 젓듯이 써 내려갔다. <br/> <br/>그런데 작금의 우리 정치와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동주공제가 아니라 ‘이주별제(異舟別濟)’가 아니던가. 무서운 생각이지만 서로 다른 배를 타고 따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한다. 물론 주말마다 거행되고 있는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집회가 특별한 충돌 없이, 뒤처리까지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걸 보면, 성숙된 국민의식에 안심이 되고 또 갈채까지 보내고 싶다. <br/> <br/>그리고 헌재 결정 뒤에도 서로간의 이해와 수용의 아름다운 자세를 전 세계에 보여야 한다. 우리는 위기에 더욱 강해지는 DNA를 가진 민족으로, 앞으로 글로벌 뉴리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위기관리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br/> <br/>지금 우리는 과잉시대 살고 있다. 잉여라면 그나마 여유 있어 보인다. 잉여가 지나치면 과잉이 된다. 과잉생산, 과잉공급, 과잉진료, 과잉근심 등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과잉시대 부산물로 쇼핑홀릭(shopping holic)과 스톡홀릭(stockholic)도 생겨났다. 과잉시대의 가르침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분수 이상의 ‘대박’만 좇으면 ‘쪽박’ 차게 된다. <br/> <br/>이번 주말에는 정리정돈을 통하여 불필요한 것은 떨쳐내고, 소중한 것은 꼭 두어야 할 자리에 두리라. 심플한 생활 속에, 기분 좋은 일에 열정을 쏟으리라. <br/> <br/>권상호 서예가

언론사: 세계일보-3-467.txt

제목: "김정남, 생모 보러 모스크바 자주 방문…효심깊은 청년"  
날짜: 20170218  
기자: 김민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18142359001  
ID: 01100701.20170218142359001  
카테고리: 국제>러시아  
본문: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김정남(46)이 20대 시절 생모 성혜림의 건강을 염려하며 러시아 모스크바를 오간 일화가 소개됐다. <br/> <br/>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이신욱 동아대 교수가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기고한 글을 인용해 “<span class='quot0'>이교수가 모스크바 유학 시절인 1999년 가을 김정남을 처음 만났다</span>”며 “<span class='quot0'>김정남이 당시 투병 중이던 생모 성혜림을 보러 종종 평양에서 모스크바에 들른다고 털어놨다</span>”고 전했다. <br/> <br/>방송에 따르면 이 교수는 김정남의 첫인상이 순박한 모습에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는 효심 깊은 청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북한식 흰 저고리와 검정치마 복장의 여성 경호원 7~8명의 호위 속에 산책하는 나이 든 여성(성혜림으로 추정)이 동네에서 가끔 눈에 띄었다</span>”며 “<span class='quot0'>김정남이 어머니가 의료기술이 부족한 북한 대신 모스크바로 와 요양치료 중이라고 말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이 교수는 이어 “<span class='quot0'>(김정남이) 폐쇄적인 평양과 달리 자유로운 모스크바의 분위기에도 끌렸던 것 같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그(김정남)가 가끔 모스크바를 다녀갈 때면 한인타운 내 한식당 방을 비밀리에 예약하곤 했다</span>”고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2001년 가을 다시 만난 김정남이 수심 가득한 얼굴로 길가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고는 생모(성혜림)의 병명이 암으로 곧 사망할 것이라고 털어놨다”면서 “어머니 건강 상태를 걱정하던 김정남의 모습은 비운의 황태자가 아닌 인간적인 한사람의 아들이었다”고 주장했다. <br/> <br/>성혜림이 2002년 5월 사망한 뒤 2015년 모스크바 한인타운 호텔식당에서 아내로 보이는 여성 및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던 김정남을 만났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당시 서로 눈인사를 나눈 게 마지막이었고 성혜림 묘지를 찾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김정은 위원장 대신 (김정남이) 북한의 통치자가 됐다면 한반도 위기와 핵 문제를 일으키는 독재자가 아닌 북한을 평화롭게 만드는 지도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마지막 소원은 성혜림이 있는 모스크바에 묻히는 것일지도 모른다</span>”고 강조했다. <br/> <br/>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68.txt

제목: 을지재단, 국내 최대 융복합시설·병원 착공  
날짜: 20170218  
기자: 송동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18030838001  
ID: 01100701.20170218030838001  
카테고리: 지역>경기  
본문: 경기도 의정부시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학과 병원이 합쳐진 국내 최대 규모의 융복합 의료시설이 들어선다. <br/> <br/>반환 공여지에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첫 사례로, 대학은 2020년 3월, 부속병원은 2021년 3월 각각 문을 연다. <br/> <br/>을지재단은 17일 의정부시 금오동 미군 반환기지인 캠프 에세이욘에서 을지대 의정부캠퍼스와 부속병원 기공식을 열었다. 캠퍼스와 부속병원 건립에는 총 6500억원이 투입된다. 미군 공여지 개발에 2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br/> 축사하는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박준영 을지재단 회장은 "<span class='quot0'>안보를 지키고자 미군 공여지로 사용됐던 이 땅이 건강을 지키는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을지대학 의정부캠퍼스와 부속병원에서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최고의 의료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span>"이라고 약속했다. <br/> <br/>부속병원은 2020년 10월 완공돼 이듬해 3월 문을 열 예정이다. 3만4577㎡에 지하 5층, 지상 15층, 전체면적 17만5521㎡ 규모로 경기북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1234병상을 갖춘다. <br/> <br/>병원 지하 2∼5층에는 120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지하 1층에는 응급센터와 중앙진료부 등이 각각 들어선다. 지상 1∼5층은 외래, 6∼12층은 입원 병동으로 각각 이용되며, 나머지는 교수 연구실 등으로 사용된다. 2개의 옥상정원도 조성된다. <br/> 17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미군 반환기지인 캠프 에세이욘에서 열린 을지대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기공식에서 참석한 내빈들이 시삽하고 있다.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계기로 감염 관리를 극대화하고자 국내 최초로 청결 지역에 수술실을 배치하는 '로젯 시스템'이 도입된다. <br/> <br/>이밖에 여성센터, 뇌신경센터, 근골격센터, 소화기센터, 내분비센터, 심혈관센터, 난임센터 등이 들어서며 암 치료를 위한 각종 첨단장비가 설치된다. <br/> <br/>별관에는 25ｍ짜리 5레인을 갖춘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등을 마련해 주민 편의·접근성을 높였다. <br/> <br/>캠퍼스와 기숙사는 병원보다 1년 앞서 2019년 11월 8만9660㎡에 각각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완공되며 역시 이듬해 3월 개교한다. <br/> <br/>캠퍼스에는 간호대학과 임상병리학과는 물론 일반대학원, 보건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등 3개 대학원이 들어서며 학생 정원은 702명이다. <br/> <br/>대학에서는 융복합형 노인간호 인력 등 100세 시대를 대비해 생애 전반 질병 관리를 위한 특성화 인재를 육성한다. <br/> <br/>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기공식에서 "<span class='quot1'>을지대학 의정부캠퍼스와 부속병원 건립에 관한 협약 이후 6년 4개월 만에 첫삽을 뜨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1'>대학과 병원을 유치하면 2조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보고돼 의정부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 <br/> <br/>의정부=송동근기자 sd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69.txt

제목: 대구 지하철 참사 14년 지났지만 생존자 고통은 여전  
날짜: 20170217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17153440001  
ID: 01100701.20170217153440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span class='quot0'>사고 나기 전으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span>” 김모(57·여)씨에게 지난 14년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김씨의 딸(33·사고 당시 19세)은 2003년 2월18일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의 생존자다. 끔찍한 사고에서 목숨을 건져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도 잠시, 트라우마로 시달리던 딸은 14년간 5번이나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사고 전만 해도 고등학교에서 각종 상을 휩쓸며 효녀 노릇을 하던 딸이었지만, 사고 후에는 정신과 약에 의존하며 살아가야했다. 딸을 치료하면서 남편과 사이가 틀어진 김씨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고, 지금은 파출부 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씨는 “딸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게 고통스럽다. 하루에도 몇번이나 죽고싶다는 생각이 든다”며 “보상도 필요 없으니 사고 전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토로했다.  <br/> <br/> 대구 중앙로역사에 마련된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추모의 벽. 추모일을 하루 앞둔 17일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지하철 참사는 14년 전인 2003년 2월18일 발생했다.사상 최악의 지하철 참사로 기록된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발생한지 14년이 지났다. 그러나 많은 생존자들은 후유증 등으로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17일 대구 지하철사고 부상자 대책위에 따르면 부상자 151명 중 6명이 암으로 숨졌다. 최근 들어 4명이 또 암 진단을 받으면서 생존자들 사이에서는 사고와 암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루 평균 5∼6명이 대책위를 방문해 암과 다이옥신(플라스틱 종류의 물질이 탈때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인과관례를 묻는 실정이다. <br/> <br/>대구시는 2013년 10월 부상자 중 희망하는 77명을 상대로 건강검진을 시행했으나 2차 검진은 예산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br/> <br/>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들의 트라우마는 더욱 크다. 생존자 중 1990년대 생은 6명, 1980년대 생은 40명이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대다수가 행여나 장애아를 낳을까봐 결혼을 기피해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span>”고 전했다. <br/> <br/>생존자 대부분은 화재연기 흡입으로 후두 음성 언어장애 4급을 받았고, 사고 후유증으로 협착된 후두에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 반년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을 방문한다. 이 과정에서만 적지 않은 치료비와 경비가 든다. <br/> <br/>대책위는 생존자 건강검진과 추가 보상(37억원)을 위해 대구시와 수년째 협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2·18 안전문화재단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합의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동우 부상자 대책위원장은 “<span class='quot2'>생존자들은 참사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구시는 십수년 동안 부상자를 위한 정책은 마련하지 않았다</span>”고 지적했다. <br/> <br/>대구 지하철 참사는 2003년 2월18일 오전 9시53분 대구 중구 중앙로역 구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192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다쳤다. 당시 지하철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휘발유를 담은 페트병에 불을 붙인 뒤 바닥에 던져 화재가 발생했다. <br/> <br/>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70.txt

제목: 합병증이 더 무서운 당뇨병 치료법은?  
날짜: 20170216  
기자: 이복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16203949001  
ID: 01100701.20170216203949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17일 오후 9시50분 방송되는 EBS1 ‘명의-당뇨, 수술로 완치할 수 있나?’에서는 국민 10%가 앓고 있는 당뇨병의 증상과 예방법, 치료에 대해 설명한다. <br/> <br/>당뇨병은 당장 드러나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위험성을 간과하고 지나가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방치할 경우에는 당뇨합병증이라는 후폭풍이 들이닥친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당뇨를 Slow Cancer(느린 암)라고 부르며 심각한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br/> <br/>당뇨 환자는 평생 혈당 조절을 해야 한다. 특히, 당뇨합병증 질환과 힘겨운 싸움을 하는 환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당뇨를 18년째 앓고 있는 송명희(47·여)씨는 당뇨합병증의 하나인 당뇨망막변증으로 수술을 받는다. 당뇨망막변증은 과혈당으로 망막이 망가져 시력감소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 외에도 당뇨합병증은 심근경색, 당뇨발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 <br/> <br/> <br/> 17일 방송되는 EBS1 ‘명의-당뇨, 수술로 완치할 수 있나?’에서는 당뇨병의 증상과 예방법, 치료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본다. <br/>EBS 제공어릴 때부터 과체중이었던 김민정(가명)씨는 당뇨 가족력까지 더해져 어린 나이에 당뇨가 시작됐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정신적으로 위축됐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음식 섭취는 비만 당뇨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런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 된 것은 ‘위우회술’이다. 위우회술은 위의 상부를 잘라내고 상부소장을 우회해 하부소장과 바로 연결하는 수술이다. 음식물이 하부소장으로 내려오면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의 영양분에 의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고 식욕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br/> <br/>혈당이 오르내림에 따라 당뇨 환자는 울고 웃는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종류가 다양하고 한번 발생하면 잘 치료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혈당 조절 등을 통해 당뇨병을 잘 관리해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br/> <br/>저혈당 쇼크는 당뇨병 환자의 45%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이다. ‘명의’에서 저혈당 대처법 ‘15의 법칙’을 제시한다. <br/> <br/>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71.txt

제목: 유아인 '골종양' 투병 충격, 무슨 병이지 궁금증 자아내...쇼트트랙 고 노진규 선수도 앓았던 병  
날짜: 20170215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15213213001  
ID: 01100701.20170215213213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사진=UAA 제공배우 유아인이 골종양 투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유아인 소속사 UAA 관계자는 15일 오후 "골종양이 맞다"며 "심각하다고 할 수 없고, 심각하지 않다고도 얘기할 수 없다. 민감한 개인 정보라 심각도에 대해 뭐라 얘기 드리기 곤란한다"고 밝혔다. <br/> <br/>골종양은 뼈에 생기는 종양을 비롯해 뼈와 연결된 연골과 관절에 생기는 종양을 일컫는 병으로 양성종양과 암인 악성종양 두 가지로 나뉜다. <br/> <br/>골종양의 종류는 종양이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뼈에서 발생하는 종양은 골종, 연골종은 뼈에 발생하는 종양이며, 뼈에 포함된 결합기에서 발생하는 종양은 섬유종이라고 한다. 또 혈관에 생기는 혈관종, 골수에서 발생하는 골수종도 있다. <br/> <br/>유아인은 골종양으로 인해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계속해 재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br/> <br/>한편 골종양이 암으로 발전할 경우 골육종이라는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골육종은 지난해 4월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고 노진규 선수가 투병했던 병으로 알려졌다.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72.txt

제목: [양향자의 The 건강한 음식] 몸속 유해물질 배출시키는 '혈관청소부'  
날짜: 20170215  
기자: 송은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15200205001  
ID: 01100701.20170215200205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향긋함이 매력적인 더덕. 더덕은 중국에서는 약으로 쓰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평소 식품으로 섭취하고 있다. 기력이 약해진 산모에게 도움이 되는 식재료로도 꼽힌다. <br/> <br/>더덕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아연, 엽산, 인, 철분 등을 함유하고 있다. 또 함께 들어있는 풍부한 비타민이 더덕의 효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더덕은 당질을 비롯하여 비타민 B1, B2, B6, C, E 등을 함유하고 있다. <br/> 더덕 김치 카나페 <br/>재료: 더덕 3뿌리, 김치 1/4포기, 돼지고기 150g, 쌈채소 약간, 참기름 1작은술, 후추 약간, 와인 1컵, 설탕 2큰술 <br/>만드는 법 <br/>① 더덕은 껍질을 까서 길이로 채 썰고, 쌈채소도 채 썰어 준비한다. <br/>② 김치는 잘게 썰어 참기름과 후추를 넣고 버무려 준다. <br/>③ 와인은 약한 불에 설탕 2큰술을 넣고 졸여 준다. <br/>④ 돼지고기는 한입 크기로 잘라 와인소스와 함께 구워 준다. <br/>⑤ 돼지고기 위에 김치를 올리고 채 썬 더덕, 채 썬 쌈채소와 함께 먹는다. <br/>더덕의 중심 효능이라고 할 수 있는 항암효과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 성분 때문이다. 사포닌은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며 체내에 들어가면 항산화 작용을 하고 기를 고르게 퍼지게 하여 면역력을 높여준다. 기침이나 가래를 예방해주기도 한다. 서구식 식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은 동물성 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자주 섭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인병이나 고혈압의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몸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고혈압과 성인병이 생기게 되는데 더덕에는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매우 좋다. <br/> 더덕 새우 삼색밀쌈 <br/>재료: 새우 8마리, 더덕 160g, 밀가루 100g, 소금 약간, 즙 낼 정도 분량의 시금치·백년초, 홍고추 1개 <br/>겨자 소스: 발효시킨 겨자 1큰술, 다진마늘 1작은술, 식초 2큰술, 마요네즈 2큰술, 설탕·소금 약간씩 <br/>만드는 법 <br/>① 삼색밀쌈은 시금치와 백년초를 각각 약간의 물과 함께 믹서에 곱게 갈아 색 물을 만들어 사용한다. <br/>② 달군 팬에 반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얇고 둥글게 펴고 뒤집으며 구워 전병을 만들어 둔다. <br/>③ 더덕은 돌려 가며 껍질을 벗긴 후 방망이로 두들겨서 잘게 찢어 놓는다. <br/>④ 새우는 꼬치를 이용하여 내장을 제거한 뒤 삶아서 꼬리 부분 한 마디만 남기고 껍질을 벗긴 후 등쪽에 칼집을 넣어 세워 준다. <br/>⑤ 홍고추는 동그랗게 잘라 링을 만들어 새우 꼬리에 끼워 장식한다. <br/>⑥ 구워진 밀쌈 위에 ④의 새우살과 ②의 더덕, 겨자 소스를 얹어 싸 먹는다. 기호에 따라 여러 가지 채소를 추가할 수 있다. <br/>더덕을 요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더덕의 어린 잎은 삶아서 나물로 만들어 먹거나 쌈으로 먹기도 한다. 뿌리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더덕인데 고추장장아찌, 생채, 자반, 구이, 누름적, 정과, 술, 튀김, 무침 등 여러 가지로 조리가 가능하다. <br/> <br/>국산 더덕은 가늘고 매끈하며 더덕 특유의 향기가 강하다. 반으로 쪼개보았을 때 하얀 즙액이 많이 나온다. 또한 머리부분이 1㎝ 이하로 짧고 가로로 난 주름이 1㎝당 2~3개이며 골이 얕은 것이 좋다. <br/> <br/>더덕을 보관할 때는 1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야채실에 넣어두면 비교적 오랫동안 마르지 않고 보관할 수가 있다. 더덕이 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br/> <br/>(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언론사: 세계일보-3-473.txt

제목: 유아인, 골종양 투병 확인…신체검사 재검 판정 이유  
날짜: 20170215  
기자: 추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15191936002  
ID: 01100701.2017021519193600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배우 유아인이 골종양 질환으로 병무청 신체검사를 계속 다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r/> <br/>유아인 소속사 UAA 관계자는 15일 한 인터넷 매체에  "유아인이 현재 투병 중인 병명은 골종양이 맞다"며 "심각하다고 할 수 없고 심각하지 않다고도 얘기할 수도 없다. 민감한 사생활이라 심각도에 대해 뭐라 얘기 드리기 곤란한다"고 밝혔다.  <br/> <br/>골종양은 뼈에 생기는 종양을 비롯해 뼈와 연결된 연골과 관절에 생기는 종양을 말한다. 양성종양과 암인 악성종양 두 가지가 있는데 골종양은 대부분 조골세포(造骨細胞)나 조직의 이상증식에 의해 생기는 양성종양이다. <br/> <br/>유아인은 이로 인해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계속해 재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br/> <br/>앞서 유아인 측은 지난달 15일 공식입장을 내고 "대구병무청에서 '3차 재검'을 받았지만 또 다시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며 "지금으로선 입대할 방법이 없다. 또 재검 날짜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br/> <br/>유아인은 2015년 여름 개봉한 영화 '베테랑' 촬영 중 어깨 부상을 당하기도 했으며 tvN 새 금토드라마 ‘시카고 타자기’ 주인공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74.txt

제목: [마이머니]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실속 통합형 보험’ 어때요?  
날짜: 20170215  
기자: 김라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15031433001  
ID: 01100701.20170215031433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이제 갓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은 각종 사고와 질병에 대비한 보험가입에 소홀할 수 있다. 적은 월급으로 보험료 내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 보험상품들이 흔히 ‘가족사랑’에 초점을 둬 미혼 비율이 높은 사회초년생들에게 매력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개인에 초점을 두고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질병과 생활 속 사고위험에 대비해 맞춤형 보장을 제공하는 ‘실속 통합형 상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종신보험은 부담스럽고 건강보험만의 혜택에는 부족함을 느끼는 사회초년생이라면 건강보험과 손해보험의 기능을 한 데 합친 통합형 보험상품을 눈여겨 볼 만하다. <br/> <br/>◆저렴한 보험료, 확대된 보장혜택 <br/> <br/>삼성화재 통합보험 ‘모두모아 건강하게’는 지나치기 쉬운 보장을 하나로 통합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사회초년생들에게 인기다. 이 보험은 사망, 장해, 실손의료비 등 건강보험 관련 보장과 함께 손해보험 고유의 영역인 운전자 비용, 화재위험, 배상책임까지 보장해 주는 통합보험으로 보험업계의 올인원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15년마다 보장 내역을 재점검해 바꿀 수 있어 고객 상황에 맞춘 유연한 재무설계가 가능하다. 또 사망·장해·진단비 등은 한 번 가입하면 100세까지 보장된다. 특히 가입 후 15년 동안은 보험료 인상 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 상품에는 상해 80% 이상의 후유장애나 질병 고도장애(1·2급)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br/> <br/>미래에셋생명의 ‘생활의 자신감’은 업계 최다 수준인 73개의 특약을 갖춰 ‘내가 원하는 보장’을 ‘내가 원하는 보험료’로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장점이다. 이 상품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3대 성인병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을 진단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장점이다. 불의의 사고에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매월 생활비 받는 플랜’, 워킹맘을 위한 여성 전용특약상품인 ‘워킹맘 파이팅 플랜’ 등 고객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특약들을 선택해 맞춤형 설계를 하면 된다. <br/> <br/>KB손해보험의 ‘KB The드림365건강보험’은 질환 정도에 따라 보장을 차등화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수술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보장 공백은 최소화한 점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대 2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20년 동안은 보험료 인상 없이 계약유지가 가능하며 20년 후에는 갱신을 통해 최대 110세까지도 보장이 가능하다. 100세 이상 보장받기 위해 기존 건강보험이 초기 보험료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면 이번 상품은 초기 납입 부담을 대폭 줄여 사회초년생들에게 ‘가성비’가 높은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br/> <br/>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br/> <br/>◆헬스케어 기능 강화, 간병인 지원 등 특별혜택 듬뿍 <br/> <br/>현대해상의 ‘퍼펙트클래스종합보험’은 위험 보장기능에 더해 헬스케어 혜택을 추가해 젊었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시작하려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제격이다. 또한 최근 의료 트렌드를 반영한 ‘메디케어서비스’를 제공해 병원 진료예약 대행부터 전문의료진 상담, 전담 간호사 방문, 건강검진 우대 혜택 등 토털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입시 선택한 10년 동안 사망보험금을 2배로 지급하는 ‘질병사망집중보장특약’이 신설돼 연령별 위험도와 경제활동기에 맞춰 원하는 시기에 보험금을 높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게다가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납입해 온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납입지원특약’까지 신설했다. <br/> <br/>메리츠화재의 ‘무배당 메리츠 케어프리보험M-Basket1701’은 사회초년생들 중에서도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솔로족’들에게 유리하다. 이 보험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족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질병이나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간병인을 지원,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다. <br/> <br/>이에 더해 주택 관련 재물보장을 비롯해 생활 전반적인 손실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 역시 이 보험의 특징이다. 의료사고법률비용과 과실치사상벌금 등 최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비용 담보와 더불어 주택화재, 도난, 화재배상, 벌금 및 6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까지 추가했다. <br/> <br/>김라윤 기자 ry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75.txt

제목: [마이머니 단신] 간편심사로 가입 ‘2대 질병보험’ 선보여 외  
날짜: 20170215  
기자: 김라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15031432003  
ID: 01100701.20170215031432003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간편심사로 가입 ‘2대 질병보험’ 선보여 <br/> <br/>AIA생명이 간편심사 상품인 ‘무배당 꼭 필요한 2대 질병보험(갱신형)’(사진)을 13일 출시했다. 주계약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으면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꼭 필요한 뇌출혈 특약’으로 뇌출혈 진단에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45∼75세가 가입 대상이고 10년 만기 갱신형이다. 최초계약 월 보험료는 45세 기준 남성은 1만 9200원, 여성은 1만500원이다. <br/> <br/> <br/>사망보험금 은퇴 후 생활자금으로 선지급 <br/> <br/>신한생명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장자산이 두 배로 증가하고 은퇴 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생활자금으로 주는 ‘신한착한생활비Plus종신보험’(사진)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 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사망보험금이 매년 가입금액의 10%씩 10년간 늘어난다. 가입 후 15년이 되면 사망보험금이 기존의 두 배가 되는 셈이다. 또한 45∼90세에 고객의 은퇴 시점에 맞춰 사망보험금의 10∼90%를 생활자금으로 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 저해지 환급형 상품으로 보험료가 일반 종신보험에 견줘 최대 25% 저렴하다. <br/> <br/> <br/>100세까지 보험료 변동 없이 3대 질병 보장 <br/> <br/>삼성생명이 100세까지 보험료 변동 없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주요 3대 질병을 보장하는 신상품 ‘건강생활보험’(사진)을 출시했다. 기존 건강보험 상품이 주로 갱신형 상품이었던 것과 달리 최대 보장기간인 100세까지 가입시 보험료가 그대로 적용되는 비갱신형이란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 무해지환급금형을 선택해 가입하면 일반형보다 20~25%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중도 해지를 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보험 2000만원,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1000만원 가입 기준으로 일반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각각 10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유방암, 자궁암은 300만~500만원, 전립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은 특약을 토해 60만~2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망에 대해서는 80세까지 보장한다. 가입연령은 15~59세, 보험료 납입기간은 20년·30년·80세 중 선택 가능하다. <br/> <br/>김라윤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3-476.txt

제목: [재테크 레슨] 여성질환 등 대비 건강보험부터 노후 위한 종신보험 미리 챙겨야  
날짜: 20170215  
기자: 김라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15031231001  
ID: 01100701.20170215031231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요즘은 40~50대 이상 여성도 20~30대만큼 왕성하게 활동한다. 그런데 엄마이자 아내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40대 후반부터 ‘중년의 홍역’이라 불리는 갱년기를 치르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생명을 위협하는 암 발병률 또한 크게 늘어난다. 국립암센터 암 통계자료에 따르면 여성은 신규 암환자가 40~50대에서 가장 많다고 한다. 한창 일하고 아이를 키울 나이에 엄마가 아프면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엄마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이다. 따라서 가족을 무탈하게 이끌기 위한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고 건강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br/> <br/>먼저 40대는 암과 고혈압을 비롯해 건강에 본격적으로 이상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다. 특히 최근 중장년 여성들의 암·중증질환 유병률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보험을 통해 경제적인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의 중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중대질병(CI)보험, 암에 특화된 암보험을 기본으로 각종 생활습관질병을 대비할 수 있는 건강보험까지 준비하면 금상첨화다. 또 경제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다면 뜻하지 않은 사망으로 남겨진 가족들의 생활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종신보험도 준비해 두길 추천한다. <br/> <br/>여성 질환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병이 병을 부른다’는 말이 있다. 한 번 병에 걸리면 생각지도 못한 큰 병으로 발전하기 쉽다. 그중에서도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등 여성질환이 걱정된다면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특약을 잘 따져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br/> <br/> <br/> 윤필경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노후에 배우자를 잃을 경우를 대비해 홀로 살아갈 준비도 해둬야 한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길고 병에 걸릴 확률도 높다. 이때 간병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는데 장기간병(LTC)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신보험 등을 활용하면 노후준비에 더해 간병대비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아직도 노후 준비를 시작하지 못했다면 연금보험으로 은퇴 후 생활자금 마련에 돌입해야 한다. <br/> <br/>여성에게 제2의 인생을 맞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40∼50대는 건강과 일은 물론 위험보장까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때다. 나를 위한 투자가 가족 행복의 기본조건임을 잊지 말자. <br/> <br/>윤필경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

언론사: 세계일보-3-477.txt

제목: 경남, '100억'으로 슬레이트 지붕 '3000동' 철거한다  
날짜: 20170215  
기자: 안원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15031227001  
ID: 01100701.20170215031227001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경남도는 사상 최대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발암물질인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3000여동을 철거한다. <br/> <br/>경남도는 14일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지난해(89억 원) 보다 12% 증액된 100억 원을 확보해 2970동을 철거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국고보조사업량의 29%를 차지한다. <br/> <br/>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내마모성, 단열성 등이 우수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초가지붕 개량용으로 집중 보급됐다. 하지만 WHO에서 석면이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된 물질)로 지정되면서 2009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br/> <br/>이에 따라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도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비 과다로 자발적 처리에 한계가 있어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r/> <br/>지원사업 신청방법은 거주지 시ㆍ군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면심사를 통해 사회취약계층 등을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장 확인과 슬레이트 면적 조사 철거 일정 등을 협의한 후 철거한다. <br/> <br/>지원범위는 주택 및 부지내 부속건물의 지붕, 벽체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대상으로 하고 가구당 3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br/> <br/>경남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16년까지 338억 원을 투입해 1만1533동을 철거했다. <br/> <br/>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78.txt

제목: 원로 스님들의 동안거 해제 법어  
날짜: 20170214  
기자: 정승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14211425001  
ID: 01100701.20170214211425001  
카테고리: 문화>종교  
본문: 수행자에게 해제는 마침표가 아닌 쉼표다. 좌복에 앉아 정진하는 동안거는 해제와 결제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겨우내 산문을 굳게 걸어 잠근 선원들이 지난 11일 일제히 문을 열었다. 때맞춰 낸 원로 스님들의 해제 법어는 세상에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결제 법어는 스님들에게 각오와 결의를 촉구했고, 해제 법어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는 경어라고 풀이할 수 있다. <br/> <br/>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의 해제 법어는 사부대중에게 큰 깨우침을 준다. 몇번이나 암 수술대에 올랐던 지선 스님은 세상의 못된 것을 보고만 있지 말라고 촉구했다. 스님은 암으로 생사의 문턱을 오락가락했다. “나에겐 다행인지 역경계가 많아 생사의 기로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틀에 박힌 세상은 이미 변하여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불교도들은 더 이상 묵인하고 방관하는 초월자로만 존재하면 안 된다. 이 세상의 모든 모순(업)들은 정면 극복하여 초월하는 것이 수행이자 신앙이며, 은둔·도피·방관은 초월이 아니다”고 경책했다. <br/> <br/> <br/>스님은 “<span class='quot0'>홀로 외떨어져 초월한 척하며 사는 불자가 되지 말자</span>”면서 “<span class='quot0'>네모난 방석 위에서 업장을 녹이고 생사윤회를 단절하는 대단한 결심도 관습적 타성에 젖어 있다면 바뀌도록 소통하여 보라</span>”고 당부했다. 스님은 “<span class='quot0'>우리는 자유 평등 평화 행복의 실현을 위해 애쓰는 수행자가 아닌가</span>”라고 했다. <br/> <br/>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은 “수행자가 삭발하고 염의를 입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묻고는 “삭발은 머리만을 깎는 것이 아니라 생사의 근본인 욕망을 끊는 것이다. 염의는 남이 쓰다버린 천 조각을 기워서 만든 옷인데, 비록 쓰다 버린 더러운 천으로 만든 옷을 걸쳤지만 결코 마음은 세파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br/> <br/>그러면서 스님은 “<span class='quot1'>번잡한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마음이 여여하다면, 비록 염의를 입지 않았어도 출가인과 다르지 않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진정한 수행과 출가는 겉모습에 있지 않고 올바른 통찰과 정신에 있다</span>”고 했다. 수행의 참뜻을 풀이한 말이다. 스님은 또한 “<span class='quot0'>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해제를 하셨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오늘 그 보리수에서 그 방석에서 떨치고 일어설 자신이 있다면 산문을 나서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결제에 들어가라</span>”고 깨우쳤다. <br/> <br/> <br/>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은 “선(禪)을 제대로 했다면 누가 봐도 탄복할 만한 자세가 나온다”면서 “나의 몸을 잘 닦았는지 궁금하다면 자신의 자세를 들여다보라. 자세와 걸음걸이만 봐도 수행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가름 난다”고 했다. 지유 스님은 “마음을 본디 깨닫고 터득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마음이라 여기고 찾아야 하는가”라면서 “마음이 멀리 있다면 찾기도 도달하기도 어렵지만 마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만일 이를 깨닫지 못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라”고 지적했다. <br/> <br/>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은 “오늘이 벌써 동안거 해제일이다. 진정한 해제라 하면 이 공부를 마쳐야 해제한다 할 것”이라면서 “이 공부를 마치지 못했으면 해제했다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허송세월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span class='quot0'>해제와 결제를 구분하지 말고 평소에 정진을 애써 한다면 득력하고 공부를 성취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했다. <br/> <br/>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선(禪)은 깨달음의 역사다. 깨달음 역사는 참교육의 역사요 참교육의 역사라는 것은 참생명의 등불을 전해주는 전등의 역사”라면서 “전등의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스님은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보광삼매(普光三昧)에 드시어 문자와 언어가 아닌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마하가섭에게 부촉하셨다”면서 “그것은 무아요 자타일여의 세계다. 우주와 자아가 혼연일체가 된 경지며, 자유자재의 세계요 안심입명”이라고 풀이했다. <br/> <br/>올겨울 동안거는 전국 96개 선원(총림 8곳, 비구선원 56곳, 비구니선원 32곳)에서 총 2063명(총림 283명, 비구 스님 1093명, 비구니 스님 687명)의 스님이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br/> <br/>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79.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참가자 父 사망 알고도…"위독하다" 속여 시청률 높이려 한 방송사  
날짜: 20170214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14150742001  
ID: 01100701.20170214150742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여성 참가자의 아버지가 숨진 것을 알고도 위독한 상황에 놓였다고 속인 채 프로그램을 연출한 터키 방송사에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청률을 높이려고 거짓 방송을 한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목소리도 크다. <br/> <br/>지난 13일(현지시간) CNN투르크와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터키의 미팅 방송 프로그램인 ‘Kismetse Olur’에 참가 중인 머브 코반치는 최근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편지를 제작진에게 건네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암 투병 중이었다. <br/> <br/>이 방송은 이스탄불의 한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됐는데, 급히 떠나는 머브의 뒷모습이 고스란히 전파를 타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카메라 속 다른 여성 참가자들도 예상치 못한 소식에 할 말을 잃었다. <br/> <br/>  터키의 미팅 방송 프로그램 ‘Kismetse Olur’에 참가 중인 머브 코반치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편지를 제작진에게 건네받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제작진은 촬영 당시 이미 머브의 아버지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거짓 방송 논란을 일으켰다. 영국 데일리메일 캡처 <br/> <br/>머브가 스튜디오를 떠난 뒤 남아있던 참가자들은 제작진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에는 이미 머브의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불과 몇 분 사이 도착한 편지 두 통에 참가자들은 입을 떼지 못했다. <br/> <br/>이에 방송사는 시청률을 높이려는 소재로 참가자 아버지의 사망을 이용했다는 비난을 한몸에 받았다. 인간의 죽음을 시청률을 자극적하는 요소로 남용했다는 네티즌들의 지적도 쇄도했다. <br/> <br/>  터키의 미팅 방송 프로그램 ‘Kismetse Olur’에 참가 중인 여성들이 동료인 머브 코반치의 아버지가 숨졌다는 제작진의 편지를 받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방송에서 머브는 몇 분 전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편지를 제작진에게 건네받고 스튜디오를 부랴부랴 떠났었다. 제작진은 머브의 아버지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거짓 연출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 캡처. <br/> <br/>한 누리꾼은 “시청률에 혈안이 된 프로그램을 보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br/> <br/>다른 이도 “방송윤리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누군가 죽은 게 그렇게 좋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br/> <br/>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는 네티즌도 적지 않았다. <br/> <br/>데일리메일은 “<span class='quot0'>방송사의 행태와 관련한 머브 측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는 슬픔에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것</span>”이라고 안타까워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80.txt

제목: '듀스' 김성재 사후 22년…시간 멈춘 어머니와 동생  
날짜: 20170213  
기자: 정은나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13202835001  
ID: 01100701.20170213202835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22년 전 가수 김성재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그 어머니와 동생은 시간이 멈췄다고 토로했다.  <br/> <br/>14일 오후 10시45분 방송하는 EBS '리얼극장 행복'에서는 김성재의 죽음 후 고통을 안고 살아온 어머니 육영애(72·윗사진 왼쪽)씨와 동생 성욱(44)씨가 슬픔을 털어내고자 단둘만의 여행을 떠난다.  <br/> <br/>1995년 11월20일 인기 절정의 힙합 듀오 '듀스'의 김성재(23)는 변사체로 발견됐다. 고 김성재는 성공리 마친 솔로 복귀 무대를 자축하던 자리에서 주삿바늘 자국 28개를 남긴 채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부검 결과 사인은 졸레틸이라는 동물 마취제로, 당시 언론은 그의 죽음을 두고 자살과 마약 등의 자극적인 추측을 연일 보도했다.  <br/> <br/>언제나 가족이 우선이었던 살가운 아들이었기에 잇단 억측은 어머니 육씨를 무너뜨렸다. 컴백 성공 축하 파티를 일찍 마치고 새벽에 돌아오겠다던 성재와 통화가 이승에서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 떠들썩했던 김성재의 죽음은 의문사로 결론 났고, 그날 늦게까지 오지 않던 아들을 만나러 숙소로 달려 갔어야 했다는 후회와 자책으로 어머니의 시간은 95년 11월에 멈췄다.  <br/> <br/>김성재의 동생이자 둘째 아들 성욱씨의 인생도 엉망이 되어버렸다. 우애가 각별했던 성욱씨는 아버지 같은 존재이자 친구이며 든든한 형이었던 김성재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사건 당시 군 복무 중이라 형의 죽음 이후 상황을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형의 몫까지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은 그를 괴롭혔다.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이에게 "우리 형 욕했지"라며 시비를 거는 등 방황이 시작됐다.  <br/> <br/>성욱씨는 형의 못다 한 꿈을 이루기 위해 가수로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한 배우 경력은 화재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으면서 중단해야 했다. 계속된 실패에 성욱씨는 거칠어졌다. 성욱씨는 "형 대신 내가 죽었어야 했어", "또 형 생각나지" 등 자신의 아픔을 모진 말로 어머니에게 표출했다. 그렇게  6년 가까이 어머니는 '지옥'을 견뎌야 했다.  <br/> <br/>성욱씨는 결혼하고 딸을 낳으면서 안정을 찾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아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손녀를 돌보기 위해 성욱씨 집에서 함께 살지만, 성욱씨가 예전처럼 '폭발'할까 봐 두렵다.  <br/> <br/>성욱씨는 여전히 형을 품고 살아가는 어머니, 나아가 자신의 눈치를 보며 노심초사하는 그 모습에 답답하기만 하다. 또 스스로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어머니가 예전의 자신처럼 대하는 모습에 화를 낸다. 자신보다 죽은 형을 그리워하는 어머니 앞에서 절망하기도 한다.  <br/> <br/>1주일간 필리핀 여정에서 모자가 22년간 꾹꾹 누르고 참아온 아픔을 씻어낼 수 있을지는 방송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br/> <br/>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br/>사진=EBS

언론사: 세계일보-3-481.txt

제목: ‘듀스’ 김성재 죽음 후 망가진 가족들 삶  
날짜: 20170213  
기자: 이복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13195012001  
ID: 01100701.20170213195012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EBS1은 14일 오후 10시45분 ‘리얼극장 행복’을 통해 듀스 김성재가 세상을 떠난지 22년이 지난 현재 어머니 육영애(72)씨와 동생 김성욱(44)씨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br/> <br/>1995년 11월 20일, 인기 절정의 힙합 듀오 ‘듀스’의 김성재(당시 23)가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언론은 그의 죽음을 두고 자살, 마약 등의 자극적인 추측을 연일 보도했다. 결국 김성재의 죽음은 의문사로 결론이 났고, 어머니의 시간은 1995년 11월에 멈춰 있다. 김성재의 죽음 이후 남겨진 어머니 육씨와 동생 김씨의 인생은 엉망이 되어버렸다.  <br/> <br/> 14일 방송되는 EBS1 ‘리얼극장 행복’에서는 ‘듀스’의 김성재 죽음 이후 그의 어머니 육영애씨와 동생 김성욱씨가 견뎌야 했던 세월을 전한다. <br/>EBS 제공어머니는 강한 엄마가 되기 위해 아픔을 깊숙이 누르며 살아왔다. 그러나 둘째아들의 방황은 끝날 줄 몰랐다. 형의 못다 한 꿈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가수활동은 실패하고,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한 뮤지컬 배우활동도 화재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어 중단해야 했다. 계속된 실패로 아들은 거칠어졌다. 다행히 김씨는 결혼을 하고 딸을 낳으며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아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며느리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어머니는 손녀를 돌보기 위해 김씨의 집으로 왔지만, 김씨가 예전처럼 폭발할까 두렵고 답답하다. <br/> <br/>김씨는 아버지이자 친구이며 든든한 형이었던 김성재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절망으로 시작된 방황은 사건·사고를 불렀다. 그의 방황을 잡아준 이는 아내와 딸이었지만 아내는 폐암 말기를 선고받았고 세상을 떠났다. 너무나 소중했던 형과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은 말할 수 없지만 일곱 살 딸을 보며 버티고 있다. 그러나 아들을 돕기 위해 함께 살게 된 어머니와 자꾸 부딪친다. <br/> <br/>김성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남겨진 가족에게 말 못할 고통이었다. 이제는 슬픔을 털어내고 행복해지기 위해 모자는 둘만의 여행을 떠났다. 일주일간의 필리핀 여정은 남겨진 모자가 꾹꾹 누르고 참아온 22년간의 아픔을 씻겨줄 수 있을까? <br/> <br/>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82.txt

제목: 아델, '2017그래미상' 시상식서 '올해의 노래' 수상 등 5관왕  
날짜: 20170213  
기자: 추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13131332001  
ID: 01100701.20170213131332001  
카테고리: 문화>음악  
본문: 영국 출신 팝스타 아델(사진)이 올해 그래미상 5관왕을, 영국의 록스타 고(故) 데이비드 보위의 유작이 그래미상 5관왕을 각각 차지했다. <br/> <br/>아델은 12일 밤(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 제59회 그래미 어워드 시상식에 앞서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된 수상자 명단에서 메가히트곡 ‘헬로(Hello)’로 베스트 팝 솔로 퍼포먼스상과 ‘헬로’가 수록된 ‘25’ 음반으로 베스트 팝 보컬 앨범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br/> <br/>아델은 이날 압도적인 보컬의 ‘헬로’로 시상식의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다. 아델은 이 노래로 그래미 주요상인 ‘올해의 노래’ 상 수상을 비롯해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 상 등을 탔다. <br/> <br/>지난해 1월 세상을 떠난 고(故) 데이비드 보위는 이날 시상식에서 유작 앨범의 ‘블랙스타’로 ’베스트 록 송’의 영예를 안았다.  <br/> <br/>앞서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된 수상자 명단에서도 이 앨범은 ‘베스트 록 퍼포먼스’와 ‘베스트 얼터너티브 뮤직 앨범’, ‘베스트 레코딩 패키지’, ‘베스트 엔지니어드 앨범, 논-클래시컬’ 등 4개 부문을 차지해 총 5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br/> <br/>보위는 1970년대 ‘글램 록’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창시자로 명성을 떨쳤으며 20세기 가장 성공적인 예술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br/> <br/>자신의 69번째 생일인 지난해 1월 8일에 맞춰 47번째 앨범인 ‘블랙스타’를 발표했지만 18개월에 걸친 암 투병 끝에 이틀 뒤 사망했다. <br/> <br/>모든 신인 가수가 꿈꾸는 ‘베스트 신인 아티스트’는 챈스 더 래퍼에게 돌아갔다. 트로피를 받은 챈스 더 래퍼는 가족과 지인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뜻을 밝혔다. <br/> <br/>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83.txt

제목: 제23차 국제과학통일회의 열려  
날짜: 20170210  
기자: 권정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10065926002  
ID: 01100701.20170210065926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제23차 국제과학통일회의(이하 ICUS)가 ‘지구환경의 위기와 과학의 역할’을 주제로 지난 4~5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됐다. <br/> <br/>ICUS는 1972년 공동창설자인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뜻에 따라 절대가치를 중심으로 한 책임 있는 삶과 건강한 세계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제 과학간의 협력과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창립됐다. <br/> <br/>이번 ICUS에는 에이즈 유발균인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를 발견해 2008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룩 몽타니에 박사와 청색 LED 제품화에 기여한 공로로 2014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나카무라 슈지 박사를 비롯해 미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이집트, 독일, 헝가리, 일본, 한국 등 10개국에서 70여명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참석했다. <br/> <br/>창설자 한학자 총재는 “<span class='quot0'>국제과학통일회의를 재개한 것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을 막기 위함이다</span>”며 “<span class='quot0'>74억 인류가 함께 자유, 통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 ‘하나님의 꿈 실현’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과학자 여러분들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 <br/>학술발표에선 스페인 네브리자 대학 분쟁연구센터장 마틴 라미레스 교수가 ‘과학의 한계와 통일적 가치의 혜택’을 주제로, 노벨의학상 수상자 룩 몽타니에 박사는 ‘과학통일과 우리 세기의 사회와 환경적 도전의 만남’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br/> 제23차 국제과학통일회의 전경.마틴 라미레스 교수는 “<span class='quot1'>과학은 한계선이 있으며 현실성·실질성 보다 수용하는 주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가가 큰 영향을 미친다</span>”며 “<span class='quot1'>과거 ICUS의 연구처럼 공통점을 찾기 위한 각 분야 간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류를 위해 조화된 이해를 찾아나가야 한다</span>”고 발표했다. <br/> <br/>룩 몽타니에 박사는 “<span class='quot2'>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인류의 수명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지만, 기후환경변화로 인류는 질병과 전염병 문제에 직면해있다</span>”며 “<span class='quot2'>DNA연구를 통해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를 찾아 제거하는 예방 의학 기술을 개발해 자폐아동들의 치료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암·알츠하이머·파킨슨병을 치료하는데 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또 “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것을 위해 세계 지도자 및 정부 관료들이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 <br/>한편, 제1회 ICUS는 1972년 11월23일부터 4일간 미국 뉴욕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서 8개국 50여명의 저명한 학자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과학의 도덕적 방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br/> <br/>당시 미래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와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박사는 “<span class='quot3'>현대문명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들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이러한 시도에 전폭적인 이해와 성원을 보낸다</span>”는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r/> <br/>ICUS의 이 같은 ‘종교와 과학, 사상의 통일’을 위한 절대가치가 지속적으로 논의 돼 전 세계 과학자들의 학문적 창조성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r/> <br/>김현태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3-484.txt

제목: 힘 없는 루저들의 짜릿한 반격…'조작된 도시'  
날짜: 20170209  
기자: 김신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09211056001  
ID: 01100701.20170209211056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실내등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되면 관객들은 순식간에 화면 속으로 빨려들어가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전투의 영웅들로 변신해 무수한 적들을 섬멸해나간다. 360도 회전하면서 총격을 가하든, 하강 레펠하면서 쏘든 적들은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간다. <br/> <br/>PC방 모니터 속 게임 장면을 넓은 스크린 가득 펼쳐 놓는다. 게임 공간을 누비는 주인공의 상상 액션이다. 전투기와 미사일, 시시각각 터지는 폭탄과 와이어 액션까지 기존 한국 영화에서 만나지 못한 창의적 비주얼과 멀티 스케일 오프닝으로 단번에 객석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br/> <br/> 800만 관객을 불러들인 ‘웰컴 투 동막골’의 박광현 감독이 12년 만에 신작 ‘조작된 도시’를 내놓았다. 여전히 신선하면서도 대중적인 감성은 그의 필살기다. <br/> <br/>‘웰컴 투 동막골’에서 국군도 인민군도 미군도 결국 한편이 되고 마는, 전쟁과 이데올로기조차 무너뜨리지 못한 ‘사람들의 본디 따스한 심성’을 보여주었던 박 감독은 이번에도 재치 있는 상상력과 이미지로 소통하며 ‘비주얼 텔링’의 장기를 살려낸다. ‘동막골’ 공습의 폭발 장면을 튀겨져 터지는 ‘팝콘’으로 처리했던 그의 센스가 ‘조작된 도시’에서는 암흑 속 격투에 사용되는 ‘쌀알’로 발현된다. <br/> 박광현 감독의 새 영화 ‘조작된 도시’가 지닌 매력은 세상 모든 일이 조직적으로 조작된다는 신선한 발상과 스토리, 그리고 사회에서 낙오된 젊은이들이 거대 음모를 파헤치며 벌이는 통쾌한 반격의 카타르시스에 있다. <br/>퍼스트룩 제공 <br/>영화는 독특한 발상과 색다른 감각, 경쾌한 유머를 담아낸 새로운 스타일의 범죄액션으로 시종일관 차별화된 쾌감과 끊임없는 볼거리를 안겨준다. <br/> <br/>게임 속에서는 완벽한 리더지만 현실에서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백수 권유(지창욱). PC방 옆자리에 휴대전화를 놓고 나왔으니 가져다주면 사례하겠다는 낯선 여자의 전화를 받고 찾아갔다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여자를 잔혹하게 죽인 살인범으로 몰리게 된다. 모든 증거는 짜 맞춘 듯 권유를 범인이라 가리키고, 아무도 그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는 가운데, 권유의 게임 멤버이자 초보 해커인 여울(심은경)은 이 모든 일이 단 3분 16초 동안,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조작되었음을 알아낸다. 특수효과 전문 데몰리션(안재홍)을 비롯해 게임 멤버들이 속속 모여들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건의 실체를 추적해 나간다. 조작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짜릿한 반격을 시작한다. <br/> <br/> <br/>권력과 시스템을 활용해 누군가 세상을 마음껏 조작한다는 설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없는 약자들이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끔찍한 상상을 불러일으켜 몰입을 유도한다. 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회의 낙오자들이 자신만의 숨겨진 재능과 장기를 발휘해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며 거대 권력에 맞서나가는 과정은 반격의 쾌감과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br/> <br/>그러면서도 영화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희생당하거나 복수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세상 끝에 버려졌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작은 힘을 모아서 상황을 멋지게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br/> <br/> 신종 액션들을 지켜보는 재미도 놓칠 수 없다. 권유가 교도소 안 마덕수(김상호) 일행에 맞서 쏘는 종이 화살은 권유의 첫 반격이자 게임으로 다져진 능력을 현실에서 발휘하는 각성의 순간이다. 실제 종이나 헝겊을 말아 화살로 사용한 해외 교도소 사례에 영화적 아이디어를 가미해 완성한 장면이다. <br/> <br/>권유가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징벌방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청각으로 암흑 속에서 쌀알을 던져 거리를 재가며 벌이는 격투 장면도 인상적이다. 청각의 질감을 영상으로 시각화해낸 독창적인 신이다. <br/> <br/> <br/>권유와 게임 멤버들이 폐차 직전의 경차에 외제차 엔진을 붙여 개조한 ‘슈퍼카’는 보잘것없지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맞서는 주인공들의 모습과 닮았다. 경차 한 대가 레커차와 대형 화물차를 포함한 수많은 차량들을 놀리듯 따돌리며 도로 위를 질주한다. 톰과 제리다. 쫓고 쫓기는 가운데 악당을 골탕 먹이거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의 에피소드를 담고, 심각한 순간에도 유쾌한 요소를 넣어 즐거움을 배가한다. 다이내믹한 카체이싱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 8차선 도로에서 드론 촬영은 물론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한 장비 ‘러시안 암’까지 동원해 찍었다. <br/> <br/>재개발 지역 한가운데 숨겨진 여울의 아지트는 외부와 단절된 은둔형 해커의 캐릭터를 제대로 반영한 공간이다. 하지만 권유 일행이 모여들면서 아지트는 점차 따뜻하고 가족적인 공간으로 변화한다. 평소 식탁으로 쓰지만 식탁보를 치우면 나타나는 크고 작은 모니터들로 이루어진 ‘정보의 밥상’이 발견의 재미를 보탠다. <br/> <br/>조작자(오정세)의 큐브는 비밀리에 만들어진 최첨단의 공간이자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일종의 거대한 패닉룸이다. 낡고 지저분한 사무실 뒤에 숨겨진 정방형의 공간은 ‘조작된 도시’ 특유의 만화적 상상력에 방점을 찍는다. <br/> <br/>김신성 기자 sskim65@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85.txt

제목: 이용대 변수미 결혼, 네티즌…“지나가는 열애설인줄 알았는데 멋지다”  
날짜: 20170209  
기자: 이규화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09080817001  
ID: 01100701.20170209080817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변수미 인스타그램 <br/>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와 배우 변수미가 결혼한다. <br/> <br/> 9일 한 매체는 이용대와 변수미의 결혼 소식을 전했다. <br/> <br/> 이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6년 열애 끝에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 것. 특히 두 사람은 올 봄 부모가 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br/> <br/> 앞서 이용대와 변수미는 2011년 한 행사에서 만난 후 연인으로 발전했다. <br/> <br/>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TV\*\*\*\*) 헉 이용대 씨 결혼! 그때 그분이랑? 맞죠? 축하해요” “(약팔이\*\*\*\*) 갓용대 ㄷㄷㄷ 배드민턴 또 암흑기 시작이네” “(pukr\*\*\*\*) 결국 애 생겨서 결혼발표는 어쩔 수 없는 사실” “(gowj\*\*\*\*) 지나가는 열애설인줄 알았는데 이용대 멋지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 이슈팀 ent@segye.com <br/> <br/>  

언론사: 세계일보-3-486.txt

제목: 살모넬라로 암 죽이는 박테리아 개발  
날짜: 20170209  
기자: 김수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09040314001  
ID: 01100701.2017020904031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살모넬라와 비브리오균으로 암 치료율을 높이는 신개념 면역치료법이 개발됐다. <br/> <br/>미래창조과학부는 전남대학교 민정준(사진) 교수와 이준행 교수 연구팀이 살모넬라와 비브리오균을 유전공학적으로 융합한 암 치료용 박테리아로 암 치료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면역치료법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br/> <br/>살모넬라균은 암조직에 강한 친화성을 갖고 있어 정상조직보다 암조직에서 10만배 정도 더 많이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강력한 항암면역보조물질인 비브리오균의 플라젤린(flagellin) B를 생산하는 살모넬라균을 유전공학적으로 제작했다. 무독성 살모넬라가 암에서 증식하는 동안 면역세포의 대량 침윤이 일어났고, 이어 생산된 플라젤린 B는 침윤된 면역세포가 암세포에 대해 강한 독성을 나타내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암을 표적한 살모넬라는 암으로 군대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FlaB는 이 군대에 발포명령을 내리는 식이다. <br/> <br/>다양한 종류의 암이 이식된 생쥐모델에 실험한 결과 이 박테리아는 강력한 항암 면역작용을 일으켜 원발성 대장암 또는 전이성 대장암을 갖는 생쥐 모델에서 매우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였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미래부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지원으로 수행했으며, 논문은 9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중개의학(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에 게재되고, 온라인 커버스토리로 채택됐다. <br/> <br/>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87.txt

제목: “온난화 재앙, 이제는 현실… 예방 넘어 적응력 고민해야”  
날짜: 20170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09032152002  
ID: 01100701.20170209032152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지구는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인류가 당장 오늘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멈춘다 하더라도 앞으로 100년 동안 지구 온도는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달라진 기후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할 때입니다.” <br/> <br/>45년 전 미국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의 젊은 과학자들이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를 내놨다. 컴퓨터 모델링 기법을 이용해 지구촌에 닥친 위기를 경고한 최초의 시도였다. 이 연구는 당시 MIT 교수였던 데니스 메도스 박사가 이끌었다. <br/> <br/> 4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데니스 메도스 미 뉴햄프셔대 교수가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환경 위기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남제현 기자제23차 국제과학통일회의(ICUS) 참석차 방한한 메도스 박사를 4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만났다. 세계적 석학인 그의 한국 언론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성장의 한계를 내놓을 당시 서른 즈음의 혈기왕성한 신진 학자였던 그는 백발이 성성한 원로가 됐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더욱 또렷해졌다. <br/> <br/>메도스 박사는 “<span class='quot0'>곳곳에서 성장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현 세대의 노력과 상관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span>”고 말했다.  <br/> <br/>지난해 세계기상기구(WMO) 발표에 따르면 전 지구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는 400ppm으로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화 전(278ppm)과 비교해 40%나 늘어났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0'>온실가스는 한번 공기 중으로 배출되면 종류에 따라 최대 150년까지 대기에 머문다</span>”며 “<span class='quot0'>지금까지 대기에 쌓인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로 온난화가 시작됐고,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준을 넘어섰다</span>”고 일갈했다. 지구 기온이 상승하며 북극 빙하가 녹았고, 그런 탓에 태양열 흡수가 늘어 지구 기온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br/> <br/>그러면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구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br/> <br/>“몇 년 전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고열과 두통, 소화불량 증세가 나타나 그때마다 증세를 치료하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근본적인 문제는 암이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위기는 하나의 증세입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통제되지 않는 성장인 것이지요.” <br/> <br/>그는 “<span class='quot0'>끊임없이 더 생산하고 소유해야만 한다는 전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성장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span>”고 지적했다. 하지만 덜 쓰고, 덜 만드는 삶이 물질적 풍요에 익숙한 현대인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 <br/> <br/>메도스 박사는 “50년, 100년 전에는 아이폰도 없었고, 나이키 운동화도 없었다. 우리가 이런 걸 갖게 됐다고 해서 과연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사람의 소유욕이 과연 인간의 본성인지, 산업사회가 부추긴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0'>현 세대에게 시급한 문제는 기후변화, 자원고갈, 인구감소 등의 문제에 적응력을 기르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예방 시기를 놓쳤다면 적응을 고민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올해는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 원년이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0'>대부분의 사회는 어떤 시점에 오면 인구 감소를 겪기 마련</span>”이라고 전제한 뒤 “<span class='quot0'>지금까지 우리는 ‘다수의 젊은이와 소수의 고령자’를 기본으로 사회체계를 만들어왔지만, 이제 이런 틀을 바꿔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성장의 한계’가 나오기 전에도 인류의 위기를 경고한 책은 많았다. 식량 증가량이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맬서스의 ‘인구론’이 대표적이다. <br/> <br/>그러나 성장의 한계는 처음으로 ‘월드 3’라는 컴퓨터 모델로 다양한 가정에 따른 미래 시나리오를 내놓음으로써 지구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성장이 절대명제인 경제학자와 기업가들은 불편해졌다. 과학의 탈을 쓴 ‘종말론’이라는 비아냥이 이어졌다.  <br/> <br/>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과 덴마크 등에서 최신 모델과 자료를 활용한 실험에서도 45년 전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서 성장의 한계는 재조명받고 있다. <br/> <br/>특히 2009년 호주연방과학원(CSIRO)은 성장의 한계가 예측했던 인구·환경·경제 분야의 각종 지표와 실제 데이터를 대조해봤는데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br/> <br/>성장의 한계는 1992년과 2004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최신 결과를 반영해 네 번째 판을 낼 계획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단호하게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br/> <br/>“성장의 한계를 발표한 목적은 예상가능한 위기와 인류의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04년까지 이런 노력은 통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책을 쓸 이유가 없죠.” <br/> <br/>메도스 박사는 계속 경고음을 울리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찾을 때라고 했다. <br/> <br/>그 출발은 용어를 바로잡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br/> <br/>테크놀로지를 ‘하드 테크놀로지’와 ‘소프트 테크놀로지’로 나눠 과학기술 같은 물리적인 부문뿐 아니라 소비 문화, 사고의 전환 같은 정신적인 것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r/> <br/>마지막으로 ‘지구적인 문제’와 ‘보편적인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br/> <br/>“환경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지구적인 문제라면 대기오염은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둘은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예를 들어 서울 시민이 운전을 덜 한다고 지구촌의 기후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공기 질은 훨씬 좋아지겠죠.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글로벌한 것인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br/> <br/>메도스 박사는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궁금했다. 그는 화석연료 대신 미국 보스턴 집 주변에 있는 나무를 직접 캐와 난방을 한다고 했다. <br/> <br/>“태양열도 쓰고 있고, 마을에 텃밭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유기농 채소를 재배합니다. 채식주의자이고, 훌륭한 환경 기사를 쓴 언론사에는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김치를 좋아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br/> <br/>메도스 박사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span class='quot0'>안타깝게도 지구는 인간의 착취를 버티기 어려운 수준에 왔지만, 지구의 미래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갈 후대를 생각하면 작은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span>”고 거듭 강조했다. <br/> <br/>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88.txt

제목: “자연·도시 조화 입지 기반 ‘의료관광 1번지’로 도약”  
날짜: 20170209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09031744003  
ID: 01100701.20170209031744003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span class='quot0'>기장군에는 기장향교, 기장읍성, 남산봉수대, 장관청 등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재들이 있어 뛰어난 관광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span>” <br/> <br/>오규석(59·사진) 기장군수는 “<span class='quot1'>전국 최고 수질의 동해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미역다시마축제, 멸치축제, 철마한우불고기축제, 갯마을축제, 붕장어축제 등 다양한 먹거리 축제가 연중 개최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오 군수는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형성된 정관신도시와 정관첨단산업단지, 철마의 청정지역, 동부산관광단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이 있는 기장군은 앞으로 부산의 대표적 관광 및 의료관광의 명소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r/> <br/>국내 유일의 ‘야구 명예의 전당’도 기장에 건립 중이다. 이에 대해 오 군수는 “<span class='quot2'>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14년 한국 야구 100년, 프로야구 30년 기념사업으로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을 공모했을 때 기장군이 명예의 전당과 함께 야구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해 기적적으로 유치하게 됐다</span>”고 설명했다. <br/> <br/>명예의 전당은 일광면 동백리에 지상 3층, 연면적 3000여㎡ 규모로 건립되는데 다목적홀, 해외자료실, 영상관, 아마관, 프로관, 야구강의실, 명예의 전당과 대회의실 등이 들어선다. 현재 부산시가 설계공모 중이며, 내년 초 착공해 2019년 3월 개관된다. <br/> <br/>기장 의료관광의 핵심사업이 될 꿈의 암환자치료기인 중입자가속기 도입도 국책사업으로 결정됐는데 국비 지원이 제때 안 돼 설치가 늦춰지고 있다. <br/> <br/>오 군수는 “<span class='quot2'>이 때문에 해외 암환자를 대거 유치해 기장군을 의료관광허브 도시로 도약시키려던 의료관광사업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해당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사태를 해결, 빠른 시일 내에 중입자가속기 치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미래부 측에 강력하게 요청했다</span>”고 말했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3-489.txt

제목: 충남, 석탄화력 인근 어린이 건강 조사 나선다  
날짜: 20170208  
기자: 김정모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08233241002  
ID: 01100701.20170208233241002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어린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 대기오염 실태와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br/> <br/>충남도는 8일 도청에서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안(2017∼2020)’을 심의·확정했다. <br/> <br/>환경보건종합계획은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피해 예방·관리방안을 담은 것이다. 201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립해 추진한 정책이다. <br/> <br/>이번 2차 종합계획은 ‘쾌적한 환경, 건강한 사람, 행복한 충남’을 비전으로 2대 목표와 5대 전략, 29개 중점 과제로 구성했다. 투입 예산은 4년 동안 274억원이다. <br/> <br/>도는 이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어린이의 건강영향을 조사한다. 보건환경연구 기관에 따르면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는 동일한 환경에서 어른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체내로 들어와 축적된다. 성장 중 입은 손상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능적·구조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어린이는 유해 환경 노출을 회피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br/> <br/>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는 성인을 대상으로만 추진해 왔다. 충남도는 이번 조사를 어린이 건강영향 추적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어린이 생활 주변환경 및 체내 유해물질 측정, 노출 평가 등을 한다. <br/> <br/>도는 또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 대기오염 수준 실태 조사와 위험요인 관리도 추진한다. 이 과제는 산업단지 지역이나 교통량 밀집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에 위치한 학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대기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학교 오염도 지도를 제작해 중점관리 학교를 선정한다. <br/> <br/>소음 피해 발생과 건강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도 한다. 사업 내용은 송전선로 주변 극저주파 노출과 암 발생에 관한 역학 연구, 역학조사 연구 결과에 따른 예방·관리대책 수립 등이다. <br/> <br/>이밖에 유해중금속 노출 경로 조사와 저감 방안, 환경·보건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라돈에 의한 주민 건강 피해 예방·관리, 자연 발생 석면 지질대를 중심으로 한 건강 피해 예방·관리, 사회적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 등도 이번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담아 추진한다. <br/> <br/>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90.txt

제목: 겨울에도 예외 없다…태양으로 인한 피부 손상 7가지  
날짜: 20170208  
기자: 김지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08164105001  
ID: 01100701.20170208164105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게티이미지뱅크우리는 모두 태양 때문에 약간씩은 피부가 손상됐다. 만약 태양 아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면, 그 자외선은 당신의 피부에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그렇지만, 주근깨와 심각한 태양 손상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br/> <br/>적당히 태양에 노출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이 햇볕을 쬐면 심각한 화상, 광선 피부염, 조기 노화, 피부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br/> <br/>누구나 태양으로 인한 손상의 징후와 증상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다. 그것은 피부암과 같은 큰 문제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 조그만 노력으로도 태양에 의한 많은 피해를 치유할 수 있다. 또한 당신의 피부 건강을 향상시키고 오래도록 젊고 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피부 관리가 필요하다. <br/> <br/>미국 온라인매체 리틀띵스가 태양으로 인한 피부 손상의 징후를 파악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br/> <br/>1. 검버섯 <br/> Morgan Swofford for LittleThings검버섯은 초대형 주근깨처럼 보이는 갈색 얼룩이다. 이것은 때로 기미 또는 태양 반점이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갈색 색소 침착은 때로는 몇 년에 걸쳐 태양에 노출된 결과다. 이것은 나이 반점이라고 잘못 불리고 있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태양에 더 많이 노출됐고, 더 연약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반점들이 더 자주 나타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태양 반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손, 팔, 가슴, 얼굴에 자주 나타난다. <br/> <br/>2. 주름 <br/> Morgan Swofford for LittleThings주름은 노화의 흔적으로 널리 간주된다. 그러나 주름은 태양 노출과 더 관련이 있다. 과학자들은 모든 주름의 80%가 자외선에 의한 손상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외선이 피부 온도를 높여 콜라겐을 분해하면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늘어난다. <br/> <br/>3. 거친 입술 <br/> Morgan Swofford for LittleThings사람들이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때, 때때로 입술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을 잊는다. 단기적으로 당신은 햇볕에 의한 화상 때문에 입술의 껍질이 벗겨지고 가려워 고통스러울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너무 많은 햇볕에 노출된 입술은 만성적으로 건조하고, 트고 갈라질 수 있다. 이런 상태를 광선입술염이라고 부른다.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br/> <br/>4. 건조하고 색이 바랜 머리카락 <br/> Morgan Swofford for LittleThings햇볕이 피부에만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니다. 머리카락과 손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머리카락에 주근깨가 생기거나 암이 발병할 수는 없지만, 태양 광선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태양이 머리카락의 수분을 빼앗아 머리카락의 색을 바래지게 하고, 건조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햇볕으로 인한 머리카락 손상은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 <br/> <br/>5. 적갈색 반점 <br/> Morgan Swofford for LittleThings햇볕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피부에 적갈색 반점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거칠고 부풀어 있으며 약간의 비늘로 덮여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당신의 피부에서 발견된다면 바로 피부과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이 상태는 광선 각화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징후다. <br/> <br/>6. ‘서퍼의 눈’과 백내장 <br/> Morgan Swofford for LittleThings태양 광선을 차단하기 위해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듬뿍 바를 수 있다. 하지만 눈을 보호하기는 매우 힘들다. 선글라스가 좋지만, 이것이 항상 실용적이지는 않다. 예를 들면 서퍼는 그들이 물 위에 있는 동안 항상 선글라스를 착용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눈은 태양으로부터 많은 손상을 입게 된다. 익상편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상태가 ‘서퍼의 눈’이라고도 불리는 이유다. 분홍색, 흰색 또는 투명 플라크의 형태로 눈의 표면에서 자라기 시작한다. 이것은 보통 무해하지만 암으로 발전하거나 시력에 영향을 주는 백내장으로 변할 수 있다. <br/> <br/>7. 처진 목 <br/> Morgan Swofford for LittleThings나이가 들면서, 목이 약간 처지기 시작했음을 눈치챘을 것이다. 이 흔한 상태는 종종 ‘칠면조 목’이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보통 노화의 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사실, 당신 목의 피부가 처지기 시작하는 것은 너무 많은 햇볕에 노출됐다는 표시일 뿐이다. 목이 자외선에 노출되면 목과 턱의 피부를 팽팽하게 하는 콜라겐이 파괴된다. 콜라겐이 분해되면 피부는 약해지고 맥없이 주저앉는다. <br/> <br/>태양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치유하는 방법 <br/> Morgan Swofford for LittleThings태양이 당신의 몸에 준 모든 손상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그중 가장 나쁜 것들은 치유할 수 있다. 한 예로, 지금이라도 선크림을 바르기 시작하는 것은 당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절대 늦은 것이 아니다. 피부가 이미 손상을 입었더라도, 추가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는 것이 좋다. 또한 피부 각질을 제거하고 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손상을 치유하고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타민을 피부에 공급하라.  <br/> <br/>김지연 기자 kimjiyeonc@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91.txt

제목: 생의 마지막을 함께한 그녀와 그녀의 고양이  
날짜: 20170207  
기자: 현화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07154530001  
ID: 01100701.20170207154530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카일리(Kylie)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싶다고 했다. <br/> <br/>그녀의 가족은 이 조그만 새끼 고양이가 카일리뿐 아니라 그들에게 가져다 줄 변화를 그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다. <br/> <br/>"저는 동물들이 천사 같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카일리의 엄마 로빈 마이어스 씨는 말했다. <br/> <br/>카일리는 매우 아팠고 피부와 뼈에 문제가 있었다. 12세 어린 나이에 골육종 판정을 받은 그녀는 방사선 치료 후에도 암세포가 전신에 퍼져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의료진의 판정을 받았다. 병원에서 집으로 오는 날, 그녀는 마지막 소원으로 아빠 마크 씨에게 새끼 고양이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다. <br/> <br/>그녀의 가족은 이미 네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지만, 마크 씨는 애완동물 구조 센터에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감염 방지 처리를 받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카일리의 집에 도착했다. <br/> <br/> 생전 카일리와 엘리자(오른쪽 고양이)/페이스북 <br/> <br/>카일리가 처음 이 새끼 고양이를 안았을 때 그녀의 얼굴은 금세 밝아졌고 미소는 방 전체를 환히 비추는 듯했다. 카일리는 새끼 고양이에게 '엘리자(Eliza)'라는 이름을 붙여줬는가 하면, 직접 우유를 먹이고 털을 빗겨주는 등 정성을 다했다. <br/> <br/>카일리와 엘리자는 마지막 이틀 하고도 반나절을 함께 보냈다. 그리고 카일리는 가족에게 엘리자를 잘 돌봐줄 것을 부탁한 뒤 세상과 작별했다. <br/> <br/>어머니 로빈 씨는 카일리가 눈을 감은 날 고양이 엘리자를 안고 한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br/> <br/>이후 엘리자는 마이어스 가족의 어엿한 일원이 됐다. 너무도 일찍 카일리를 떠나 보내야 했던 가족들은 엘리자를 보며 따뜻한 위로를 얻었다고 한다. 이제 마이어스씨 가족에게 엘리자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다. 엘리자는 카일리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선물'이었다. <br/> <br/>현화영 기자 hhy@segye.com <br/>사진=유튜브, MUTUAL RESCUE

언론사: 세계일보-3-492.txt

제목: “온난화 재앙, 이제는 현실… 예방 넘어 적응력 고민해야”  
날짜: 20170206  
기자: 윤지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06030834001  
ID: 01100701.20170206030834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집에 연못이 있다고 가정하자. 연못에 수련이 한 송이 자라고 있다. 수련은 날마다 크기가 두 배로 자란다. 만일 수련이 자라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30일 안에 수련이 연못을 꽉 채워 그 안에 사는 다른 생명체들을 모두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처음에는 수련이 너무 작아서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29일째 되는 날 수련이 연못의 반을 덮었다. 아직도 연못의 반이나 남았다고 태연할 것인가?’ <br/> <br/>1972년 발간된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는 이같이 묻는다. <br/> <br/>자원고갈, 기후변화, 인구감소 같은 지구촌 위기가 ‘먼 훗날’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경고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데니스 메도스 박사의 눈에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수련이 연못을 덮고 말았다는 점이다. <br/> <br/> 4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데니스 메도스 미 뉴햄프셔대 교수가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환경 위기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br/>남제현 기자그는 “곳곳에서 성장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현 세대의 노력과 상관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r/> <br/>지난해 세계기상기구(WMO) 발표에 따르면 전 지구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는 400ppm으로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화 전(278ppm)과 비교해 40%나 늘어났다. <br/> <br/>메도스 박사는 “<span class='quot0'>온실가스는 한번 공기 중으로 배출되면 종류에 따라 최대 150년까지 대기에 머문다</span>”며 “<span class='quot0'>지금까지 대기에 쌓인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로 온난화가 시작됐고,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준을 넘어섰다</span>”고 일갈했다. 지구 기온이 상승하며 북극 빙하가 녹았고, 그런 탓에 태양열 흡수가 늘어 지구 기온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구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br/> <br/>“몇 년 전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고열과 두통, 소화불량 증세가 나타나 그때마다 증세를 치료하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근본적인 문제는 암이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위기는 하나의 증세입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통제되지 않는 성장인 것이지요.” <br/> <br/>그는 “<span class='quot0'>끊임없이 더 생산하고 소유해야만 한다는 전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성장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span>”고 지적했다. <br/> <br/>하지만 덜 쓰고, 덜 만드는 삶이 물질적 풍요에 익숙한 현대인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 <br/> <br/>메도스 박사는 “50년, 100년 전에는 아이폰도 없었고, 나이키 운동화도 없었다. 우리가 이런 걸 갖게 됐다고 해서 과연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사람의 소유욕이 과연 인간의 본성인지, 산업사회가 부추긴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0'>현 세대에게 시급한 문제는 기후변화, 자원고갈, 인구감소 등의 문제에 적응력을 기르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예방 시기를 놓쳤다면 적응을 고민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br/>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올해는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 원년이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0'>대부분의 사회는 어떤 시점에 오면 인구 감소를 겪기 마련</span>”이라고 전제한 뒤 “<span class='quot0'>지금까지 우리는 ‘다수의 젊은이와 소수의 고령자’를 기본으로 사회체계를 만들어왔지만, 이제 이런 틀을 바꿔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성장의 한계’가 나오기 전에도 인류의 위기를 경고한 책은 많았다. 식량 증가량이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맬서스의 ‘인구론’이 대표적이다. <br/> <br/>그러나 성장의 한계는 처음으로 ‘월드 3’라는 컴퓨터 모델로 다양한 가정에 따른 미래 시나리오를 내놓음으로써 지구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성장이 절대명제인 경제학자와 기업가들은 불편해졌다. 과학의 탈을 쓴 ‘종말론’이라는 비아냥이 이어졌다. <br/> <br/>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과 덴마크 등에서 최신 모델과 자료를 활용한 실험에서도 45년 전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서 성장의 한계는 재조명받고 있다. 특히 2009년 호주연방과학원(CSIRO)은 성장의 한계가 예측했던 인구·환경·경제 분야의 각종 지표와 실제 데이터를 대조해봤는데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성장의 한계는 1992년과 2004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최신 결과를 반영해 네 번째 판을 낼 계획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단호하게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br/> <br/>“성장의 한계를 발표한 목적은 예상가능한 위기와 인류의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04년까지 이런 노력은 통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책을 쓸 이유가 없죠.” <br/> <br/>메도스 박사는 계속 경고음을 울리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찾을 때라고 했다. 그 출발은 용어를 바로잡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br/> <br/>테크놀로지를 ‘하드 테크놀로지’와 ‘소프트 테크놀로지’로 나눠 과학기술 같은 물리적인 부문뿐 아니라 소비 문화, 사고의 전환 같은 정신적인 것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r/> <br/>마지막으로 ‘지구적인 문제’와 ‘보편적인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br/> <br/>“환경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지구적인 문제라면 대기오염은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둘은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예를 들어 서울 시민이 운전을 덜 한다고 지구촌의 기후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공기 질은 훨씬 좋아지겠죠.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글로벌한 것인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br/> <br/>메도스 박사는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궁금했다. <br/> <br/>그는 화석연료 대신 미국 보스턴 집 주변에 있는 나무를 직접 캐와 난방을 한다고 했다. <br/> <br/>“태양열도 쓰고 있고, 마을에 텃밭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유기농 채소를 재배합니다. 채식주의자이고, 훌륭한 환경 기사를 쓴 언론사에는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김치를 좋아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br/> <br/>메도스 박사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span class='quot0'>안타깝게도 지구는 인간의 착취를 버티기 어려운 수준에 왔지만, 지구의 미래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갈 후손을 생각하면 작은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span>”고 거듭 강조했다. <br/> <br/>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93.txt

제목: “문총재, 위대한 종교 관념들 하나로 융합”  
날짜: 20170203  
기자: 정승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03200518001  
ID: 01100701.20170203200518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을 창시한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에 맞춰 낸 책이다. 국내외 지도자 72인이 저마다 관점에서 바라본 소감과 느낌이 담겨 있다. 이들의 견해를 통해 문·한 총재의 사상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책이다. <br/> <br/>하비 콕스(88) 하버드대 사회윤리학 교수는 진보 신학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1977년 어느날 가정연합이 마련한 수련회에 갔다. 당시 사이비 교주로 소문난 레버문의 실체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수련회에서 인생 최대의 경험을 했다고 술회했다. <br/> <br/>하비 콕스의 얘기다. “이른바 통일교회에 젊은이들이 몰리는 매력은 세뇌작용의 결과가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버려진 기독교인이라고 여긴다는 사실에 있다. 그것은 공허한 심리상태로 초래된 결과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흥미를 갖는 것의 하나가 음주와 입신출세주의라는 말은 거짓이다.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믿을 만한 종교적인 근거를 찾고 있다.” <br/> <br/>그러면서 신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나름의 종교관을 정립했다. 그는 “문 총재의 시도는 역사적인 기독교의 특수성을 초월하며, 위대한 종교 관념들을 하나로 융화시킨다는 것이다. 종교와 과학의 이원성을 초월코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특히 종교 교육을 통하여 경제적 문화적인 생활을 신성하게 유도한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br/> <br/> <br/> 문선명·한학자 총재가 1990년 4월 모스크바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대통령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당시 고르바초프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언론인대회에 참석한 문 총재를 크레믈로 초청, 환담했다. <br/>세계일보 자료사진그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도 수련회 강사의 얘기를 그대로 옮겨 증언했다. “강사는 이렇게 증언했다. ‘하나님은 슬픈 심정을 갖고 있다. 수천 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책임을 다하여 천국을 건설할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강의한 후 울먹였다. 이어서 내 주위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울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br/> <br/>전 로마 가톨릭 대주교인 엠마누엘 밀링고는 2001년 성 마리아와 영혼 결혼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밀링고 역시 몇차례 토론과 강의 이후 쓴 소회를 전했다. “2001년 5월 27일 일요일,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도인 마리아성과 축복결혼을 받을 것이다. 나는 신부((神父)이기 때문에 결혼이란 관심 밖의 일이었다. 나는 한동안 마음속에서 이 문제와 씨름했다. 결국 내 미래의 아내와 나의 요청으로 문 총재 양위분은 축복식을 주재하고 여러 종파의 성직자들과 함께 우리의 맹세를 선서시키고 결혼을 선포할 것이다.” <br/> <br/>밀링고 대주교는 “내가 조종당해 이 길을 따르게 됐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면서 “나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한다. 문 총재 양위분은 나에게 가톨릭 신앙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참가정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다”고 말했다. <br/> <br/>이밖에 책에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미국 워싱턴타임스 창간 기념일에 보낸 편지도 소개된다. 대처는 “문 총재가 워싱턴타임스를 창설했을 때에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문 총재께서 계시는 한 워싱턴타임스는 살아있고, 이 신문사가 번영하는 한 보수주의적인 견해는 흐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br/> <br/>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span class='quot0'>가정 파괴로 미국은 물론 세계 전체가 10대들의 임신과 낙태, 청소년 범죄, 사회의 암적 존재인 마약 등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이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참가정 운동을 통해 시작됐다</span>”고 밝혔다. <br/> <br/>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94.txt

제목: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암환자', 가장 큰 걱정은 '치료비'  
날짜: 20170203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03132154001  
ID: 01100701.2017020313215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암 환자이거나 치료 후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또 암에 걸릴 경우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치료비'로 드러났다. <br/> <br/>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망원인 중 암에 의한 사망은 전체 사망의 27.9%를 차지했다. <br/> <br/>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암 등록' 통계를 보면 암 유병자 수는 14만6400명으로 국민 35명당 1명이 암 치료 경험이 있다. <br/> <br/>전체 암 환자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70대(23.3%)지만 50대(22.3%)와 60대(22.0%)도 70대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br/> <br/>50대가 되면 암 발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 50대 이상이 전체 발생자의 77.7%를 차지할 정도다. <br/> <br/>암 종류별로 보면 2014년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갑상선암(14.2%)은 2012년 이후 많이 줄어들고 있다. <br/> <br/>반면 유방암, 뼈종양, 뇌종양, 림프종 및 백혈병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br/> <br/>암에 걸리면 가장 큰 걱정은 치료비다. <br/> <br/>2012년 코리아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암에 걸렸을 때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의 30.7%가 치료비 부담을 꼽았다. <br/> <br/>죽음에 대한 두려움(16.1%)과 고통에 대한 걱정(12.4%), 회복 가능성 불투명(11%)이 뒤를 이었다. <br/> <br/>암 환자 중 절반 가까이 진단 이후 고용상태가 변했으며, 그중 80%는 실직을 하고 재취업에 46.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진단자 중 14.4%가 의료비 마련을 위해 재산을 처분한 경험이 있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95.txt

제목: 치명적 후유증 남기는 뇌졸중 재활법은?  
날짜: 20170202  
기자: 이복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02195044001  
ID: 01100701.20170202195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EBS1 ‘명의’는 3일 오후 9시50분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병인 뇌졸중을 다룬다. <br/> <br/>갑자기 발생하는 뇌졸중은 초기 치료가 어려워 그 자체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더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 뇌졸중 환자 3명 중 1명이 장애를 얻고 그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3급 이상의 심한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간다. 국내 뇌졸중 재활치료 분야의 정상인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연희 교수와 함께 뇌졸중 재활치료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본다. <br/> <br/> EBS1은 3일 오후 9시50분 ‘명의-뇌졸중 그 후’편을 통해 뇌졸중의 재활치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br/>EBS 제공뇌졸중은 뇌의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혈관이 막히면서 일어나는 뇌경색 두 가지로 나뉜다. 뇌졸중 발생 시 뇌에 손상이 가는 부위에 따라 후유장애가 생기는데, 운동·언어·인지장애 등 여러 가지 치명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뇌졸중 발생 후 골든타임은 보통 72시간이다. 3일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뇌졸중 환자들이 재활치료를 받기까지 평균 16.8일이 걸린다. <br/> <br/>박세훈(62)씨는 9개월 전 내경동맥이 막히면서 오른쪽 몸이 마비되고 언어장애가 왔다. 발병 당시 뇌경색은 시술로 치료했지만 그 이후에 재활치료를 제때 받지 않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결국 아내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br/> <br/>이준규(가명)씨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IT 회사를 운영하던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었다. 그런 그가 자던 중 발생한 고혈압성 뇌출혈로 급히 응급실에 실려 왔다. 하지만 이미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뇌는 오른쪽 몸을 마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지, 언어, 삼킴 장애 등 복합적인 후유장애를 남겼다. 이씨는 현실을 인정하고 재활치료에 모든 희망을 걸었다. 감병인 없이 꼼짝도 못하던 신세였던 이씨는 꾸준히 재활치료를 한지 3주 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미미하게 느껴지기만 했던 재활치료의 성과는 조금씩 시간이 흐르자 점차 큰 변화로 나타났다. <br/> <br/>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96.txt

제목: '층간 소음' 때문에 60대 여성 살해한 남성, 징역 30년  
날짜: 20170202  
기자: 김영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02153342001  
ID: 01100701.20170202153342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경기도 성남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위층 집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남편에게 중상을 입힌 30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br/> <br/>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는 자녀가 없는 아들 부부와 거주했고, 아파트도 소음이 될 만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당시 심한 층간소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사건 당일 평소보다 층간소음이 심하지 않았는데도 돌연히 범행을 결심,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br/> <br/>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4개월 전부터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고 범행 직후 해외 밀항을 계획했다”면서 “법정에 선 이후 반성문을 작성하고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죄송스러움을 여러차례 표현하는 등 이 범행이 초래할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했다” 고 밝혔다. <br/> <br/>다만 “피고인이 안구건조증과 과민성 방광염 등으로 극도로 스트레스받는 상황에서 층간소음에 집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r/> <br/>김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5시50분쯤 자신의 아파트 위층인 21층 A(67)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A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 부인(66·여)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범행 넉달전 서울의 한 쇼핑센터에서 화재감지기 형태 몰래카메라를 구매한 뒤 A씨 부부 집 복도 천장에 설치, 현관문 비밀번호 를 알아내서 범행을 저질렀다. <br/> <br/>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안과 질환으로 빛에 예민해지면서 집안 생활만 하다 보니 과민성 방광염이 생길 정도로 극도로 예민해졌고, 어머니까지 암 판정을 받아 제 정신이 아니었다"며 지난해 8월 1차 공판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치료감호소는 지난해 12월 "피고인은 정신의학적으로 망상, 환청, 현실적 판단 저하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으로 보이며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br/> <br/>성남=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97.txt

제목: 최첨단 장비 갖춘 경북대병원 건강검진센터 문열어  
날짜: 20170201  
기자: 문종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01135643001  
ID: 01100701.20170201135643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경북대병원 새 건강검진센터.경북대병원 제공. 경북대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인 최첨단 시설과 교수진을 갖춘 건강검진센터 문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br/> <br/>새 검진센터는 기존의 2배 규모로 공간을 확장하고 실시간 환자 안내시스템, 독일 지멘스사 소마톰 포스(SOMATOM FORCE) CT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했다. <br/> <br/>소마톰 포스 CT는 듀얼 에너지 시스템을 탑재해 0.3㎜의 아주 작은 암 병변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최신 검사 장비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br/> <br/>소화기내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순환기내과 등 여러 진료과 교수 9명, 간호사 12명 등 의료진 30여명이 원스톱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br/> <br/>여성 전용공간을 갖추고 외국인 통역 서비스도 해준다. <br/> <br/>경북대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대구 경북 주민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고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98.txt

제목: '용돈 안준다'며 암투병 어머니에게 욕하고 전화기 던진 10대, 또 소년원행  
날짜: 20170201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01112932001  
ID: 01100701.20170201112932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10대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암 투병 중인 어머니에게 욕설하고 전화기를 집어 던져 퇴원이 취소돼 소년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br/> <br/>1일 원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중인 A(17) 군을 춘천지검 원주지청 구금시설에 유치한 뒤 임시퇴원 취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br/> <br/>지난해 12월 30일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A 군은  최근 갑상선암 수술 후 치료 중인 어머니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고 전화기를 집어 던졌다. <br/> <br/>지원센터는 A군이 법률이 정한 보호관찰 개시신고 기한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야간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 위반비율도 높고 위반 사실 조사를 위한 소환에도 불응하자 임시퇴원을 취소키로 했다. <br/> <br/>A군은 지난해 5월 친구를 때려 상해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았지만 불성실한 태도로 2달여 만에 구호처분으로 변경돼 소년원에 수용됐다. <br/> <br/>이후 지난해 말 야간외출제한 1개월과 보호관찰 6개월 조건으로 임시퇴원한 바 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499.txt

제목: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췌장암 투병 중 별세...'어떤 병이길래?'  
날짜: 20170201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01112120001  
ID: 01100701.20170201112120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사진=강봉균 페이스북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31일 췌장암으로 별세하며 췌장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r/> <br/>강봉균은 최근 췌장암 투병 중 병세가 악화되며 향년 74세로 별세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br/> <br/>그가 투병생활을 했던 췌장암은 소화 효소와 호르몬을 분비하는 췌장에 암이 발생한 것으로 췌관세포에서 발생한 췌관 선암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br/> <br/>이 병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며 발생하기 쉬운 요인으로는 45세 이상의 연령, 흡연 경력, 오래된 당뇨병, 지방이 많은 음식 섭취 등이 있어 평소 식습관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br/> <br/>특히 췌장암은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고 성장속도가 빨라 사망률이 높다. <br/>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00.txt

제목: [사설] 정론직필 ‘참언론’의 대장정을 다짐한다  
날짜: 20170201  
기자: 이승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201002513001  
ID: 01100701.20170201002513001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진실은 무엇인가. 루머와 거짓이 판치는 대한민국 사회를 향한 물음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요즘처럼 심각했던 적이 일찍이 없었다. 사실로 포장된 거짓이 인터넷과 SNS를 타고 급속도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br/> <br/>대선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인터넷에는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가짜 뉴스가 범람한다. “<span class='quot0'>현 유엔사무총장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대권 도전이 총회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span>”, “<span class='quot0'>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괴 200t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쓰고 있다</span>”는 식이다. 기사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명백한 거짓이다. 참다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 뉴스 색출에 나섰을 정도다. <br/> <br/>거짓의 폐해는 지도층 인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온 국민이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span class='quot1'>전자파 때문에 참외가 죽는다</span>”, “<span class='quot1'>사드 전자파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span>”는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 역시 거짓 뉴스의 피해자였다. “삼성 장학생 출신” “아들이 삼성에 취업할 예정”이라는 글이 나돌았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판결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유언비어를 만들어 공격하는 행위는 인격 살인이자 법치 부정이다. <br/> <br/>최근에는 악의적인 거짓 기사로 분칠한 혐한 웹사이트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구글블로그에 개설된 이 사이트에는 “국내 관광 중인 일본인 소녀 2명을 성폭행한 한국인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등의 악성 거짓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국의 뉴스를 널리 전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악의적인 거짓이 한·일 관계와 양국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여간 심각하지 않다. <br/> <br/>거짓이 진짜로 행세하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다. 거짓이 활개 치면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는 무너진다. 우리 사회에 신뢰 수준이 극히 낮은 것도 이런 까닭이다. 20대 한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세계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고작 32.9%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았다. 정부에 대한 신뢰 역시 바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만년 꼴찌권에 머문다. <br/> <br/>신뢰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다. 믿음이 없으면 뭉칠 수 없고 갈등과 대립만 커질 뿐이다. 불신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 미국의 지성인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사회적 자산으로 신뢰를 꼽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 경쟁력 또한 사회 신뢰 수준에 좌우된다.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회, 믿을 수 없는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 <br/> <br/>언론의 사명은 사회의 목탁으로서 국민에게 진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다. ‘정론직필’ 세계일보가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아무리 명분이 거창하더라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으면 한낱 소음에 불과한 까닭이다. <br/> <br/>세계일보는 ‘조국통일의 정론’과 함께 ‘민족정기의 발양’, ‘도의세계의 구현’을 사지(社旨)로 하고 있다. 민족정기가 살아 숨 쉬고 도의가 바로 서는 사회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세계일보가 그동안 온갖 역경을 딛고 진실의 편에 서서 역사를 쓰는 심정으로 신문을 만들어온 이유다. 오늘 창간 28주년을 맞아 정직과 진실이 존중받는 신뢰 사회로 나아가도록 ‘참언론’의 대장정에 매진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언론사: 세계일보-3-501.txt

제목: [경희궁 갤러리] 빛 잃은 슬픔… 아내 위한 진혼곡  
날짜: 20170131  
기자: 편완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31204417001  
ID: 01100701.20170131204417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모네 ‘임종을 맞는 카미유’ (90×68㎝, 파리 오르세 미술관)빛에 충실했던 인상파 화가 모네는 죽어가는 아내의 모습마저도 그림에 담았다. 모델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카미유의 임종 모습이다. 재정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아내가 암으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br/> <br/>“점점 창백해지는 그녀의 얼굴, 그 얼굴에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관찰하고 있는 내 자신을 깨닫고는 나도 놀랐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꼈던 그녀의 모습을 붙잡으려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기질적으로 변화하는 그녀의 얼굴빛들에 대한 전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br/> <br/>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시시각각 변해가는 아내의 얼굴빛을 바라보는 일이었다.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림밖에 없었다. 결국 영면에 드는 카미유를 보면서 모네는 붓을 든 것이다. 어쩌면 예술적 본능으로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의 빛’마저 잡아채려 했는지 모른다. 카미유는 죽어가면서도 모네의 모델이 되어준 셈이다. <br/> <br/>모네는 전당포에 맡겨진 아내의 목걸이를 찾기 위해 지인에게 다급하게 도움의 편지도 보낸다. <br/> <br/>“아내가 오늘 아침 사망했습니다. 불쌍한 아이들과 홀로 남겨진 이 기분은 정말 비통합니다. 우리가 저당 잡힌 목걸이를 찾아주실 수 있는지요. 그 목걸이는 아내 카미유가 지녔던 유일한 추억거리입니다. 그녀가 우리 곁을 떠나기 전에 그녀의 목에 걸어주고 싶습니다.” <br/> <br/>한 남자의 아내를 향한 진혼곡이다. 모네는 1889년 로댕과의 합동전 이후 비로소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평생 빛을 그린 그에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어둠이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시각을 잃고 어둠 속에서 죽어갔다. 삶은 빛과 어둠이다. <br/> <br/>편완식 미술전문기자

언론사: 세계일보-3-502.txt

제목: '괴물 쥐' 뉴트리아 담즙서 웅담 성분 검출  
날짜: 20170131  
기자: 이정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31202735001  
ID: 01100701.2017013120273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생태계 교란종인 ‘괴물 쥐’ 뉴트리아의 담즙에서 웅담 성분이 검출돼 화제가 되고 있다. <br/> <br/>또 뉴트리아 기름에서는 화장품 재료로 사용되는 고급 지방산이 나왔고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산도 밍크나 오소리 수준으로 나와 경제·산업적 활용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br/> <br/>경상대학교 수의대 연성찬 교수팀은 뉴트리아 담즙에 웅담의 주성분인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br/> <br/>연 교수팀에 따르면 뉴트리아 담즙의 UDCA 비율은 평균 43.8%로 아메리카흑곰 38.8%, 불곰 18.6%, 북극곰 17.4%, 말레이곰 8.6%, 오소리 4.5% 등 보다 높았다. <br/> <br/>UDCA는 체내 독소와 노폐물의 원활한 배출을 돕고, 간세포 보호나 신진대사 촉진, 콜레스테롤 감소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항산화 효과나 미백·항노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r/> <br/>1973년 채택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곰이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보호받으면서 현재 의약품에 함유된 UDCA는 대부분 인공 화학 성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와 함께 뉴트리아 지방조직에서 플라스틱, 합성 세제, 화장품 등으로 사용되는 고급 지방산 '팔미트산'과 향균 효과, 콜레스테롤 감소 등에 효능이 뛰어난 ‘팔미톨레산’도 함께 검출됐다. <br/> <br/>뉴트리아 팔미트산 비율은 18%로 오소리(18%)나 밍크(16%) 수준이며 팔미톨레산 비율은 6.4%로 오소리(7%)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밍크(15%)보다 절반가량 낮았다. <br/> <br/>이밖에 뉴트리아 지방 추출 기름은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45.6%로 밍크(71.5%)와 오소리(56.3%) 다음으로 많았다. 견과류나 오리고기 등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불포화지방산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암과 성인병 예방, 저혈압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연 교수는 “<span class='quot0'>자연 웅담 성분을 지닌 원료로 뉴트리아 담즙을 활용하면 충분히 산업적 가치가 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기생충 등 문제가 있어 뉴트리아 야생 담즙을 함부로 섭취하면 안되며 반드시 가공된 제품을 이용해야 한다</span>”고 덧붙였다. <br/> <br/>연 교수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뉴트리아에서 나온 성분을 의약품이나 화장품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사육 뉴트리아와 야생 뉴트리아의 UDCA 비율 차이는 있는지 등 추가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br/> <br/>진주=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03.txt

제목: 인도 전역에 '비만세' 도입검토…"성인병 예방 목적"  
날짜: 20170131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31153229001  
ID: 01100701.20170131153229001  
카테고리: 국제>아시아  
본문: 인도 케랄라주에서 14.5%의 비만세를 도입한 데 이어 이러한 움직임이 인도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이라고 30일(현지시간) 인도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보도했다. <br/>보도에 따르면 비만세 도입을 추진 중인 전문가들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정크푸드에 대한 과세(비만세)를 올해  예산안에 포함하도록 제언했으며, 정부는 이를 반영한 예산안을 오는 2월1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비만과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제언은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 염분을 많이 포함한 햄버거나 피자, 샌드위치 등의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음료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징수한 세금은 건강 관련 사업에 쓰일 예정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br/> <br/>이들 전문가는 정크푸드와 설탕이 들어간 음료의 소비 급증과 성인병 증가를 비만세 도입 배경으로 꼽고, "<span class='quot0'>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조치</span>"라고 설명했다. <br/> <br/>비만세가 도입되면 그만큼 값이 비싸진 정크푸드와 음료의 소비는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정크푸드와 음료의 소비 감소로 성인병의 증가 추세도 꺾일 것이라는 게 정부 측 기대이다.  <br/> <br/>한 보건 전문가는 "지난 몇 년간 정크푸드와 설탕이 들어간 음료가 원인이 돼 폐와 심장 질환, 암, 당뇨병 등으로 사망하는 인도인이 연간 약 580만명에 달한다"며 "<span class='quot1'>2015년에만 6910만명이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span>"고 지적했다. <br/> <br/>한편 인도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비만세 도입을 추진해 광고규제의 도입과 함께 학교에서 정크푸드 판매를 금지하는 지침도 마련해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타임스 오브 인디아 캡처

언론사: 세계일보-3-504.txt

제목: [조용호의 나마스테!] “새하얀 눈 맞으며 떠난 아내… ‘문학적 삶’ 연장이 나의 숙제”  
날짜: 20170130  
기자: 조용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30232507001  
ID: 01100701.20170130232507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어제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영구차가 눈 속으로 갔습니다. 유난히 곱고 깨끗한 걸 좋아했던 사람이어서 <br/> <br/>펑펑 쏟아지는 눈을 소재로 ‘폭설’이란 희곡을 썼는데, 풍성하고 이쁘게 날리는 서설 속에 천국으로 올라가는구나 싶었습니다. <br/> <br/>생물학적 삶을 연장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 사람의 문학적 삶은 사력을 다해 연장시키고 싶습니다.” <br/> <br/>폭설이 내리는 토요일 오후, 과천에서 김병종(64) 서울대 미대 교수를 만났다. <br/> <br/>국내외에서 입지가 탄탄한 존경받는 화가로 그를 인터뷰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 소설가 정미경(1960~2017.1.18)을 돌아보는 자리였다. 그날은 그가 아내의 장례를 치른 다음 날이었다. 예술의 길을 같이 가는 동반자로서 두 사람의 결속력이 남달랐던 만큼 김병종이 겪는 상실감과 충격은 짐작하기 쉽지 않다. 그는 “꿈꾸는 것 같다”고 했다. <br/> <br/>정미경은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와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폭설’이 당선됐고 2001년 ‘세계의문학’에 단편 ‘비소 여인’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소설가의 길을 걸었다. 이후 소설집 ‘나의 피투성이 연인’ ‘발칸의 장미를 내게 주었네’ ‘내 아들의 연인’ ‘프랑스식 세탁소’, 장편 ‘장밋빛 인생’ ‘이상한 슬픔의 원더랜드’ ‘아프리카의 별’ 등을 펴내며 왕성하고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오늘의작가상, 이상문학상을 받았다. ‘서사 구조의 고전적 안정성, 미묘한 정서를 전하는 섬세한 문체, 존재와 삶을 응시하는 강렬한 시선’으로 우리 문단에 독특한 위상을 차지한 작가였다는 평가다.  <br/> <br/> <br/> 알제리 티파사를 여행 중인 김병종 정미경 부부.정미경의 부음은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그녀가 아프다는 소식은 문단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암 선고를 받고 홀로 집에서 남편과 지내다 한 달 만에 떠나버렸다. 사망 소식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 아들 결혼식을 치른 지 3일 만에 당한 상이라서 부고를 내지 않고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려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6일 고양행주문학상 시상식에 다녀온 후 극심한 피로를 호소해 그가 동네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큰 병원으로 가기를 권유해 결국 간암 말기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아내는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집에 있겠다고 했다. 그동안 서로 바빴는데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했고, 같이 산책하고 기도해주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날부터 김병종은 모든 일정을 파기하고 24시간 그녀 곁에 머물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 아내는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려다 거울 속 스산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모든 이에게 ‘덕’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포기한 지 3일 만에 떠났다. <br/> <br/>“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평생 남에게 조금이라도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남편이나 두 아들에게도 단 한 마디 나쁜 언사를 하거나 공격 성향을 보인 적이 없어요. 거의 순백에 가까운 정신세계였고 별다른 욕심이나 집착 같은 게 없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 문학이 과연 제 아내에게 구원의 도구였는지, 아니면 연약한 생명을 위해하는 그 무엇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학으로 인해 기쁨도 있었지만 문학으로 인해 상처받고 좌절하는 모습을 옆에서 너무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재능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br/> <br/> <br/> 사진작가 이은주가 찍은 김병종-정미경 부부. 화가 김병종은 소설가 아내 정미경이 서로의 예술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는 동지였다고 말한다.남편이 전해준 바에 따르면, 정미경은 작업실로 향하는 화가 남편과 역시 화가와 조각가인 두 아들에게 도시락까지 싸준 후 방배동 반지하 작업실로 향하곤 했다. 반지하 창문 위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발을 보면서 채탄하러 들어온 광부 같다는 심정도 토로하곤 했다. 습하고 햇볕도 안 드는 곳인데 그곳을 가야 비장해진다면서 점심도 달걀 한두 개나 감자 한 알 정도 가지고 갔고, 그마저 그냥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다. 밥을 먹으면 나른해져서 글도 그러하다는 게 이유였다. 바깥 나들이도 많지 않았다. 김병종은 결혼한 이후 평생 저녁을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었다고 했다. 뛰어난 아내의 솜씨가 아니면 입맛에 맞지 않았다고 했다. 그의 조카가 “평생 숙모를 수탈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아내는 그 조카를 나무라며 “내가 좋은 걸 어쩌냐”고 했다 한다. 그녀가 남긴 글을 보면 행복한 노동 쪽에 가까운 것 같다. “밤이 늦도록 우리집 세 남자가 일하는 시간에 나는 자판을 두드리다 말고 그들을 위한 간식거리를 준비하러 일어선다. …소설가 아무개는 그들 속에 흡수되어버리는 느낌이다. 하지만 경계가 무뎌지고 세 사람의 ‘쟁이’들 속으로 흡수되어버리는 그 느낌이 나는 좋다. 팔자일까, 운명일까.” <br/> <br/>이대문학상 수상자인 정미경에게 역시 대학문학상을 받았던 서울대 미대생 김병종이 편지를 띄웠고, 6개월 동안 그렇게 편지만 주고받다가 만나 사귀다가 정미경이 대학을 졸업하던 23살에 결혼했다. 그들의 금실은 단순한 부부관계를 떠나 예술적 동지 차원의 것이었다. 수업이 없는 날 아침이면 아내와 함께 문학 역사 미술 철학에 대해 차를 마시며 몇 시간이고 함께 보냈다. 문상 온 사람들이 식사 걱정을 하는데 정작 그이는 이런 동지적 관계의 단절이 더 견디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br/> <br/>“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집 와서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하면서 틈틈이 써온 소설들을 컴퓨터가 망가지는 바람에 날려버렸어요. 그때 거미처럼 한 이틀 동안 방안에 누워 있더라고요. 다시 일어나 도전해서 지금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글쓰기를 이어온 거지요.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주워들고 아내의 칼럼을 읽을 때마다 놀라곤 했습니다. 칼럼 하나 쓰는 데만도 엄청난 공력을 들여 쓰고 지우기를 수없이 반복하더군요. 소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인정하는 글쟁이는 많지 않은데 아내의 글은 정말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br/> <br/>아무 흠결 없는 완벽한 부부 관계가 가능할까. 그는 “왜 갈등이 없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자신이야말로 흠결투성이였지만 그걸 아내가 늘 덮었다고 했다. 남편 김병종은 “<span class='quot0'>사력을 다해 아내를 살리고 싶었다</span>”고 했다. 그 희망은 좌절됐지만 평생 아내가 자신을 위해 뒷바라지했으니 이제는 그가 아내의 문학적 삶을 연장시키기 위해 노력할 시점이라고 했다. <br/> <br/>“옆에서 보기에 아내의 작품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함량과 노력에 비해 미미한 편이었습니다. 아내는 단 한순간도 그런 결과에 대해 한탄을 하거나 좌절한 적은 없습니다. 나는 그 여자의 재능을 스물두 살에 발견해서 한 번도 그 재능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증인입니다. 당대에 엄청난 평가를 받았는데 스러져버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말 힘든 삶을 살았는데 복원돼서 제대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미술사에는 많습니다. 모든 내 작품을 지금까지 관리하고 조언해주어 내 미술세계를 위해 신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아내의 문학적 성과에 대한 세속적 반향을 책임져야 한다는 소명이 느껴집니다.” <br/> <br/>여전히 눈은 내리는데, 잠을 자지 못한 그의 눈은 꿈을 꾸듯 몽롱했다. <br/> <br/>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05.txt

제목: 조기대선 한국도 가짜뉴스 ‘경계령’  
날짜: 20170130  
기자: 박성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30191209001  
ID: 01100701.20170130191209001  
카테고리: 정치>정치일반  
본문: 가짜 뉴스의 해악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짜 뉴스 경계령이 이미 내려진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span class='quot0'>가짜 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도 주요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가짜 뉴스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span>”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유언비어 신고센터를 지난 11월부터 가동 중인데 이미 5000여건이 접수된 상태다. <br/> <br/>각국 정부가 그야말로 가짜 뉴스와 전쟁을 선포한 수준이지만 이를 뿌리뽑기는 쉽지않다. 먼저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 소문과 뉴스 패러디를 구분해야 하는데 이 자체가 쉽지않다. 특히 정치인·정치권을 상대로 한 풍자뉴스는 서구의 오랜 전통이기도 하다. 미국에선 ABC, CNN 등 기성 언론사와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가짜 뉴스 사이트가 풍자 내지 재미를 핑계로 번듯하게 영업 중이다. 아예 ‘과학자들, 암 치료 기술 발견’ 등 오로지 재미만을 위한 허구 뉴스를 만들어내는 ‘디 어니언’, ‘엠파이어 뉴스’ 등 독자적인 가짜 뉴스 사이트도 적지 않다. 1938년 10월 30일 저녁 미국 CBS 라디오를 통해 천재 작가 오손 웰스가 음악 중계 방송 중간에 속보 형식으로 외계인의 지구 침공 소식을 가짜 뉴스로 방영해 대소동을 일으킨 이래 숱한 가짜 뉴스가 나름의 문화를 형성했을 정도다. <br/> <br/>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에서 가짜 뉴스 제재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방안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국내의 경우 국외에 서버를 둔 가짜 뉴스에 대해선 뾰족한 단속 방안이 없을 수 있다. 또 국내에서 논란이 되는 경우라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있는 포털 등과 달리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및 페이스북을 통한 가짜 뉴스 범람은 제때 단속하지 못하거나 사후 조치조차 힘들 수 있다. <br/> <br/>박성준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3-506.txt

제목: ‘사람이 좋다’ 조승구, 암 선고 후 완치…누리꾼 “노래교실 재능 기부도 부탁해요” “아내분 대단하십니다”  
날짜: 20170129  
기자: 여창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29094152001  
ID: 01100701.20170129094152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사진출처=MBC `사람이 좋다` 방소화면 캡처‘사람이 좋다’에서 가수 조승구의 사연이 공개돼 이목이 집중된다. <br/> <br/>29일 방송된 MBC 시사 교양프로그램 ‘휴먼 다큐-사람이 좋다’에서는 조승구가 갑상선암을 이겨낸 이야기를 전했다. <br/> <br/>조승구는 2007년 갑상선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생황을 이어오고 있었다. 갑상선암으로 투병하면서 조승구는 말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br/> <br/>하지만 아내의 극진한 내조로 그는 현재 갑상선 암 완치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이에 누리꾼들은 “ppyy\*\*\*\* 건강이최고입니다” “kymi\*\*\*\* 미모도 이쁜데 맘도 내조도 잘하시네요 두분다 건강하시고 좋은일만 있길바래요 새해복많이받으시고여” “pigi\*\*\*\* 축하합니다 아프지 않게 건강 유의하시고 노래교실 재능기부도 부탁해요” “j530\*\*\*\* 완쾌되신거 축하드리고 좋은노래 많이불러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무대에서신거 축하드립니다.아내분 진짜 대단하십니다.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이슈팀 ent1@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07.txt

제목: 혈액검사로 암세포 전이 가능성 확인  
날짜: 20170125  
기자: 이보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25194956001  
ID: 01100701.20170125194956001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국내 연구진이 혈액검사만으로 암세포 전이 가능성과 수술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br/> <br/>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생명과학부 조윤경(46·왼쪽 사진) 교수팀이 암조직에서 떨어져 나와 혈관을 순환하는 종양세포를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부산대병원 박도윤(47·오른쪽)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br/> <br/>연구팀은 혈액을 마이크로 필터로 걸러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종양세포는 남기고, 혈구세포는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수mL의 혈액에서 1분 이내에 종양세포를 95% 이상 포획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이용해 142명의 암 환자와 정상인 50명의 혈액 검사를 진행해 검출 성능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암세포를 채취해 분석하는 조직검사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br/> <br/>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08.txt

제목: "죽음을 슬퍼하지마. 그런다고 살아나지 않아" 어떤 의사의 유서  
날짜: 20170124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24114104001  
ID: 01100701.20170124114104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2년에 걸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70대 의사가 남긴 위트 있는 유서가 화제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일상으로 복귀하라는게 유서의 요지인데, 죽음을 어떻게 받아여들여야 할까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교훈이 됐다는 전언이다. <br/> <br/>지난 2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슨에 살던 케이 안 헤게스타드(72)는 2년간 골수암과 맞서 싸우다 최근 세상을 떠났다. <br/> <br/>헤게스타드의 유서를 본 가족은 어안이 벙벙했다. 비관적인 내용이 가득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유서에서 그는 살아있을 적 암과 용감히 싸우지도 않은 투덜이였다고 고백하고, 슬퍼한다고 살아나는 것도 아니므로 얼른 일상으로 돌아가달라며 가족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br/> <br/>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슨에 살던 케이 안 헤게스타드의 생전 모습. 그는 골수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재치있는 유서를 가족게 남겼다. <br/> <br/>헤게스타드의 남편 폴이 언론에 소개한 이 유서에는 실제로 “아무도 내가 용감했다고 말하지 말라”며 “정말로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쓰여있었다. 헤게스타드는 이어 “살았을 적 아프다고 끙끙대기만 했다”며 “얼마나 투덜이냐”고도 고백했다. <br/> <br/>유서는 또 “헤게스타드는 일찍 세상을 뜨기를 원했지만 가족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물론 그 덕분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할 수는 있었다” 등의 글도 적혔다. <br/> <br/>농담 같은 유서지만 가족에게 고마워하는 헤게스타드의 마음도 스며들었다. 그는 “우리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며 “시누이와 삼촌 그리고 다른 친지들 응원 덕분에 인생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었다”고 했다. 유서를 읽는 가족의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을 우려했는지 “응원해준 분들의 이름을 나열하자면 유서가 3배는 길어질 것”이라며 “누가 여기에 언급될지 본인들은 안다”며 재치 만점의 글로 감사함을 표했다. <br/> <br/>  헤게스타드의 생전 모습. 그는 유서에서 “내가 죽은 걸 슬퍼하지 말라”며 “그런다고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br/> <br/>아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성적 소수자를 위한 커뮤니티에서도 활동하는 등 생전 헤게스타드는 정이 많았다고 한다. 그는 유서에서도 인생에서 만나온 사람들이 모두 그리울 것이라고 전해 훈훈함을 안겨줬다. <br/> <br/>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남은 사람들을 위로하려 했던 헤게스타드의 유서에 누리꾼들은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많은 이들은 “그는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승자 같다”며 “평화롭게 잠들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한 네티즌은 “<span class='quot0'>헤게스타드와 같은 처지에 놓인다면 나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span>”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영국 데일리메일 캡처

언론사: 세계일보-3-509.txt

제목: 여성 암 환자에 메이크업·피부관리 노하우 전수  
날짜: 20170124  
기자: 김기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24030339001  
ID: 01100701.20170124030339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1945년 창립 이래 인류 공헌에 대한 염원을 담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화장품 및 녹차 산업을 이끌어 왔다. 우선 고객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왔다. ㈜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활동은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후원하는 부문과 직접 참여하는 부문으로 나뉜다. 2008년부터 시작된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AMOREPACIFIC Makeup Your Life)’는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 암환우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헤어연출법 등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환우들이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내면의 아름다움과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br/> <br/> <br/> 지난해 5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행사에서 한 여성이 화장을 받고 있다. <br/>아모레퍼시픽 제공2016년까지 총 1만1078명 여성 암환우 및 4033명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자가 참가할 정도로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다. <br/> <br/>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10.txt

제목: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영양담은 구지뽕 음료 개발 특허 출원  
날짜: 20170123  
기자: 안원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23111709001  
ID: 01100701.2017012311170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사)경남한방약초연구소는 구지뽕 음료와 그의 제조방법을 개발하고 이들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23일 밝혔다. <br/> <br/>연구소가 개발한 꾸지뽕 음료는 산청 한방 구지뽕 영농조합법인과 공동 노력한 결과물로 열을 가해 추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저온착즙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br/> <br/>또 인공적인 향, 색소, 방부제 처리를 하지 않아 꾸지뽕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구지뽕은 암, 비만, 당뇨 등에 효능이 있는 약용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열매와 잎의 비율에 따라 효능이 달라진다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br/> <br/>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11.txt

제목: ‘생의 끝’에서도 갈등… 화해할 수 있을까  
날짜: 20170122  
기자: 권구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22204538001  
ID: 01100701.20170122204538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23일 오후 10시45분 EBS1 ‘달라졌어요’는 남편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는 말기암 아내의 이야기를 전한다. <br/> <br/>결혼 43년 차 김영준(71)·김혜숙(68·여)씨 부부. 휠체어가 없으면 이동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 살뜰히 챙기는 영준씨의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금실 좋은 부부다. 그러나 혜숙씨는 43년 동안 남편과 좋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 지난해 9월 혜숙씨가 말기암 판정을 받자, 영준씨는 병간호를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 이후 부부는 하루 종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부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br/> <br/>영준씨와 혜숙씨는 44년 전 중매로 만나 결혼했다. 성실한 영준씨와 싹싹한 성격의 혜숙씨는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렸다. 그 덕에 자식들은 장성해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던 중 혜숙씨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서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다행히 혜숙씨는 고비를 넘겼지만, 남편과의 갈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br/> <br/> <br/> 23일 EBS1 ‘달라졌어요’는 남편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는 말기암 아내의 이야기를 전한다. <br/>EBS 제공혜숙씨가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은 이중적이다. 남편이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지만, 집에만 오면 돌변하기 때문이다. 남편은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었다. 결혼 초, 남편은 늘 늦은 시간 귀가했다. 양육에도 방관적이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던 혜숙씨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남편의 외도 정황이었다. 혜숙씨는 몸이 불편해지면서 남편의 도움이 필요한 처지가 되자, 하루 종일 붙어 지내면서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있다. <br/> <br/>영준씨는 아내의 병간호를 하면서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영준씨는 평생 집과 회사밖에 몰랐던 사람이다. 그런 영준씨는 아내로부터 외도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영준씨를 믿지 못한 아내는 집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회사까지 따라다녔다. 영준씨는 아내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길 바라지만, 손이라도 잡으려 하면 아내는 매몰차게 뿌리친다. 더 잘하라는 아내의 말에 영준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br/> <br/>권구성 기자 ks@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12.txt

제목: "의사 안할거야"…중국 열악한 처우로 의사 기피  
날짜: 20170121  
기자: 남혜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21120431001  
ID: 01100701.20170121120431001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평균 수명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대시키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복지 계획이 위기에 처했다. 열악한 처우로 의사가 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중국사회에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br/> <br/>파이낸셜타임스는 19일(현지시간) 중국이 5년 내에 현재 의료 인력을 현재의 40% 정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적은 월급과 과도한 업무 때문에 의대 졸업생들 직업 바꾸는 경우 많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br/> <br/> .중국 국무원은 지난주 ‘건강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국민의 평균 수명을 77.3세까지 증가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인구 1000명당 1.5명에 해당하는 의사 수를 1000명당 2명으로 늘리고자 한다. 브라질과 영국의 의료 인력은 인구 1000명당 각기 1.9명과 2.8명임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다. 또 최근 ‘한가구 한자녀’ 정책을 철회하고 자녀 2명까지 허용하면서 늘어난 산부인과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산과전문의와 산파를 14만명까지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br/> <br/>최근 조사결과는 의료진의 인력 증대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만 국립 양밍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대학에서 2015년까지 10년간 470만명의 의대 졸업생이 배출됐지만 실제 의사가 된 것은 16%에 못미치는 75만명으로 나타났다.  <br/> <br/>중국에서 의사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직종에 속한다. 중국에서 의사들의 평균 월급은 720달러다. 안젤라 팬 양밍대 연구원은 “<span class='quot0'>미국의 젊은 의사들(월급)에 비교하면 극도로 불만족스러운 금액</span>”이라고 지적했다. 업무 강도 역시 과하다. 중국 의사들은 한시간에 12명이 넘는 환자를 담당해야하고 때로는 치료에 불만족한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공격할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한다. <br/> <br/>의사 수의 부족은 시골지역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 시골지역에는 외과나 소아과 같은 전문의 50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11년 사이에 절반이 넘는 소아과 전문의가 저임금과 높은 업무 강도로 일을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중국 역시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는데다가 암이나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이 사태는 보건정책에 악영향을 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사진=웨이보 <br/>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13.txt

제목: "저마다의 사정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요"  
날짜: 20170120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20185705001  
ID: 01100701.20170120185705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br/> <br/> 전혀 닮지 않은 캐릭터를 보고 자기 자신이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 이는 강민경 작가에 대해 기자가 받은 첫인상이었다. <br/> <br/>아트와 포토, 일러스트레이션을 모두 아우르는 '아트포레이션 작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강 작가는 스스로를 '토부'라고 소개했다. <br/> <br/>하얀 이를 잔뜩 드러내고 환하게 웃는 소녀의 이름도 토부란다. <br/> <br/>처임엔 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와의 대화가 이어질수록 앞서 가졌던 궁금증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br/> <br/>토부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닌, 그의 삶과 꿈을 대변하는 존재였다. <br/> <br/>그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다시 일어날 힘을 준 고마운 존재이기도 했다. <br/> <br/>마냥 웃고 있는 듯하지만 내면엔 깊은 고독과 아픔 또한 가지고 있는 소녀 '토부'. 토부와 강 작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br/> <br/>강 작가의 마음 깊숙한 곳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봤다. <br/> <br/>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강 작가는 주변의 모든 공간을 그림으로 채우곤 했다. <br/> <br/>연습장과 교과서뿐 아니라 달력과 명세서 등에도 그림을 그렸다. 그에게 있어 그림은 곧 자기 자신이었다. <br/> <br/>성인이 된 후에도 그는 1세대 캐릭터 작가로 활동했고,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 컨셉트를 개발하는 등 늘 그림과 함께 살았다. <br/> <br/>하지만 평화로웠던 그의 일상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남편의 암 선고에 의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다. <br/> <br/>지극정성으로 간호했지만 남편은 결국 강 작가의 곁을 떠났고, 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절망에 속에서 점점 피폐해져 갔다. <br/> <br/>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 시절, 강 작가를 위로해준 것은 다름아닌 그림이었다. <br/> <br/>강 작가는 그 동안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슬픔과 고민, 고독, 복잡한 마음들을 오롯이 토부에게 풀어냈다. <br/> <br/>"<span class='quot0'>우르르 쾅쾅, 비가 온 뒤에는 말야…두근두근 설레는 맑은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언제나 기억해.</span>" <br/> <br/>해맑게 웃고 있는 소녀에게 해준 이 말은 사실 강 작가가 스스로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였다. <br/> <br/>토부의 소녀는 그렇게 탄생했다. <br/> <br/> 그는 소녀를 통해 위로를 받으며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br/> <br/>이후 강 작가는 하나 둘씩 쌓인 토부의 그림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다. <br/> <br/>그런데 전시 도중에 그는 신기한 점을 발견했다. 토부의 모습을 본 관객들이 하나같이 즐거운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었다. <br/> <br/>그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 관객에게 왜 웃으시는지 물어봤다. 그러자 그 할머니는 "삶이 참 빡빡하고 힘든데, 이 그림을 보면 그냥 웃음이 나와" "못생긴 여자애가 참 행복해 보여서 나도 웃게 돼"라고 답했다. <br/> <br/>강 작가는 "<span class='quot1'>토부를 통해 나만 위로받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span>"고 말했다. <br/> <br/>토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활약하고 있다. 토부는 이미 캐릭터 상품화가 진행됐고, 지금도 여러 업체들과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br/> <br/>그의 바람은 토부를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고 희망을 전하는 것이다. <br/> <br/>또한 강 작가는 토부를 통해 얻은 수익을 호스피스 병동이나 암환우들의 모임에 기부하며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주는 꿈을 꾸고 있다. <br/> <br/>강 작가는 올해에도 토부의 사진을 모은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전시회의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다. <br/> <br/>그는 "어떤 상황이든 각자가 처한 상황이 있을 테고, 저마다 가진 아픔과 힘든 것들이 있을 것"이라며 "나 또한 그랬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설명했다. <br/> <br/>사랑을 통해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검은 구름들을 극복하고 지나가자는 것이다. <br/> <br/>그러면서 강 작가는 "<span class='quot1'>남녀 간의 사랑이든 일과의 사랑이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느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span>"고 밝혔다. <br/> <br/>해맑은 미소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소녀 토부. 과연 토부가 이번엔 사랑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br/> <br/>인생의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는 많은 이들이 토부의 미소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고 힘을 낼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br/> <br/>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14.txt

제목: [이광형의 미래학 향연] ‘AI 의사’ 출현 의료혁명… 인간 의사보다 더 신뢰  
날짜: 20170119  
기자: 황온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19090702001  
ID: 01100701.2017011909070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최근 인간의 가치관 변화에 대해 상당히 놀라운 기사가 떴다. 인천 길병원은 지난해 11월 중순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의사 왓슨을 도입해 진료를 시작했는데, 약 2개월간의 진료결과를 발표했다. 길병원은 의료진과 왓슨의 처방을 비교하며 진료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대장암·위암·폐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5개 암 환자 85명에 대한 처방 내용을 공개했다. 그런데 환자들은 인간 의사보다 AI 의사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br/> <br/>◆인공지능 의사의 처방을 더 신뢰하는 환자 <br/> <br/>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암 치료에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술을 먼저 할지, 항암제를 먼저 써서 암 크기를 줄여 놓고 수술을 할지, 수술 대신 방사선 치료를 할지 등 여러 선택이 존재한다. 그런데 인간 의사와 AI 왓슨이 서로 다른 처방을 제시했을 때, 환자들은 AI 의사의 처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필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약 6개월 전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과학특강을 하면서 약 200명의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 “내가 피고가 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다. 인간 판사와 AI 판사를 선택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이 있다. 어느 판사를 원하겠는가·” 약 60%의 학생이 AI 판사에 손을 들었다. 이어 또 다른 질문을 해봤다. “인간이 운전하는 택시와 AI 택시가 있다. 어느 택시를 탈 것인가·” 50%가 AI 택시를 선택했다. <br/> <br/>◆가치관의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br/> <br/>가치관이란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점이라 말한다. 철학의 목적이 가치관의 정립이라 할 정도로 가치관은 철학의 중요한 주제이다. 나는 세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상이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이렇게 대응한다는 식의 세상을 상대하는 나만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인간의 가치관을 논할 때에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상대주의’와 ‘절대주의’가 그것들이다. 상대주의는 인식이나 가치의 판단에 있어 상대성을 주장하는 관점이다. 상대주의는 인식과 가치 판단 과정에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5세기경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피타고라스가 말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주장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척도를 정하고, 그 척도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는 말이다. 이에 반해 절대주의에서는 절대적 개념이나 판단의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br/> <br/>◆세계관과 인생관 <br/> <br/>상대주의와 절대주의 사이의 논쟁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앞 단계의 주제인 ‘세계관’과 ‘인생관’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관은 세상은 어떻게 돼 있다고 인식하는 관점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과학적 지식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인간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천동설과 지동설, 무신론과 유신론, 진화론과 창조론, 그리고 우주선,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등에 관한 지식은 세계관을 형성하게 해준다. 따라서 새로운 과학적인 현상을 알게 되면 세계관이 바뀌게 된다. 인생관은 주어진 세계 속에서 나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관점이다. 나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나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어떤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다. 나는 장애인인가 아닌가. 나는 부유한가 아닌가. 질병이 있는가 없는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여성인가 남성인가 등에 대한 나 자신의 입장을 확립하는 것이다. 인생관은 세계관을 토대로 형성되기 때문에 세계관이 바뀌면 인생관도 바뀔 수 있다. <br/> <br/>◆세계관이 변하면 가치관도 변화 <br/> <br/>우리의 세계관은 서로 같을 수 있다.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별로 그 세계를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세계관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과학의 발전에 따라 세계관은 변할 수 있다. 한편 모든 사람의 인생관은 같을 수 없다. 사람마다 출신이 다르고 성장배경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치관 역시 같을 수 없다. 그러나 인생관과 가치관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같은 사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유사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뀌면서 가치관이 변화한 사례도 볼 수 있다. 죽음 후에 환생을 믿는 세계관 속에서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고, 또한 산 사람을 함께 묻는 순장이라는 장례 풍습이 가능했다. 아기를 잉태하는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던 시절에는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삼신할머니에게 지성을 드리기도 했다. 그 외에도 교황청의 면죄부, 일부 왕족 사이의 근친결혼, 대원군의 쇄국정책 등은 세계관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가부장적인 가정, 남아 선호사상, 귀족과 하인의 차별, 노예제도와 인종차별 등에 관한 입장의 차이는 인생관에 따른 가치관 변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위안부와 소녀상에 대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식의 차이, 달팽이나 개고기를 먹느냐 여부도 인생관에서 비롯된 가치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가치관도 세계관과 인생관이 변하면 바뀔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br/> <br/>◆인간의 가치관을 바꾸는 의사 왓슨의 능력 <br/> <br/>왓슨은 미국 IBM이 개발한 AI 컴퓨터다. 2011년 왓슨은 TV 퀴즈쇼 ‘제퍼디’에 참가해 퀴즈 챔피언을 상대로 승리하여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그 후 왓슨은 암 진단을 비롯해 모바일 상거래 서비스, 호텔리어, 변호사, 요리사, 휴대전화 매장 직원 등의 업무를 학습해왔다. 길병원이 도입한 것은 퀴즈 대회에 나갔던 왓슨이 의사 훈련을 받은 AI이다. 90종의 의학저널, 200종의 의학교과서, 1200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정형·비정형 의료데이터를 학습했다. 현재 사람 의사의 암 진단 정확도가 50∼60%인 데 반해 왓슨의 정확도는 90%에 가깝다고 한다. 이제 AI 의사의 처방을 더 신뢰하는 환자의 판단은 이해가 간다. AI 의사의 오진율이 훨씬 적다는 과학적인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자동차와 달리기 시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컴퓨터와 암산 시합을 하지 않는다. 수천만 원을 인터넷으로 송금해도 불안하게 느끼지 않는다. 운전원이 없는 지하철이 70㎞로 달려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1000m 상공에서 자동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표를 산다. 인간이 잘하는 것과 기계가 잘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생각을 정리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환자를 진단하는 데 컴퓨터와 경쟁하려는 의사는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인식되는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br/> <br/>◆가치관을 바꾸는 기술 <br/> <br/>이제 가치관의 상대주의와 절대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인간 사회에는 불변의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한다. 살인과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가치관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의 상당히 많은 가치관은 시간이 흐르고 과학이 발달해 세계관이 바뀌면 변화하게 될 것 같다. 즉, 절대주의 가치관도 있지만 상대적인 가치관도 만만치 않게 많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용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전자투표는 안전성에 대한 의문 때문에 선거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유전병 인자를 제거한 인간은 비윤리성 때문에 태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언젠가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들이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결정에 AI의 판단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미래 가치관의 변화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br/> <br/>이광형 KAIST 바이오뇌공학과 교수 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언론사: 세계일보-3-515.txt

제목: 인생의 모든 흔적은 ‘상흔’ 길을 잃어도 두렵지 않아  
날짜: 20170119  
기자: 조용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19211017001  
ID: 01100701.20170119211017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소설가 정미경씨가 18일 오전 4시 떠났다. 향년 57세. 한 달 전 갑자기 돌이킬 수 없다는 암 선고를 받은 후 남편 김병종(서울대 미대 교수)과 내내 가까이서 대화를 나누다가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떠났다고 한다. 정미경은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폭설’이, 2001년 ‘세계의 문학’에 단편 ‘비소 여인’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06년 ‘밤이여, 나뉘어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녀의 작품세계는 따스한 위로의 정서가 지배하는 편이다. 동양화가인 남편 김병종과의 이화여대 기숙사 시절 연애편지 한 대목이 그녀를 표현하기에 적합할까. 남편은 이렇게 썼고,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br/> <br/>“날이 차오. 혹 생떽스의 글을 생각해본 적 있소· 우리를 무참히 죽여가는 것은 암울한 계절의 어두운 강에 다리가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던 사람. 그 다리의 이름은 휴머니즘이라고. 소등한 밤에 마지막 문을 닫고, 내 구두소리가 내는 소리를 들으며 낭하를 걸어나갈 때 춥고 검은 우수를 한 번씩은 경험하곤 하오. 가을날에 비하면 겨울은 아무리 순해도, 내면에 아문 상처의 잇자국을 남길 수 있는 계절인 것 같으오.” <br/> <br/>“안녕. 책을 읽다 잠시 덮어두고, 그리운 이에게 편지를 씁니다. 책 글줄 사이로 문득문득 그의 웃는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종교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학교 채플시간에 …나는 그가 있는 내 삶에 감사드렸습니다. 어쩌면 나의 고개 숙임은 신앙이라기보다 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나도 그만큼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아무래도 아직은 그 사람 속에 내가 있는 느낌인 것입니다. …안녕, 내 귀여운 바보.” <br/> <br/>1981년 12월 저들이 주고받은 편지이다. 저들의 편지가 따스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녀의 삶과 이별하는 태도 때문에 더욱 그러할지 모른다. 그녀는 급작스럽게 닥친 죽음의 예감을 소문내지 않았고, 자녀의 결혼식마저 스산해진 몰골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10년 전 소설집 ‘발칸의 장미를 내게 주었네’를 펴냈을 때 썼던 서평 기사를 떠올리며, 한 세상 잠시 머무르다 좋은 소설을 남기고 간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다. <br/> <br/>- 그냥 살아도 힘든 세상, 힘들게 살아가는 인물과 어두운 세상의 진상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사실 생을 따뜻하게 껴안으려는 역설의 몸짓이다. 행진곡보다 레퀴엠에서 더 위로받을 때가 많지 않은가. 뒤늦게 등단해 ‘오늘의 작가상’ ‘이상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미경씨는 “<span class='quot0'>모든 흔적이 상흔(傷痕)임을 알게 된다면 길을 잃는 것도 그리 두렵지 않을 것</span>”이라고 작가의 말에 적었다. <br/> <br/>조용호 문학전문기자

언론사: 세계일보-3-516.txt

제목: [양향자의 The 건강한 음식] 칼슘·무기질 풍부… 서양선 '채소고기'  
날짜: 20170119  
기자: 송은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19131215001  
ID: 01100701.20170119131215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서양에서는 새송이버섯을 채소고기라고 부른다. 그만큼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다는 말이다. 새송이버섯은 버섯 중 비타민C의 함량이 느타리버섯의 7배, 팽이버섯의 10배로 가장 높다. 비타민C는 피부미용과 노화방지에 좋고 위의 기능을 향상시켜준다.  <br/> <br/>새송이버섯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활동을 도와준다. 이 때문에 설사 예방에도 좋은 효능을 보인다. 새송이버섯은 다른 버섯들과는 달리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수분 함량이 많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짧지만 섭취하게 되면 몸에 부족한 수분을 채워주어 탈수증상을 예방해주고 포만감을 크게 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또한 수분섭취로 인해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 <br/> ▲새송이 맑은국 <br/>재료 :새송이 3개, 쪽파 3줄기, 홍고추 2개, 국간장 1과 1/2큰술, 소금 약간, 다진 마늘 1/2큰술, 다시마물 5컵 <br/>만드는 법 <br/>① 새송이는 깨끗이 씻어 얇고 길쭉하게 잘라준다. <br/>② 냄비에 다시마물을 넣고 끓인 후 국간장, 소금, 다진 마늘을 넣어 간을 맞춘다. <br/>③ 쪽파는 3㎝ 길이로 썰고, 홍고추는 어슷 썬다. <br/>④ 그릇에 송이, 쪽파, 홍고추를 보기 좋게 담고 ②의 국물을 부어 완성한다. <br/>이외에도 새송이버섯에는 칼슘 성분과 무기질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칼슘은 골다공증 예방 및 뼈의 기능을 강화시켜주어 꾸준히 섭취한다면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아주 좋은 영양 성분 중 하나다. 무기질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여 암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이다. <br/> <br/>게다가 새송이버섯은 산성 성분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어 위액의 과다분비로 인한 속쓰림을 줄여주기도 한다.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속쓰림이 잦은 사람들은 꾸준히 섭취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새송이버섯은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다. 구이, 볶음, 조림, 국, 튀김 등 향과 식감이 튀지 않고 무난하여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한 식재료이다.  <br/> ▲새송이버섯 고기 말이 <br/><재료> 쇠고기편(3㎜ 두께) 200g, 새송이버섯 3개, 간장 2큰술, 다진 파와 다진 마늘 각 1큰술, 호두 30g, 후추와 소금 약간씩, 새싹채소 약간 <br/>스테이크소스= 버터 10g, 양파 1/2개, 다진 마늘 1큰술, 레드와인 60㎖, 설탕과 타바스코 1큰술, 우스터소스 3큰술, 케첩 4큰술, 소금과 후추 약간씩 <br/><만드는법> <br/>① 쇠고기를 간장 양념에 재운다. <br/>② 호두는 씹힐 만큼 굵게 다져서 팬에 구운 후 소금을 살짝 뿌려 둔다. <br/>③ 달군 팬에 고기를 볶아서 한 김 식혀 둔다. <br/>④ 새송이버섯은 얇게 잘라 팬에 구워 준다. <br/>⑤ ④를 깔고 볶은 고기와 새싹, 호두를 넣고 말아 꼬치를 꽂아 준다. <br/><스테이크소스 만들기> <br/>① 양파와 마늘은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버터에 볶는다. <br/>② 노릇하게 익었으면 레드와인을 넣고 끓여 준다. <br/>③ 알코올이 날아가면 나머지 소스 재료를 넣어 은근한 불에서 걸쭉해지도록 끓인 후, 소금과 후추로 간한다. <br/>새송이버섯을 고를 때는 마르지 않고 줄기가 길고 굵으며 아래로 갈수록 통통하고 속이 꽉 차 있는 것이 좋다. 만져보았을 때 단단하고 갓이 피지 않았다면 좋은 버섯의 조건을 갖춘 것이라 볼 수 있다. 보관할 때는 마른 신문지로 잘 감싼 뒤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좋다. <br/> <br/>(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언론사: 세계일보-3-517.txt

제목: 美 연구팀, '칼로리 섭취와 수명과의 관계' 30년 만에 '있다'로 결론  
날짜: 20170118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18201624002  
ID: 01100701.20170118201624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칼로리 섭취와 수명과의 관련성을 두고 지난 30여 년간 이어온 연구와 실험 그리고 분석 끝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18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br/> 칼로리 섭취를 제한한 원숭이(좌)와 양껏 먹이를 준 원숭이(우). 노화의 진행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대 연구팀과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측은 17일(현지시간) 영국 네이처지에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br/> <br/>연구팀은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붉은털원숭이를 대상으로 칼로리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며 수명과의 관련성을 두고 상반된 결과를 발표해 학문적인 공방을 최근까지 이어왔다. <br/> <br/>그러던 중 실험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 칼로리를 제한한 원숭이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원숭이보다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두 연구팀은 연령대가 서로 다른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해 결과가 상반됐다. <br/> <br/>연구팀은 원숭이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에는 풍족할 만큼의 먹이를 제공하고, 다른 한쪽에는 먹이를 제한해 원숭이들의 수명과 성인병 발병 등을 비교 분석했다. <br/> <br/>그 결과 칼로리 섭취량을 30% 줄인 원숭이 집단이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r/> <br/>단, 칼로리 섭취 제한은 유년~청년기에 해당하는 나이(1~14살)에 시작한 원숭이 집단에게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중년기에 해당하는 나이(16~23살)인 원숭이들에게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한 수컷은 전체 평균수명보다 9년 긴 35년을 살았다. <br/> <br/>또 연구팀은 죽은 원숭이를 해부해 질병 발병 등을 조사한 결과 칼로리 섭취를 제한한 시기나 암수구별과는 관계없이 제한을 둔 원숭이 집단에서 암 발생률이 15~20% 낮았고, 당뇨병, 뇌졸중 등 노화와 관련된 질병의 발병이 늦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br/> 칼로리 섭취를 30% 줄인 원숭이가 더 오래 살았으며, 성인병 발병도 늦게 나타났다. 특히 암 발병률은 약 15~20% 낮았다.일본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소 이시가미 아키히토 연구부장은 "30년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수십 년간 이어온 칼로리와 수명과의 연구는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br/> <br/>이번 연구결과는 영국 과학저널 네이처지 최신호에 게재됐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아사히신문 캡처

언론사: 세계일보-3-518.txt

제목: "내 아이의 양부모가 되어주세요"  
날짜: 20170118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18105311001  
ID: 01100701.20170118105311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을 대신해 아들을 돌봐줄 양부모를 찾던 한 남성의 사연이 영국 메트로 등 현지 언론에 소개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br/> 현재 로건은 새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골육종(뼈에 발생하는 암)을 앓던 닉 로즈(40)씨. <br/>그는 아들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힘든 항암 치료를 견뎌 왔지만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br/> <br/>노력했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어야만 했던 그는 자신도 걱정됐지만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게 될 아들 로건(4)의 미래를 고민하게 되고, 죽기 전 자신을 대신해 아이를 돌봐줄 가족을 찾아주는 데 마지막 남은 힘을 쏟게 된다. <br/> <br/>아이를 낳고 집을 나간 아내를 대신해 홀로 아들을 돌봐온 그는 아들에게 유일한 가족이었기 때문이다. <br/> <br/>닉은 아들이 자신 없는 세상에서도 부모에게 사랑받으며 자라길 원했다. 또 자신의 눈으로 아들을 사랑으로 돌봐 줄 새 가족을 보고 싶어 했다. <br/> <br/>그는 고된 치료 일정에도 아들 로건을 입양해 줄 가족을 찾아다녔고, 그렇게 약 두 달여 간의 노력 끝에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로건을 자신처럼 아끼고 돌봐줄 양부모에게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br/> <br/>닉의 지인은 “<span class='quot0'>그에게 아들은 삶 그 자체였다</span>”며 “<span class='quot0'>아들을 위해 양부모를 찾는 일에 남은 시간을 썼다</span>”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마 하늘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r/> 그는 아들의 양부모와 인사한 후 지난 3일 세상을 떠났다.한편 현재 로건은 새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안타까운 부자의 소식이 전해져 학비 등을 위한 모금이 진행되고 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메트로 캡처

언론사: 세계일보-3-519.txt

제목: 日 암 앓는 또래 위해 머리카락 기부한 소년 "놀림 받아도 괜찮아요"  
날짜: 20170118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18100153001  
ID: 01100701.20170118100153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항암 치료로 탈모 증세를 겪는 사람들을 위해 머리카락을 기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기부자들을 대표해 11살 소년의 따뜻한 마음을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이 소개했다. <br/> 머리카락을 기부한 기무라 히토시 군.보도에 따르면 일본 치바현 후나바시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기무라 히토시(11) 군은 지난해 5월 약 40cm 정도 되는 머리카락을 기부했다. <br/> <br/>기무라 군의 기부는 이번이 두 번째로 4살 때 친척의 사진을 보고 놀란 것이 계기가 됐다. <br/> <br/>당시 기무라 군의 친척은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진 상태로, 사진을 보고 놀란 기무라 군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부모에게 도울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다.  <br/>그리곤 유치원 때 약 2년 반간 머리카락을 길러 32cm 정도의 머리카락을 기부했다. <br/> <br/>기무라 군은 “화장실에 들어가면 여자아이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왔다고 어른들의 주의를 받았고 친구들이 여자 같다고 놀리기도 해 힘들었다”며 “하지만 머리카락이 없는 친구들이 더 힘들 것으로 생각해 머리를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br/> <br/>그러면서 “내 머리카락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 산타가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br/> <br/>머리카락을 기부받아 가발을 만들어 전달하는 사회복지법인 JHDAC 대표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암을 앓는 아이들에게 가발을 전달하고 있다.  <br/> 사회복지법인 JHDAC 측은 머리카락을 기부받아 가발이 필요한 아이들게 제공한다.1대표 역시 미용사로 근무하며 기부를 이어갔던 사람으로 그는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는 결심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아직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아사히신문 캡처

언론사: 세계일보-3-520.txt

제목: 만성 질환자 자살 위험 일반인보다 높아  
날짜: 20170116  
기자: 김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16193021002  
ID: 01100701.20170116193021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 환자 등 만성질환자는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br/> <br/>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박기호 교수 연구팀은 제5차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년) 자료 중 19세 이상 1만9599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의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br/> <br/>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은 만성질환 환자가 일반인보다 1.16배 높았다. 2가지 이상의 질환을 가진 경우 1.2배로 늘었다. 질환별로는 뇌졸중 환자가 1.8배, 골관절염 환자가 1.3배 높았다. 자살을 시도한 경험은 암 환자가 일반인보다 3.3배 많았다. 다른 질환도 골관절염 2.1배, 협심증 3.9배, 신부전 4.9배, 폐결핵 12.5배 등 질환별로 차이를 보였다. <br/> <br/>박 교수는 “<span class='quot0'>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은 삶을 지속하려는 의지 자체를 흔들 수 있으며 질병의 종류에 따라 심각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span>”며 “<span class='quot0'>만성질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스트레스 관리 등 심리적 문제 해결을 돕는 통합적 지지 의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 <br/>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21.txt

제목: 김경숙 전 학장 영장… 정점 치닫는 이화여대 수사  
날짜: 20170115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15110910001  
ID: 01100701.20170115110910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사건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br/> <br/>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 입시비리 등을 주도한 김경숙(62·사진)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학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br/> <br/>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학장은 정씨가 이대의 2015학년도 체육특기생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입시를 담당한 교수들에게 “<span class='quot0'>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인 승마선수를 뽑으라</span>”고 노골적인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학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span class='quot0'>최씨와 정씨 모녀를 잘 모르고, 정씨에게 특혜를 준 적도 없다</span>”며 거짓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r/> <br/>특검팀은 앞서 김 전 학장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해 혐의 대부분을 확인한 상태다. 특검팀은 김 전 학장이 암으로 투병생활을 했고 현재 항암치료 중인 점도 감안했으나, 몸 상태가 수감생활을 못 견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br/> <br/>특검팀은 앞서 정씨 입시비리 및 학점 특혜 혐의로 구속한 류철균(필명 이인화)·남궁곤 두 이대 교수보다 김 전 학장의 죄질이 더 무거운 점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학장은 지난 13일 특검팀에 2번째로 출석하며 “<span class='quot0'>두 분 교수의 구속에 가슴이 아프다</span>”고 말한 바 있다. <br/> <br/>김 전 학장이 구속되면 정씨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 사건으로 구속된 이대 교수는 3명으로 늘어난다. 특검팀은 비리의 정점에 최경희(54) 전 이대 총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최 전 총장이 최씨와 정씨 모녀를 총장실에서 만나 학사관리 등에 대한 청탁을 듣고, 이대 교수들에게 “정씨에게 학점을 잘 주라”고 지시한 정황이 특검팀에 포착된 바 있다. 특검팀은 최 전 총장도 조만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업무방해와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br/> <br/>김태훈·권지현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22.txt

제목: '짧은 머리'로 암 환자 엄마 위로한 딸…"우리는 쌍둥이"  
날짜: 20170113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13112858001  
ID: 01100701.20170113112858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암 환자 엄마를 위해 머리를 짧게 깎은 미국 여성의 아름다운 마음이 뒤늦게 공개돼 네티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br/> <br/>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주에 살던 레베카 슬리빈스키는 대학원 생활을 위해 조지아주로 떠난 후, 엄마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r/> <br/>항암치료로 머리카락이 거의 빠진 엄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레베카는 지난달 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엄마를 위해 빨간 스카프 한 장을 선물로 준비했다. <br/> <br/>침대에 앉은 레베카의 엄마는 “눈 감으세요”라는 딸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br/> <br/>잠시 후, 눈 뜬 레베카의 엄마는 딸이 내민 스카프를 보고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레베카는 더 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br/> <br/>  스카프를 바라본 레베카의 엄마. <br/> <br/>스카프에서 눈을 떼고 레베카를 바라본 엄마는 “세상에”라고 외쳤다. 모자를 벗은 딸의 머리가 자기처럼 매우 짧았기 때문이다. <br/> <br/>레베카의 엄마는 “네가 이렇게 하다니 믿을 수 없구나”라며 “언제 이렇게 머리카락을 자른 거니”라고 물었다. 그는 아름다웠던 딸의 긴 머리카락을 그리워하는 동시에 자기처럼 짧게 잘라야 했던 레베카의 속마음을 생각하듯 매우 안타까워했다. <br/> <br/>결국 모녀는 서로를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br/> <br/>  서로를 안고 울음을 터뜨린 모녀. <br/> <br/>눈물을 닦은 레베카는 “<span class='quot0'>엄마보다 더 먼저 머리를 짧게 잘랐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동안 비밀로 유지하느라 힘들었다</span>”고 말했다. 정말 먼저 잘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엄마를 위로하려는 딸의 마음이 엿보인다. <br/> <br/>그러면서 레베카는 “<span class='quot0'>우리는 이제 쌍둥이가 됐어요</span>”라고 한 번 더 쓰린 엄마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영국 데일리메일 캡처

언론사: 세계일보-3-523.txt

제목: 암· 시력장애· 사지마비시 장애연금, 지금보다 빨리 지급돼  
날짜: 20170113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13100829001  
ID: 01100701.20170113100829001  
카테고리: 사회>장애인  
본문: 국민연금 가입 과정 중 시력장애, 백혈병 등의 장애가 발생하면 지금보다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br/> <br/>13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 행정예고하고 2월 2일까지 의견수렴 뒤 고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br/> <br/>복지부는 시력 장애와 사지마비(루게릭병 등), 혈액·조혈기 질환(급성골수성백혈병 등), 악성신생물(암) 등 4개 장애에 대한 국민연금 장애심사 판단 기준을 개선했다. <br/> <br/>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은 이들 질병·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가입자에게 장애연금을 주기 전 장애등급을 매길 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장애 정도를 심사했다. <br/> <br/>그러나 이번에 완치일 시점을 초진일로부터 6개월~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br/> <br/>눈과 관련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에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눈에 이상 증상(시력저하, 시야감소)이 나타날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24.txt

제목: '정유라 특혜' 김경숙 전 학장, 14시간 조사받고 귀가  
날짜: 20170113  
기자: 남정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13011330001  
ID: 01100701.20170113011330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둘러싼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1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학장은 이날 오후 11시 35분께 조사가 끝나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침부터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br/> <br/>김 전 학장은 귀갓길에 만난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으나 '정유라씨의 입학 특혜를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요"라며 부인했다. '위증한 적이 없는가'라는 질문에도 "없습니다"고 답했다. <br/> <br/>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전 학장은 이대가 정씨에게 온갖 특혜를 주는 데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정씨는 2014년 9∼10월 부정한 방법으로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수업 출석과 과제 제출을 부실하게 하고도 학점을 딴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정씨에 대한 각종 특혜 과정이 최경희 전 총장의 승인 아래 김 전 학장이 주도하고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류철균(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이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궁 전 처장과 류 교수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br/> <br/>김 전 학장은 정씨에게 특혜를 준 여러 정황이 있음에도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때문에 국조특위는 9일 김 전 학장을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과 함께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김 전 학장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br/> <br/>암 투병 중인 김 전 학장은 이날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보다 확연히 초췌한 모습으로 특검팀에 나왔다. 일각에서는 김 전 학장이 구속을 면하고자 암 투병중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학장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 신병처리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처벌 결정에 김 전 학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것임을 시사했다. <br/> <br/>특검팀은 김 전 학장을 사법처리한 다음, 최 전 총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정씨에게 온갖 특혜를 준 이대가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을 다수 따내는등 반대급부를 누린 정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칼끝이 이대를 넘어 교육부와 청와대로 향할지 주목된다. <br/> <br/>남정훈 기자 ch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25.txt

제목: ‘버려진 땅’ 후쿠시마의 동물 돌보미들  
날짜: 20170112  
기자: 류영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12204958001  
ID: 01100701.20170112204958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13일 오후 8시50분 EBS1 ‘하나뿐인 지구’에서는 ‘나쁜 원전’ 2부작을 방영한다. 2부 ‘주인을 찾습니다’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남겨진 동물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2011년 봄. 거대한 쓰나미와 뒤이은 원전 사고가 일본 후쿠시마를 덮쳤다. 쓰나미로 죽거나 실종된 희생자는 약 2만명. 쓰나미와 굶주림, 살처분으로 죽어간 동물은 약 50만 마리. 원전 사고 6년이 흐른 지금 후쿠시마는 버려진 땅이 되었다. 하지만 모두가 살길을 찾아 떠날 때, 오히려 후쿠시마로 이사 온 사람이 있다. 히비 데루오씨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후쿠시마행을 결심했다. 칠십이 넘은 나이에 하루 수십 군데씩 유령 마을을 돌며, 그는 방치된 고양이와 개에게 먹이를 준다. 그의 먹이 배달은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앙상하게 마른 고양이, 6년을 하루 같이 주인만 기다리는 개 등은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눈물샘을 자극한다. <br/> <br/> 13일 EBS1 ‘하나뿐인 지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남겨진 동물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br/>EBS 제공후쿠시마 제1 원전 옆 오쿠마 마을에 살았던 고와타 마스미씨도 원전사고가 나고 석 달 뒤 방진복을 입고 반려동물을 찾으러 다시 들어왔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집에 찾아갔을 때는 너무 늦어버렸다. 고양이는 곰팡이가 핀 먹이를 앞에 두고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나마 개 한 마리가 살아 있었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였다. 병원에 데려갔지만 이미 온몸에 암이 퍼진 상태였다. <br/> <br/>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죽음의 땅에서도 계절이 바뀌고, 생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후쿠시마에 남아 있는 개와 고양이는 100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한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후쿠시마에는 아직도 동물을 구조하는 이들이 있다. 그곳에서 구조된 개와 고양이는 건강 검진을 받은 뒤 새로운 주인을 기다린다. 그러나 방사선에 피폭됐을지도 모르는 동물은 입양도 쉽지 않다. 피폭됐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도 철창에 갇힌 채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br/> <br/>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26.txt

제목: 한푼이 아쉬운때… '13월 보너스' 꼼꼼히 챙기세요  
날짜: 20170112  
기자: 이천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12194032001  
ID: 01100701.20170112194032001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4대 보험료 자료도 홈택스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구멍도 있으니 따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나 보청기·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등이 대표적이다. 방심했다가는 ‘13월의 보너스’는커녕 되레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br/> <br/> “스마트폰으로 조회해요” 12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직원들이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 받은 스마트폰으로 각종 절세 요령과 공제정보 등을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 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개통된다. <br/>세종=연합뉴스◆조회되지 않는 사각지대 ‘조심’ <br/> <br/>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부터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이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돼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br/> <br/>하지만 암과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r/> <br/>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구입·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도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일부도 마찬가지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난임 시술비는 따로 분류되지 않고 의료비에 포함돼 조회된다. 만약 배우자의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의료비에서 난임 시술비 부분만 따로 분류해야 의료비 전체 공제 한도인 700만원 적용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비는 민감한 사생활 정보여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에 포함돼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br/> <br/>◆시골에 계신 장모님도 기본공제 가능 <br/> <br/>국세청은 취업 등으로 양가 부모와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가 부모 외에 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r/> <br/>신용카드 등 공제와 관련해서는 총 사용금액 합계가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을 누리는 게 좋다. 다만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체크카드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받는 만큼 최저 사용금액을 채운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br/> <br/>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간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지출을 몰아주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유리하다. <br/> <br/>◆스마트폰으로 24시간 절세 정보 <br/> <br/>컴퓨터가 아닌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12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사흘 앞두고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를 소개했다.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에서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야 한다. 앱 초기화면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선택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거나 주의해야 할 팁 200개를 확인할 수 있다. <br/> <br/>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27.txt

제목: 한달만에 초췌해진 김경숙…특검 "건강상태 고려해 영장 청구 결정"  
날짜: 20170112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12154313001  
ID: 01100701.20170112154313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한 달 전 국회 청문회 때와 확 달라진 모습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환에 응했다. <br/> <br/>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나온 김 전 학장은 눈썹이 전보다 옅어지고 털모자를 눌러쓴 채 나타났다. <br/> <br/>김 전 학장은 취재진의 휴대전화가 가슴 부위에 닿자 김 전 학장은 "<span class='quot0'>이쪽은 안 된다, 여기 수술한…(부위다)</span>"이라며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 <br/> <br/>지난달 청문회 때 김 전 학장은 혈색이 좋은 모습으로 "정유라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과는 판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br/> <br/>법조계 일부에서는 김 전 학장이 암 환자인 점을 들어 '구속 면하기·선처 호소' 전략을 쓰는 것같다고 의심했다. <br/> <br/>김 전 학장은 9일 국회 국조특위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span class='quot0'>본인은 2016년 6월 20일에 유방암 2기를 진단받아 절제 수술을 받았으며, 항암치료 중 극심한 고통과 통증을 수반하는 항암 화학요법 부작용을 겪고 있다</span>"고 밝힌 바 있다. <br/> <br/>김 전 학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씨가 2014년 9∼10월 부정한 방법으로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이듬해 수업 출석과 과제 제출을 부실하게 하고도 학점을 따는 등 온갖 특혜를 누리도록 한 데 깊숙이 관여한 의혹이 있다. <br/> <br/>특검측은 "김 전 학장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면서 "김 전 학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영장 청구 여부 등 김 전 학장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28.txt

제목: 담배, 한번에 끊을 수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잠깐씩 참는 것도 금연성공법"  
날짜: 20170112  
기자: 김정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12113023001  
ID: 01100701.20170112113023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br/> <br/> 담배가 백해무익(百害無益)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담배에는 니코틴, 벤젠, 나프틸아민, 비소, 카드뮴 등이 함유돼 있어 심혈관 질환, 암, 폐 질환을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멜라닌과 홍반 지수를 높여 얼굴색을 칙칙하게 만들고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br/> <br/>하지만 흡연자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금연에 성공하지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마약보다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을 하루 아침에 끊는다는 것은 웬만한 의지로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br/> <br/>금연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니코틴 중독이다. 흡연을 통해 들이마신 니코틴은 약 25%가 혈중에 녹아 15초이내로 빠르게 뇌에 도달하며 순간적인 긴장완화, 집중력 증가 등의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급속하게 반감돼 2시간이면 전부 사라지기 때문에, 담배를 끊게 되면 2시간 후부터 금단증상이 시작되며 보통 일주일이 지나면 절정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이를 고려해 담배를 끊을 때는 하루 아침에 끊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지킬 수 있을만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현명하다. 금연 시작일을 정해 단번에 끊는 단연법의 경우 오히려 담배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 수 있으므로 흡연 횟수를 점차 줄여나가는 감연법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br/> <br/>감연법을 시작한다면 우선 담배를 비롯해 라이터, 재떨이 등 흡연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시야에 두지 않아야 한다. 약속 장소를 정할 때 금연구역을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담배의 유혹이 가장 강렬한 기상 직후나 식사 후에는 시원한 물을 마시거나, 즉시 양치질을 하면 완화할 수 있다. 본인 의지만으로 흡연 욕구를 뿌리치기 힘들다면 금연 보조제의 도움을 받아 담배를 피우고 싶은 순간을 극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br/> <br/>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등의 금연보조제는 금단증세를 줄이고 흡연욕구를 완화해 금연을 도와준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 가능하며, 금연보조제를 사용해 금연할 경우 성공률이 약 2배 이상 높아지는 등 금연 효과도 뛰어난 편이다. <br/> <br/>니코레트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담배를 한번에 끊을 수 없다고 금연을 포기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작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금연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패치나 껌 등 금연보조제를 활용해 흡연 횟수를 줄여 나가는 것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효과적인 금연 방법</span>”이라고 말했다. <br/> <br/>한편 니코레트는 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한 금연 독려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잠깐씩 참는게 바로 금연입니다’라는 바이럴 영상을 선보이고 있다. <br/> <br/>더불어 니코레트 사이트 금연 캠페인 페이지에서 ‘금연 중 담배가 가장 피고 싶은 순간’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이벤트는 오는 2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설문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는 금연 선물을 제공한다. <br/> <br/>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29.txt

제목: [양향자의 The 건강한 음식] 팥 없는 붕어빵 상상해 봤니?  
날짜: 20170111  
기자: 송은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11204722001  
ID: 01100701.20170111204722001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호빵, 붕어빵, 국화빵…. 겨울이면 사랑받는 간식 거리에는 어김없이 팥앙금이 들어간다. 매력적인 맛으로 빵부터 아이스크림, 빙수까지 다양한 음식에 팥이 곁들여진다.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역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지에 팥죽을 먹는 게 전통이기도 하다. <br/> <br/>팥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팥에는 단백질, 지방, 당질, 회분, 섬유질 등과 비타민B1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각기병 치료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팥을 삶아 먹으면 신장염에 효과가 있다. 당뇨병에는 팥, 다시마, 호박을 삶아 약간 매운 듯하게 먹으면 좋다. <br/> <br/>팥은 대표적인 항산화식품이다. 안토시아닌계 색소 중 하나인 시아니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시아니딘은 항암·항염증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또한 식물에만 있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각종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체내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내보내는 효과가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br/> 팥양갱 <br/>재료: 한천 50g, 팥 1컵, 설탕 1/2컵, 물 <br/>만드는 법 <br/>① 한천은 물에 불려 물기를 짜고 냄비에 넣고 물 2컵을 넣어 끓이다가 녹으면 설탕을 넣어 녹을 때까지 끓여준다. <br/>② ①을 체에 걸러준다. <br/>③ 팥은 깨끗이 씻어 삶아 믹서기에 갈아서 체에 걸러준다. <br/>④ ②에 ③을 넣고 저어가면서 은근하게 끓여준다. <br/>⑤ ④를 네모난 틀에 붓고 굳으면 쏟아서 썰어준다. <br/>팥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B1은 탈모 개선에 도움을 준다.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혈액순환장애다. 비타민B1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모세혈관에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어 탈모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 외에도 팥에는 식이섬유 성분과 올리고당 성분이 사과의 13배, 고구마의 5배나 될 정도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장 기능 개선은 물론 장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br/> 팥죽 <br/>재료: 팥 2컵, 물 10컵, 쌀 1컵, 소금 소량 <br/>만드는 법 <br/>① 팥은 깨끗이 씻어서 냄비에 넣고 물은 팥의 2배를 부은 후 끓기 시작하면 물을 따라버리고 떫은 맛을 없앤다. <br/>② ①의 팥에 물 10컵을 부어 무를 때까지 삶아준다. <br/>③ ②의 팥이 삶아지면 체에 받치고 팥물은 받아둔다. <br/>④ 쌀은 깨끗이 씻어서 물에 불려준다. <br/>⑤ 냄비에 팥물을 넣고 불려놓은 쌀을 넣어서 푹 끓이면서 주걱으로 저어준다. <br/>⑥ 어느 정도 걸죽해지면 삶아놓은 팥을 넣고 푹 끓여준 다음 소금으로 간을 하여 그릇에 담는다. <br/>다만 팥을 조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섬유가 많고 조직이 단단하므로 미리 물에 불려서 충분히 팽윤시킨 후에 물과 함께 삶는다. 또 팥은 오래 삶아야 하므로 단시간 익혀야 할 경우에는 중조를 소량 넣으면 쉽게 무른다. 그러나 중조는 알칼리성으로 비타민B1을 파괴하는 단점이 있다. 팥을 물에 씻은 다음 팥이 잠길 만큼 물을 부어 삶기 시작하여 끓어 오르면 찬물을 반쯤 붓는다. 이렇게 하면 고르게 가열되어 속까지 천천히 열이 통하기 때문에 껍질이 터지거나 팥이 갈라지지 않고 깨끗이 삶아진다. <br/> <br/>국산팥은 낟알이 크고 굵으며 윤기가 반질반질 돌아 예쁜 팥색이 난다. 또한 배꼽 속의 흰 선이 선명하다. 중국산 팥은 반대로 낟알이 작고 먼지가 묻어 있어 윤기가 잘 나지 않고, 배꼽 속의 흰 선이 짧고 선명하지가 않다. <br/> <br/>(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언론사: 세계일보-3-530.txt

제목: 부담 줄고 보장 늘어난… 내게 맞는 보험 들어볼까  
날짜: 20170111  
기자: 이우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11030540002  
ID: 01100701.20170111030540002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새해를 맞아 보험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내세운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가계부채도 급속히 늘어가는 상황이라 보험사들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을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고, 가족력이 있다면 암보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사들은 실속 보장만 골라 가입할 수 있고 보장 범위를 확대한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br/> <br/>◆실손보험은 ‘필수’… 자동차보험은 운전 습관 따라 <br/> <br/>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 준다. 2015년 기준 약 33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대부분 암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의 상품과 패키지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br/> <br/>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의료쇼핑, 과잉진료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실손보험을 기본형+특약형으로 나눠 판매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비급여 항목 중 과잉진료가 빈발하는 도수치료 등 일부 보장을 제외한 기본형은 25%가량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입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추가로 보험료 할인 혜택도 준다. <br/> <br/>실손보험을 저렴한 가격에 가입하려면 인터넷을 통해 ‘보험다모아’를 방문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터넷에서 가입하는 다이렉트 보험상품은 일반상품에 비해 사업비가 축소돼 보험료가 절감된다. <br/> <br/>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표준화돼 있어 어느 회사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은 비슷하다. 따라서 보험료를 적게 내는 상품일수록 소비자에게는 유리한 셈이다. <br/> <br/>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차량을 덜 타면 덜 탈수록 유리하다. 사고율이 내려가기 때문이다. 이에 손보사들은 ‘마일리지 특약’ 제도를 도입했다. 주행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주행거리가 짧을 수록 더 높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br/> <br/>KB손보는 대중교통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을 내놨다.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4% 또는 10% 할인해준다. 현대해상과 동부화재는 가족 중 임산부나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안전운전에 더 신경 쓴다는 점에 착안한 상품을 내놨다. 현대해상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고객의 자동차보험료를 7% 할인해 주는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현대해상의 어린이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동부화재는 임신 중이거나 만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고객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베이비 인 카’ 특약을 출시했다. 임신 중인 고객에게는 10%, 만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고객에게는 4% 할인을 적용한다. <br/> <br/>◆보험사 새해 특명… “얇은 지갑 열어라” <br/> <br/>올해 보험사들이 새로 내놓은 상품 트렌드는 ‘가성비’로 요약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반영해 가성비를 내세운 상품들을 잇달아 출시했다. 보험료 갱신을 염두에 두고 실속 보장만 골라 가입하거나 해지시 환급금을 줄이는 등 월납 보험료를 줄인 상품이 등장했다. 보험료를 줄인 반면 보장범위는 확대해 저렴한 가격으로 폭넓게 대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br/> <br/>교보생명이 출시한 ‘생생플러스 건강보험’은 사망보장에 가입하지 않고도 5대 주요질환과 암, 간병 등을 보장한다. 가입자들의 수요에 맞춰 필요한 보장을 골라 가입할 수 있어 ‘DIY보험’으로도 불린다. 기존 건강보험 상품들이 주계약에 사망 시 보험금을 받는 질병사망이나 재해사망이 의무적으로 들어 있던 것과 달리 이 상품은 주계약을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말기 간·폐·신장질환 등 5대 질환으로 한정해 보험료를 낮췄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KB손보가 ‘The드림365건강보험’을 출시하며 실속형 종합보험 시장에 진출했다. 이 상품은 고객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질병, 상해, 배상책임 등 종합보장이 가능한 상품으로 기본적인 실손 담보에 사망, 후유장해, 각종 진단비 등 일생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건강보험이다. 뇌, 심장, 간, 폐, 신장 등의 질병을 경중에 따라 수술비·진단비 담보를 세분화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한화손보와 한화생명은 일상 중 상해와 차량·주택·인터넷상거래 등을 선택 보장하는 ‘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더’,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 조건을 완화한 ‘변액유니버셜 GI보험’을 각각 내놨다. <br/> <br/>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31.txt

제목: [재테크 브리핑] 일반 차보다 보험료 저렴한 전기차 전용 자동차보험 외  
날짜: 20170111  
기자: 이우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11030438002  
ID: 01100701.20170111030438002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일반 차보다 보험료 저렴한 전기차 전용 자동차보험 <br/> <br/>동부화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기차 전용 자동차보험’(사진)을 출시한다. 가입 대상은 10인승 이하 자가용 전기자동차로, 다음달 1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 판매된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자동차보다 보험료가 약 10% 저렴하다는 점이다. 기존 전기차는 일반 차량 대비 높은 차량 가격으로 보험료가 높은 수준이었지만, 전기차가 일반 차량에 비해 사고 위험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가격을 낮췄다. <br/> <br/>LTC 진단시 간병자금·소득보장자금까지 지급 <br/> <br/>한화생명은 사망보장에 장기간병도 보장하는 ‘한화생명 스마트LTC종신보험’을 내놨다. 이 상품은 일상생활 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인 LTC(장기간병상태) 진단 시 간병자금과 소득보장자금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 종신보험에서 LTC 보장을 받으려면 별도의 특약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LTC 발생 시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 형태로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해 주계약 보험료만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br/> <br/>암·뇌출혈 등 3대 질병 진단비 평생 보장 <br/> <br/>AIA생명은 보험 하나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 진단비를 평생 보장하는 ‘(무)AIA 평생보장 암보험’을 개정해 새롭게 출시했다. 이 상품은 AIA생명이 지난해 11월 텔레마케팅 채널 전용으로 출시했던 같은 이름의 상품으로, 새해를 맞아 대면 채널로 판매를 넓히면서 보장을 더했다. 가장 큰 변화는 업계 최초로 특약을 통해 암뿐 아니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을 종신 보장한다는 점이다. <br/> <br/>이우중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3-532.txt

제목: 저소득층 ‘맞춤형 의료복지’ 본격 시행  
날짜: 20170110  
기자: 이돈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10223822001  
ID: 01100701.20170110223822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인천시가 생활이 어려워 암 수술 등 치료를 미뤘던 저소득층에게 의료지원을 본격 확대한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인천 맞춤형 ‘공감복지’사업 중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9억5000만원을 투입, ‘인천 손은 약손’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br/> <br/>이 의료복지사업은 저소득층 중 의료지원에 필요한 환자에게 무료 검진 실시, 질환이 발견된 환자 중 암 6종과 정형외과·안과 수술 등에 대한 비급여 검사 비용·수술비·치료비·호스피스·장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r/> <br/>사업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저소득층이다. 암지원사업의 경우 국가검진사업과 연계해 인천의료원이나 1차 의료기관(의원급)에서 암검진 후 암 의심 또는 확진을 받고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원할 경우 1인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질환의 경우 인천의료원에 지불하는 비용은 전액 무료다. <br/> <br/>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33.txt

제목: 日 난치병 환자 위한 카페…"고민 함께 나눠요"  
날짜: 20170110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10160743001  
ID: 01100701.20170110160743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난치병을 앓는 이들이 모여 고민을 함께 나누는 카페가 일본 전역에서 문을 열고 있다. <br/> 난치병을 앓는 환자들이 모여 대화하고 있다. 주로 취업에 관한 고민이 많다고 전해졌다.아사히신문은 9일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환자들이 모여 고민을 상담하고 교류를 이어가는 '난치병 카페'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br/> <br/>난치병 환자들이 찾는 이 카페는 일반 카페와는 달리 치료에 관한 고민을 시작으로 질병을 이겨내는 노하우, 취업 등을 공통의 과제로 삼는 이들이 단골이다. <br/> <br/>지난해 10월 후쿠오카시에 문을 연 카페에는 날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한편, 지역 난치병 상담·지원센터 담당자와 취업 서포터도 찾아와 이들과 차를 마시며 취업과 직장 생활 등의 문제를 상담하고 있다. <br/> <br/>이날 '다발성 경화증(중추신경에 염증이 발생하는 병)'을 앓고 있는 30대 여성은 대학 졸업 후 정사원이 되었지만 증세가 악화해 시간제로 일하게 됐고, 지금은 병을 숨기고 파견 사원으로 일한다는 사연을 전해 공감과 위로를 받기도 했다. 이 여성은 "모두가 고민하고 때론 공감했다"며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고민을 말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br/> <br/>난치병 카페 'RDing 후쿠오카'의 대표 하루카(24)씨는 "<span class='quot0'>난치병에 대한 사회의 이해와 이들의 취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취업에 성공한 분들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span>"고 말했다. <br/> <br/>난치병 환자들이 자유롭게 찾아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서 시작된 카페는 지난 1년간 이바라키현과 치바현, 도쿄, 기타큐슈,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시에서도 문을 열었다. 이 중 일부는 의료 전문기관과 연계해 진로상담을 함께하는 곳도 있다. <br/> 지역 난치병 지원센터 담당자도 카페를 찾아 고민을 상담해주고 있다.한편 암이나 난치병 환자의 취업 지원은 지난해 9월 출범한 일본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아베 신조 총리는 장애인이나 난치병 환자가 일하기 쉬운 사회의 실현을 약속했다. 이에 후생노동성 측은 지난해 2월 이들의 지원을 위해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지침을 만들어 공표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br/>사진= 아사히신문 캡처

언론사: 세계일보-3-534.txt

제목: 70세 남편의 유산 노린 27세 아내의 탐욕…결과는?  
날짜: 20170110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10141436001  
ID: 01100701.20170110141436001  
카테고리: 국제>아시아  
본문: 사망한 고령 남편이 남겨준 재산 수억원도 모자라 자폐 환자 손녀에게 갈 유산에까지 손을 뻗은 ‘27세 아내’의 탐욕을 호주 법원이 가로막았다. <br/> <br/>지난 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호주판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난 니 루 아유 에비 프라스티카는 2014년 스물넷의 나이에 호주 퀸즐랜드주의 부호 러셀 왈터 오할로란과 결혼했다. <br/> <br/>러셀이 결혼했을 때 일흔이었으니, 두 사람의 나이 차는 무려 40년이 넘었다. <br/> <br/>인도네시아에서 유학차 호주로 건너온 니루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를 보이는 러셀의 손녀를 돌보면서 러셀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셀의 손녀는 자폐아였다. <br/> <br/>러셀은 니루와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결혼 전 이미 암 진단을 받았으니 사실상 니루는 러셀이 얼마 안 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br/> <br/>러셀이 사망한 뒤 니루는 그가 남긴 고급 차량 두 대와 15만호주달러(약 1억3300만원) 등을 상속받았다. <br/> <br/>  러셀이 사망한 뒤 니루는 그가 남긴 고급 차량 두 대와 15만호주달러(약 1억3300만원) 등을 상속받았다. 하지만 니루의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r/> <br/>하지만 니루의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러셀이 손녀에게 남긴 돈에까지 손을 뻗어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현지 법원에 제기했다. <br/> <br/>러셀이 남긴 재산이 100만호주달러(약 8억8300만원) 규모니, 손녀에게 갈 돈은 적어도 85만호주달러(약 7억5000만원)에 달했다. <br/> <br/>재산 다툼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br/>  <br/>퀸즐랜드 대법원은 니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br/> <br/>보디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니루가 약속한 대로 상속 재산을 자신의 학업에 쓰지 않고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부친 점을 지적했다. <br/> <br/>이에 니루는 “부모님께서 진 빚이 많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r/> <br/>니루는 또 러셀과 그의 손녀를 열심히 돌봤지만,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마저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br/> <br/>한편 러셀의 손녀를 누가 보살필지 아직 알 수 없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영국 데일리메일 캡처

언론사: 세계일보-3-535.txt

제목: 비타민 보충제, 잘못 먹으면 건강에 '독'  
날짜: 20170109  
기자: 박윤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09160350001  
ID: 01100701.20170109160350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사진=게티이미지비타민은 현대인에게 가장 친숙한 건강 보조제다. 제품별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이 몸에 무조건 이롭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보충제로 섭취할 경우 과다 복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몸에서 각종 성분끼리 상충이 나 흡수되지 못하거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독으로 변할 수 있다. 합성 비타민을 장기간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되레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br/> <br/>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음식에서 섭취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하지만 일상에서 모든 영양을 섭취하기 어려우므로 대부분 비타민에 의존한다. 의외로 당신이 매일 챙겨 먹는 비타민은 생각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다. 실제 미국 암 협회와 미국 심장 협회는 연구에서 종합비타민이 암 또는 심장질환을 예방한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br/> <br/>제대로 비타민을 섭취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다. 합성 비타민을 먹거나 과다 섭취하는 경우다. 채소나 과일 등 음식으로 섭취한 비타민은 몸에 이로운 영향을 주지만, 합성 비타민으로 섭취할 경우엔 생각과 달리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영국 일간 미러 등 해외매체가 비타민제 복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소개했다. <br/> <br/>1. 비타민D와 칼슘 보충제 <br/> <br/> <br/>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약해진 뼈로 인한 낙상과 골절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비타민 D를 챙겨 먹는 사람이 많다. 비타민D를 칼슘제와 함께 복용했을 때 골절 위험이 낮아지는 것은 잘 알려진 연구 결과다. 하지만 적정량 이상의 비타민 섭취는 되레 골절 위험을 증가시킨다. 비타민 D가 높은 경우 오히려 몸에 해로운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일부 비타민제는 일일 섭취량이 잘못 표기된 경우가 있으므로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br/> <br/>비타민D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달걀 노른자, 등푸른생선, 우유 등이 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음식을 통한 섭취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매일 30분에서 한 시간가량 햇볕을 자주 쐬면 필요한 만큼의 영양을 얻을 수 있다. <br/> <br/>칼슘 보충제에 대한 결론은 연구마다 분분하다. 칼슘은 해조류, 멸치 등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지만 조리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기 복용할 경우 심장 발작 위험이 30%가량 증가하고 신장 결석 및 소화 장애를 일으킨다는 연구도 있다. <br/> <br/>칼슘제 섭취에 대한 명쾌한 결론이 없다. 100% 천연 보충제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합성 보조제라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칼슘보충제를 섭취할 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없는 지 확인하고 되도록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br/> <br/>2. 오메가-3 보충제 <br/> <br/> <br/>칼슘과 함께 가장 많이 섭취하는 보충제는 오메가-3다.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혈행 개선이다. 기름지고 열량이 높은 식습관에 길들여진 현대인의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 벽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 준다. 신진대사와 지방 분해, 각종 성인병과 비만 예방 효과가 뛰어나며 특히 임산부에겐 필수로 알려져 있다. <br/> <br/>미국 심장학회는 심장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오메가-보충제를 섭취할 것을 권고했지만 권장량을 무시하고 많이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합성성분이 함유된 정제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오메가-3 보충제를 과다 복용할 경우에는 설사, 구토, 가려움증, 지혈이 안 되는 증상, 중금속 중독 등에 시달릴 수 있다. <br/> <br/>때문에 오메가-3를 안전하게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을 통한 섭취다.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는 자연식품은 등푸른생선,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등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br/> <br/>3. 마그네슘 보충제 <br/> <br/> <br/>우리 몸에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근육통, 손발 저림, 스트레스, 신경과민, 불면증에 시달린다. 하지만 권장량 이상 섭취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나타난다. 성인 남성의 마그네슘 섭취량은 최대 350mg을 넘지 말아야 하며 장기적으로 과잉 복용할 경우 심각한 신장 장애를 겪을 수 있다. <br/> <br/>신장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마그네슘 섭취가 좋지 않은데, 보충제를 통해 마그네슘을 섭취할 경우 몸에 들어간 마그네슘이 잘 배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시금치, 콩, 곡물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 씨 등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다. <br/> <br/>4.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보충제 <br/> <br/> <br/>글루코사민은 아미노산과 당의 결합물인 아미노당의 하나로 연골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로 알려진 글루코사민은 장기간 과다 복용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가 손상돼 당뇨병이 나타날 수 있다. 캐나다 라발 대학의 피카르 박사 연구팀에 의하면 글루코사민 과다 복용 시 베타 세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br/> <br/>글루코사민은 높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지만 과다 복용할 경우 베타세포 생존에 절대적인 SIRI 1 단백질을 감소시켜 베타 세포를 죽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제품은 권장량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br/> <br/>콘드로이틴은 탄수화물 일종인 뮤코다당류 성분으로 연골의 구성요소 중 하나다.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고 탄력을 증가하는 효능이 있으며, 어깨결림, 두통, 심신장애 등에 효과가 있다. <br/> <br/>콘드로이틴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오징어, 해삼 등 해산물이다. 특히 달팽이요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음식을 통한 섭취는 문제가 없지만, 이를 보충제로 장기간 과다복용할 경우 복부에 가스가 차거나 변이 물러지는 증상을 보인다. 또 출혈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니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br/> <br/>박윤희 기자 pyh@segye.com <br/>사진=게티이미지, 클립아트 코리아

언론사: 세계일보-3-536.txt

제목: '맥빠진 마지막 청문회'…朴 대통령 미용사 자매 등 증인 20명 중 18명 불참  
날짜: 20170109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09102833001  
ID: 01100701.20170109102833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분장사인 정송주·정매주 자매가 9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불참했다. <br/> <br/>이로써 증인으로 채택된 20명 중 18명이 불출석 사유서 등을 내고 불참, 맥빠진 청문회가 됐다. <br/> <br/>정씨 자매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span class='quot0'>불면증, 독감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방송 카메라 앞에서 정확한 증언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피폐해진 상황</span>"이라고 했다. <br/> <br/>당초 출석할 것을 보였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span class='quot1'>2016년 9월발병한 이석증이 검찰·특검 이후 재발해 어지럼증과 두통, 구토 증세를 겪고 있다</span>"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br/> <br/>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위증으로 고발된 상태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바 있다. <br/> <br/>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윤전추 행정관 등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br/> <br/>이영선 행정관은 검찰과 특검 조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br/> <br/>박재홍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은 연락두절,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은 해외 체류,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br/> <br/>조여옥 전 간호장교는 "청문회에 한차례 출석했고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국방부 위탁교육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br/> <br/>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도 암 치료를 이유로 의사 소견서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br/> <br/>추명호 국정원 6국장은 현직 국정원 요원으로서 공개석상에 나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구순성 대통령경호실 행정관은 2014년 4월16일이 휴무일이어서 증언할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br/> <br/>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도 암 수술 이후 요양치료 중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br/> <br/>이에 따라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20명 중에선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만 청문회에 임하게 됐다. <br/> <br/>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참고인으로 청문회에 출석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37.txt

제목: [밀착취재]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이 없다'…아픔은 현재진행형  
날짜: 20170108  
기자: 황정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08180634001  
ID: 01100701.20170108180634001  
카테고리: 지역>경기  
본문: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이 없다.’ <br/> <br/>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교육지원청 별관 ‘4·16 기억교실’ 2층 벽면 패널에 적힌 글귀가 유족들과 이곳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하다.  <br/> <br/> 세월호 1000일 세월호 참사 1000일을 하루 앞둔 8일 경기도 안산시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에 마련된 ‘단원고 4·16 기억교실’에서 한 어린이가 노란색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br/>안산=남정탁 기자9일로 1000일을 맞는 세월호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연말 이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이어지면서 세월호 참사를 새삼 떠올리는 이들이 많아졌다. <br/> <br/>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 6일 “<span class='quot0'>지난해 12월 10일 일반인들에게 ‘4·16 기억교실’을 개방한 이후 평일에는 50명, 주말에는 100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들은 유족 등의 안내를 받아 한 바퀴 둘러보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눈물을 흘리곤 한다</span>”고 전했다. ‘4·16 기억교실’은 지난해 8월26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한 교실을 이전해 재현한 곳으로, 1층에는 1∼4반, 2층에는 5~10반 교실과 교무실, 기억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교실에는 유가족과 생존자, 방문객들이 가져다 놓은 각종 사진과 선물이 ‘주인 없는’ 책상 위에 수북이 쌓여 있다. <br/> <br/> 세월호 참사 1000일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안산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찾은 천안세월호대책위 회원들이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br/>남정탁 기자 세월호 참사 1000일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안산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단원고 4.16 기억교실에 추모물품들이 놓여 있다. <br/>남정탁 기자 정부합동분향소가 있는 안산 화랑유원지 정문 인근 대로변에 ‘416 Remember’라고 쓰인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 트레이너가 분향소를 호위하듯 서 있다. 김영석 기자안산교육지원청에서 1㎞쯤 떨어진 화랑유원지 내에는 희생자 304명의 영정이 안치된 분향소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유족 대기실’ 간판이 붙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목공일을 하며 아픔을 달래고 있다는 당시 2학년1반 성빈이 아버지 박영우(60)씨는 “<span class='quot1'>아직도 아이 방의 물건 하나 치우지 못한 채 집을 나설 때마다 인사를 한다</span>”고 했다. 공방에 참여한다는 원빈(1반)이 어머니는 “엄마들은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아빠들은 아픈 가슴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생계를 위해 밖으로 다니느라 암에 걸려 죽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br/> <br/> 유족의 아픔은 이들의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하는 안산온마음센터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고영훈 안산온마음센터 센터장은 “<span class='quot2'>지난해 자살 위험 등이 우려돼 전문의 진료를 받은 피해자는 모두 266명이나 된다</span>”며 “<span class='quot2'>심리적 안정 등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가족과 생존자가 330명에 달했다</span>”고 전했다. <br/> <br/>안산=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38.txt

제목: '단백질 섭취'해 암 치료하겠다며 3달간 마트서 고기 훔친 50대女…형편이  
날짜: 20170106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06092005001  
ID: 01100701.20170106092005001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50대 주부가 암치료에 고단백 식품이 좋다는 말에 마트에서 석 달 동안 30회에 걸쳐 140만원 상당의 고기를 훔쳤다. <br/> <br/>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절도혐의로 A(5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br/> <br/>A씨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광주 북구의 한 소형마트 내 식육점에서 모두 30회에 걸쳐 포장된 쇠고기 38팩, 돼지고기 25팩 등 모두 140만원 상당의 육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지난 2015년 9월께 암 수술을 받고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A씨는 고단백질 음식을 섭취해 암을 치료하려는 의도에서 고기에 손을 댔다. <br/> <br/>경찰에 따르면 A씨는 크게 어려운 살림살이는 아니지만 비교적 고가인 고깃값을 아끼고자 몰래 들고 나왔다. <br/> <br/>A씨는 병원에서 외박 나와 주말에 집중적으로 마트에서 고기를 훔쳤으며, 훔친 고기는 집에서 음식을 조리해 먹었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39.txt

제목: 28년전 꿈에서 본 숫자로 복권 당첨된 여성  
날짜: 20170105  
기자: 이희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05141050001  
ID: 01100701.20170105141050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28년 전 꿈에서 본 숫자를 잊지 않고 복권에 지속적으로 응모한 한 캐나다 여성이 결국 50억원 상당의 당첨금을 갖게 됐다. <br/> <br/>5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은 캐나다 노바 스코시아에 사는 올가 베노(사진)가 1989년 5월 꿈에서 본 숫자로 계속 복권에 응모해 결국 530만 캐나다달러(47억5000만여원)의 상금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베노는 “난 그 숫자들을 늘 암기하고 있다”며 “텔레비전에서 숫자를 뽑는 데 그 숫자가 나왔다. 하지만 눈이 좋지 않아 그냥 넘겨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r/> <br/>그는 이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신문에서 그 숫자를 확인했다”며 “처음에는 신문이 실수한 줄 알았다. 여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br/> <br/>10년 전 4기 암 진단을 받은 베노는 치료를 받으면서 원래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해야 했다. 그는 이번에 생긴 복권 당첨금으로 목장 형태의 집을 살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건 남편과 아이들, 손주들 덕분”이라며 “가족들과 함께 디즈니월드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br/> <br/>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br/>사진=애틀랜틱 로터리

언론사: 세계일보-3-540.txt

제목: [김동환의 월드줌人] "제가 죽으면 각막 기증을"…어떤 소녀의 마지막 소원  
날짜: 20170105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05140537001  
ID: 01100701.20170105140537001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골(骨)암과 폐암 등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중국의 10대 소녀가 사후 각막기증 의사를 밝혀 네티즌들의 코끝을 찡하게 하고 있다. <br/> <br/>지난 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신문망과 인민망 등 외신들에 따르면 쓰촨(四川) 성 바중(巴中) 시에 사는 류윤화(19)양은 골암으로 2014년 7월, 오른쪽 무릎 아래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br/> <br/>2012년 어느 날, 무릎 아래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던 류양은 골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에 매진했으나, 2년여에 걸친 치료에도 나아지기는 커녕 고통이 더욱 심해져 결국 무릎 아래를 잘라냈다. <br/> <br/>한창 꿈을 품고 커갈 나이에 절단 수술은 류양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병이 심해지는 걸 막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잠든 사이 홀로 이불을 덮은 채 눈물 훔치는 날들이 이어졌다. <br/> <br/> <br/> <br/>류양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개된 것도 그 무렵이다. <br/> <br/>류양의 부모는 모두 이주노동자여서 집안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딸을 낫게만 한다면 팔 수 있는 건 모두 팔았다. 류양의 항암치료도 이들의 사연을 알고 온정의 손길을 내민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덕분에 가능했다. <br/> <br/>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류양의 가족은 지난 2일, “암세포가 폐로 전이됐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 류양은 현재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심지어 피까지 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br/> <br/>류양은 QQ와 위챗 등에서 사후 각막기증 의사를 밝혔다. 소녀의 마지막 소원이다.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온 만큼 자기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이유다. <br/> <br/>“지금까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분들 덕분에 살아올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저도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중국 쓰촨신문망 캡처

언론사: 세계일보-3-541.txt

제목: 日 병간호로 고생한 노부부 같은 날 세상 떠나  
날짜: 20170105  
기자: 이동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05133537001  
ID: 01100701.20170105133537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70대 노부부가 같은 날 생을 마감한 사건이 전해져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있다. <br/> <br/>4일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오사카 히라카타시 민가에서 70대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br/> <br/>현지 경찰 발표에 따르면 74세 남성은 1층 주방에서 70세 여성은 1층 화실에서 발견됐으며, 머리에 쓴 봉투를 밀폐하기 위해 끈으로 묶은 흔적 외에는 특이점이 없었다. <br/> <br/>부부는 암 간병문제로 고생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발견된 유서에는 ‘지인과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글이 적혀있었다. 경찰은 동반자살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r/> <br/>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42.txt

제목: 암환자 10명 중 6명, 투병중에도 술마셔  
날짜: 20170105  
기자: 박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05073535001  
ID: 01100701.2017010507353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음주 경험이 있는 암 환자 10명 가운데 6명은 투병 중에도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5일 고현영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암 진단을 받은 20세 이상 성인 1천269명의 음주습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br/> <br/>연구팀은 암에 걸리기 전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906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암 진단 이후 음주 여부를 조사했다. <br/> <br/>평생 술을 마셔본 경험이 없는 환자(307명)와 암 진단 이후 처음 술을 마셔본 환자(56명)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했다. <br/> <br/>이에 따르면  음주 경험이 있는 암 환자의 60.3%(546명)는 암 진단 이후에도 술을 마신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술을 끊었다는 암 환자는 39.7%(360명)에 불과했다. <br/> <br/>암 투병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환자 가운데 27.1%(148명)는 '고위험 음주'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고위험 음주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를 남성은 7잔, 여성은 5잔 이상 마시는 횟수가 한달에 1회 이상인 경우다. <br/> <br/>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약물과 알코올 의존'(Drug and Alcohol Dependence) 최근호에 발표됐다. <br/> <br/>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43.txt

제목: 보험사들 고객부담 낮춘 상품 잇단 출시  
날짜: 20170104  
기자: 이우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04204406001  
ID: 01100701.20170104204406001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새해 들자마자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확 줄인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br/> <br/>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다이렉트는 2일부터 장기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을 2.75%에서 3.00%로 인상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굴려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로, 예정이율이 높게 설정되면 같은 보험금을 받더라도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줄어든다. 보통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오르면 보험료는 5∼1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교보생명은 사망보험금을 없애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교보 생생 플러스 건강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기존 중대질병(CI) 보험과 비교했을 때 30∼40% 저렴하다. 더케이손해보험은 혈성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암 등 3대 질병 중 최초에 발생한 질병만 보장하는 대신 보험료를 줄인 ‘무배당 2030 실속 큰병보장보험’을 출시했다. <br/> <br/>KB손해보험이 내놓은 ‘KB 더드림365건강보험’은 갱신 기간을 20년으로 늘려 평균 보험료 부담을 줄인 상품이다. 갱신형 보험 상품은 갱신 기간 보험료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갱신 때가 되면 오르는데 이 상품은 갱신 기간이 15년인 동종 상품보다 5년 더 길다. <br/> <br/>앞서 삼성화재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개인용 2.7%, 업무용 1.6%, 영업용 0.4% 각각 내렸다. <br/> <br/>한편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내용 개선을 통해 3월부터 자동차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br/> <br/>그동안은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우선 자기 돈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준 다음 나중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br/> <br/>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44.txt

제목: [월드이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  
날짜: 20170103  
기자: 박병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03230911001  
ID: 01100701.20170103230911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한창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병원에서만 생활하는 소년이 있다. 그 소년은 영국 북부 타인위어주 남동부의 항만 도시인 선덜랜드에서 살고 있으며, 이름은 브래들리 로워리다. 올해 5살인 소년은 2013년 처음 신경모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신경모세포종은 교감신경절에 나타나는 종양으로 주로 5세 미만의 소아에게 발생하는 희귀암이다. 브래들리는 2014년 처음 발병한 암을 이겨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해 7월 몸 안에서 또 다른 암세포가 발견됐다. 다시 신경모세포종에 걸린 브래들리 치료를 위해선 70만 파운드(약 10억 3000만원)가 필요하다. 브래들리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펀딩 사이트에서 브래들리를 위한 모금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브래들리의 부모인 젬마와 칼은 아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브래들리 몸속에서 암세포가 계속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브래들리와 가족들은 프리미어 축구팀 선덜랜드의 열성 팬이다. 안타깝게도 병세가 악화해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미 천문학적인 치료비를 쓴 로워리의 어머니는 애타는 심정으로 도움을 구했다. 선덜랜드 구단은 이 소식을 듣고 브래들리를 위해 좋은 추억을 선물하기로 했고, 로워리를 지난달 15일 시축 주인공으로 초청했다. 첼시전에서 시축자로 나선 로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슈팅’을 했다. 하얗게 민 머리로 나타난 로워리는 골문 앞 5ｍ 지점에서 힘차게 공을 찼다. 공은 데굴데굴 굴러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로워리의 시축 장면은 전국으로 소개됐고, 전국에서 성금이 모였다. 쾌유를 비는 크리스마스 카드는 약 25만 장이 배달됐다. 브래들리의 이 골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2월의 골’로 선정됐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로 기억될만하다. 이에 앞서 부부는 지난 9월 브래들리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의료진의 동의를 얻어 브래들리와 함께 경기장을 찾았다. 하지만 이날 선덜랜드는 에버턴에 0-3으로 완패했다. 실망감을 준 장본인이 돼 버린 에버턴은 브래들리의 사연을 듣고 기부를 결심했다. 에버턴은 경기가 끝난 뒤 SNS에 “브래들리의 용감한 싸움을 위해 20만 파운드(약 2억 9500만 원)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날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의 유니폼을 경매에 부쳐 기부금을 지원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병헌 선임기자 bonanza7@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45.txt

제목: 3개월 시한부 삶 20대 청년, 한국인 첫 ‘투르드프랑스’ 완주기  
날짜: 20170103  
기자: 김신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03223405001  
ID: 01100701.20170103223405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반 고흐가 그렸던 해바라기밭과 프로방스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빛나는 햇살과 함께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 …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면서 병상에 누워 수없이 마음속에 그려왔던 바로 그 경관이다. 정말 행복하다. 계속 페달을 돌리면 이대로 천국을 향해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마저 든다. …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무리 페달을 돌려도 제자리인 듯한 길에서 비 오듯 쏟아지는 땀과 막혀오는 호흡과의 싸움은 너무 힘겹다.’(이윤혁의 일기 중에서) 한 청년에게 거짓말처럼 3개월 시한부 말기암 선고가 내려졌다. 그는 2년여에 걸친 2번의 수술과 25차례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이렇게 병원에서 죽지 않겠다”며 한국인 최초로 ‘투르드프랑스’ 풀코스 3500㎞ 완주를 결심한다. 투르드프랑스(Tour de France)는 매년 7월 프랑스 전역과 인접 국가를 일주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사이클 대회로, 프로 선수들도 힘겨워하는 ‘악마의 레이스’로 유명하다. ‘뚜르: 내 생애 최고의 49일’은 스물여섯 희귀암 청년 이윤혁이 한국인 최초로 ‘투르드프랑스’ 3500㎞ 풀코스를 완주한 49일간의 기록을 담고 있다. 영화는 꿈과 희망을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영화사 북극곰 제공‘뚜르: 내 생애 최고의 49일’은 스물여섯 살 청년 이윤혁이 인생 최대의 좌절을 생애 최고의 시간으로 바꾼, 도전과 용기를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영화다. ‘기적’이란 끊임없이 꿈꾸고 도전하는 이에게만 허락되는 것임을 목도하게 한다. 전 세계 200여명밖에 보고되지 않은 희귀암(결체조직작은원형세포암) 말기 판정은 마치 신이 윤혁에게 던진 짓궂은 농담 같다. 처음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윤혁도 당연히 분노했다. “왜 하필 나에게….” 하지만 그는 암환자로 다시 태어난 자신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결국 암 때문에 자전거를 만났고, 자전거로 불가능한 일을 해냈으며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희망을 보았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암환우들에게 자신이 본 ‘희망’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암세포가 내게는 기회였어요. 제 꿈이 병을 더욱 키웠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달릴 수 있었으니까요.”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처럼, 누구도 윤혁의 페달을 대신 돌려줄 수 없다. 영화는 윤혁의 꿈을 향한 도전 자체로도 감동을 주지만, 그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삶과 관계의 이면을 내밀하게 포착해내며 또 다른 감동을 하나 더 안겨준다. 윤혁과 스태프들의 동고동락을 통해 꿈이란 결코 아름답게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고단하고 때론 구차하게 함께 이루는 것임을 솔직하게 보여준다. 꿈을 이루는 힘은 그것이 자신만을 향할 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할 때 더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음을 일깨운다. 대개 암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는 피골이 상접하거나 진한 투병기를 다루는 게 일반적이다. 그 외연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보는 사람의 마음을 송두리째 뺏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정하 감독은 “<span class='quot0'>총 1000시간에 이르는 촬영분 속 윤혁의 모습이 우선 그렇지 않아서 좋았고, 그의 씩씩하고 당당하고 쿨한 모습에 매료되었다</span>”고 말한다. 윤혁은 이미 장기 다섯 개를 자른 상태였는데, 겉으로는 건강한 누구와 비교하더라도 달라 보이지 않았다. 임 감독의 유일한 연출 원칙은 ‘담담하게’였다. “<span class='quot1'>영화를 본 관객이 극장 문을 나설 때 공감으로 먹먹해진 감정을 오래 기억하길, 윤혁이라는 인물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봐주기를 바란다</span>”고 덧붙였다. 윤혁의 마음은 카메라를 보고 미소를 짓거나, 농담을 하거나,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에 욕을 내뱉을 때보다도 오히려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잘 드러난다. 임 감독은 세 장면을 꼽는다. 라이딩이 끝나고 홀로 링거를 맞는 모습과 레이스 일정 중간 팀원들의 불화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윤혁이 숙소에서 하염없이 비를 바라보는 대목, 그리고 병원 진료를 받고 돌아오는 버스 안의 뒷모습이다. 언제나 씩씩했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 두렵고 외로울 수밖에 없었을 청년 이윤혁의 심상이 보이는 장면들이다. 일부 평자들은 관객을 더 울리려면 윤혁이 병으로 일그러져 고통스러워하고, 더욱 불쌍해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임 감독은 윤혁을 투병하는 인간이 아닌 도전하는 인간으로 담담하게 그려냈고, 그 원칙을 끝까지 담대하게 고수했다. 체육교사를 꿈꾸던 근육질 청년 이윤혁은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군에 입대했다가 희귀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암 관련 자료를 탐독하다 전설의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을 알게 되고, 자전거에 빠졌다. 2008년 ‘투르드프랑스’ 완주를 결심하고, 이듬해 암이 재발하자 모든 치료를 중단한 채 급히 스태프를 구성해 프랑스로 떠난다. 7월 4일 모나코에서 시작해 8월 20일 파리의 개선문까지, 마침내 한국인 최초 투르드프랑스 3500㎞를 완주하고 돌아와 2010년 27세로 영면했다. 김신성 기자 sskim65@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46.txt

제목: 일, AI 활용 의료 일체화 실험  
날짜: 20170103  
기자: 우상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03194916002  
ID: 01100701.20170103194916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일본에서 병원·제약회사·건강관리 기업들이 공동으로 인공지능(AI)을 통해 치료·신약개발·건강관리를 일체화하는 시험에 착수한다고 산케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산하 연구소인 이화학연구소가 이 연구를 주관하며 도쿄대·오사카대·게이오대 병원 등 전국 20∼30개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및 건강관리 분야 기업 약 10곳이 참여한다. 이 연구는 오는 4월 시작되며 2020년 실용화가 목표다. 이번 연구 대상은 암과 치매, 우울증, 발달장애, 아토피성 피부질환, 자기면역질환, 관절염 등이다. 우선 의료기관이 축적한 수만명 규모의 치료 데이터 외에 환자 수백명에게 소형 센서를 장착해 일상생활에서의 운동과 심박수, 수면 등의 자료를 측정한다. 이런 막대한 데이터를 이화학연구소가 새롭게 개발한 AI로 해석해 환자마다 최적의 치료와 검사, 간호법을 찾아낸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47.txt

제목: 남자들이 꼭 알아야 할 몸단장 팁 8가지  
날짜: 20170103  
기자: 김지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03143131001  
ID: 01100701.20170103143131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침에 일어나 머리를 감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식사 후에 이를 닦는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몸단장 습관에 덧붙여 몇 가지 준비가 더 필요하다. 이것들을 일상의 한 부분으로 삼으면 당신의 건강, 보습, 체취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해외 노하우 공유 사이트 이하우(ehow)닷컴이 남성들이 꼭 알아야 할 몸단장 팁 8가지를 소개했다.  1. 손톱 정리 및 손질 지저분하고 단정하지 못한 손톱은 위생이 좋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모든 손톱을 같은 길이로 깎고 손톱 밑을 청소해 청결을 유지하라. 손톱 주변의 피부가 건조하거나 벗겨지면, 올리브오일 몇 방울로 보습한 다음 10분 후에 헹궈라. 2. 세안제로 매일 얼굴 씻기 거의 모든 뷰티 잡지는 여성들에게 매일 얼굴을 씻으라고 조언하는데, 남자들도 이를 따라야 한다. 매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부드러운 세안제를 사용해 얼굴 위 먼지와 기름을 제거하라. 3. 원치 않는 얼굴의 털 손질하기 인간은 자연적으로 털이 많은 생물이다. 하지만 당신이 짐승처럼 모든 털을 그냥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코털을 방치하지 마라. 콧구멍에서 털이 삐져나오지 않도록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코털을 손질하라. 코털을 다듬는 기계로 귀 주변의 잔털들도 제거할 수 있다. 4. 매일 치실 사용하기 치과 의사들은 정당한 이유로 매일 치실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치실은 치아 사이에 남아 있는 음식물과 치석을 제거하고, 충치와 잇몸 질환을 예방해준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치실을 사용하고 구강 세척액도 함께 사용하라. 5. 립밤 바르기 입술이 촉촉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외출하기 전에 립밤을 얇게 바르는 것이 현명하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립스틱, 립글로스, 립밤 등을 바른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입술 암 발병 가능성이 3배 낮아지는 효과를 준다. 햇볕에 노출 시 2시간마다 립밤을 덧발라라. 6. 면도 크림 사용하기 면도 크림은 이미 면도가 된 부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얼굴에 윤활제와 보습제 역할도 해준다. 면도하기 전 젖은 얼굴에 면도 크림을 두껍게 발라라. 면도 후에는 애프터 쉐이브나 보습제를 사용해 더욱 매끈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 7. 헤어컨디셔너 사용하기 적어도 이틀마다 머리카락을 샴푸 하는 것 외에 컨디셔너를 하는 것도 잊지 마라. 샴푸는 머리카락에 붙어있는 먼지, 환경 오염 물질 등을 씻어내 주고, 컨디셔너는 모발에 수분을 공급하고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보이도록 해준다. 머리카락이 특히 건조하거나 바스러진다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헤어 트리트먼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8.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얼굴뿐만 아니라 태양에 노출된 모든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라. 이렇게 하면 태양의 해로운 광선이 피부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피부암 발병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선글라스를 착용해 눈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라. 김지연 기자 kimjiyeonc@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언론사: 세계일보-3-548.txt

제목: [김기자의 톡戰] 대사증후군 1000만명 시대…"내 안에 시한폭탄 있다"  
날짜: 20170102  
기자: 김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02130141001  
ID: 01100701.20170102130141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통풍환자들은 일반인보다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송관규 고대구로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팀은 성인 통풍환자 151명을 대상으로 △복부비만 △고혈압 △고중성지방 △낮은 고밀도콜레스테롤 △공복 혈당상승 등 대사증후군 관련 지표의 위험도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를 보면 대상자 가운데 정상체중은 28.4%에 불과했고 △복부비만 46.5% △비만 41.9% △과체중 29.7%로 각각 집계됐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도 78%에 달했고 고중성지방혈증 54%, 낮은 고밀도 지단백질 콜레스테롤 46%로 분석됐다.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된 비율(관련 지표 가운데 3가지 이상 증상)은 50.8%로 2012년 기준 일반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 28.2%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송관규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결과는 통풍환자의 인슐린 저항성 증가가 복부비만으로 이어져 대사증후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span>"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대사증후군은 운동부족과 영양과잉섭취 등으로 현대인에게 급증하고 있는 질환이다. 해당 질환은 의학적으로 △두꺼운 허리둘레(남 90㎝ 이상·여 85㎝ 이상) △고혈압(수축기 130mmHg 또는 이완기 85mmHg 이상) △고중성지방(150㎎/㎗ 이상) △낮은 고밀도콜레스테롤(HDL) 수치(40㎎/㎗ 이상) △공복혈당상승(100㎎/㎗) 중 3개 이상이면 해당한다. 다시 말해 고혈압과 당뇨병·고지혈증·비만 등의 성인병 위험요인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게 대사증후군이라고 보면 된다. 한국대사증후군포럼은 이런 대사증후군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2월 첫 주를 '대사증후군 주간'으로 선포하고 있다. 허갑범 한국대사증후군포럼 회장은 "<span class='quot1'>대사증후군 자체는 병이 아니지만 고혈압·당뇨·고지혈증·중풍 등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대사증후군을 잘 관리하기만 해도 이런 질환들의 위험성이 3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span>"고 말했다. 대사증후군포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대사증후군예방 10계명'을 살펴본다. ◆복부비만 경계…팔다리 튼튼하게 =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인슐린저항성을 유발하는 복부비만이다. 허리둘레가 배꼽 바로 위를 기준으로 쟀을 때 남자 90㎝, 여자 85㎝ 이상이면 복부비만이다. 팔다리가 가늘고 배가 나온 사람은 십중팔구 대사증후군이다. ◆규칙적인 생활운동 습관화 = 규칙적인 운동은 체내 에너지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인다. 일주일에 3회, 하루 30분 이상, 약간 빠른 속도의 걷기는 복부비만 예방에 권장되는 운동이다. 운동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운동습관을 의식적으로 길들이는 게 좋다. 또 좌식 대신 입식으로 생활패턴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된다.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섭취 늘려야 = 쌀밥·빵·국수·감자 같은 고탄수화물 식품과 단순당, 설탕 등은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남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높이거나 복부에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이다. 또 과량의 유지를 사용하는 튀김, 볶음요리 보다 찜·굽기 등의 조리법을 이용하면 지방섭취를 줄일 수 있다. 기름기 없는 붉은 살코기·닭고기·두부·콩·저지방(무지방) 우유 및 유제품 등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함유된 만큼 적절히 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선·견과류 많이 먹어야 = 일반적으로 육류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포화지방·트랜스지방·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고지방 식품이기도 해 과도한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등푸른생선과 견과류에 들어있는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은 항염증 및 항혈소판 응집효과가 있어 혈중 지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만큼 육류 대체 식품으로 권장된다. ◆식이섬유소 많이 섭취 = 하루 식이섬유소 권장량을 충족하도록 주식으로 하루 3번 잡곡밥을 먹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매일 골고루 5번 이상 섭취하는 게 좋다. 채소와 과일에 함유된 식이섬유소는 탄수화물·식이콜레스테롤의 배설을 촉진해 혈당과 저밀도(LDL)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 곡류의 식이섬유소는 포만감 증대 및 장 통과시간 단축 효과로 열량섭취를 감소시켜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 ◆비타민·미네랄 충분히 섭취 = 사람의 몸은 산화시스템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대사성 산화물질의 축적을 억제하는 비타민 E·비타민 C·카로티노이드·나이아신·셀레늄 등 항산화제는 매일 섭취해야 한다. 특히 비타민D와 칼슘은 췌장에서 인슐린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골다공증과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설시켜 혈압을 조절하므로 짜고 맵게 먹는 우리 식습관을 교정하는 데 좋다. 마그네슘은 심근경색 및 뇌졸중의 위험을 낮춘다. ◆절주 = 적당한 적포도주의 섭취가 심혈관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아직은 미약하다. 건강한 사람도 과음하면 중성지방을 합성해 지방간을 유발하고 복부비만을 심화시키는 등 대사증후군을 악화시킨다. 금주가 제일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 하루 소주 1∼2잔(30g) 미만이 적절하다. ◆금연 = 담배가 해롭다는 것은 100번 이야기해도 모자라지 않다. 담배에 들어있는 각종 위해 성분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 벽에 상처를 내 만성염증질환을 유발함으로써 대사증후군을 악화시킨다. ◆충분한 수면…스트레스 관리 = 스트레스를 직·간접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암을 비롯한 만병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배려와 존중 △지나친 걱정이나 집착 내려놓기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피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아울러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 건강검진에는 대사증후군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항목이 모두 포함돼 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전문가로부터 대사증후군에 대한 평가를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한 예방법 중 하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언론사: 세계일보-3-549.txt

제목: [2017 신춘문예] 빅풋 - 석민재  
날짜: 20170102  
기자: 조용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02020216001  
ID: 01100701.20170102020216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군함처럼 큰 발을 끌고 아버지가 낭떠러지까지 오두막집을 밀고 갔다가 밀고 왔다가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스텝을 맞추며 말기 암, 엄마를 재우고 있다 죽음을 데리고 놀고 있다 죽을까 말까 죽어줄까 말까 엄마는 아빠를 놀리고 있다 아기처럼 엄마처럼 절벽 끝에서 놀고 있다

언론사: 세계일보-3-550.txt

제목: [2017 신춘문예] “꿈꾸던 성탄 선물… 투병 중 모친께 바친다”  
날짜: 20170102  
기자: 조용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02020216002  
ID: 01100701.20170102020216002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석민재 시인누구나 그렇듯이 쓸모없는 하나님이 제게도 있습니다. 감사와 은총보다는 원망과 타박이 필요할 때 종종 요긴합니다. 그런데 가끔 산타클로스처럼 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좀 놀랍습니다. 아니 많이 놀랍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선물을 잠깐 혼동하신 게 아니었나 할 정도로. 마치 어린 여자아이가 받은 성인용 브래지어·팬티 선물세트처럼 당선 통보는 신기하고 민망하고 설?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시를 잘 모릅니다. 내가 써놓고도 잘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가짜 같아서 어디다 버젓이 내놓을 만한 물건이 못 됩니다. 하지만 가끔 자해공갈단처럼 내 시를 중인환시에 던져놓고 싶었습니다. 온갖 모욕과 모멸을 참담하게 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던 수모 대신 누군가가 칭찬을 해줄 때는 하나님처럼 난감합니다. 그 칭찬을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꿈꾸던 농담이지만 비현실적입니다. 무슨 군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앞으로 잘 써야지요. 이렇게 겨우 시를 흉내 내는 데도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빚졌는데요. 특히 진주의 김언희, 유홍준 선생님, 하동의 김남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아니었으면 산타클로스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이신 친정의 어머니와 극진한 간병인이신 아버지께 이 선물을 고스란히 드립니다. 잠시 효도한 것 같아 위안이 됩니다. 끝으로 뽑아 주신 김사인, 황인숙 선생님과 세계일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한 줄의 약력을 쓸 때마다 상기하겠습니다. 이 어색한 소감문은 얼른 끝내고 서둘러 나를 학대하러 가야겠습니다. 석민재 시인 약력 △1975년 경남 하동 출생 △2015년 ‘시와 사상’ 신인상

언론사: 세계일보-3-551.txt

제목: [혼돈의 시대 재테크 전략] 6개월 단위 예금 들어 금리 상승 재빠른 대응  
날짜: 20170101  
기자: 황계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01210040002  
ID: 01100701.20170101210040002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로 올해는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금리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재테크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금리 상승기에는 보통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이 인기를 끈다. 만기가 짧을수록 이자율이 낮긴 하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높아진 금리 수준을 자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6개월 미만의 만기 상품에 돈을 넣어두었다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이 나오면 갈아타는 식이다. ◆은행 정기예금 만기는 짧게 시중은행들은 가입자가 만기를 6개월 이하로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예금상품을 내놓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해볼 수 있다. 지난달 18일 기준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의 ‘e-플러스 정기예금’은 만기 1개월 또는 3개월에 연 1.20%를, 6개월에는 1.30%의 금리를 각각 적용한다. HN농협은행의 ‘왈츠 회전예금2’는 1·3·6개월에 각각 1.17%, 1.38%, 1.48%를 제공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편이다. 같은 기준으로 Sh수협은행의 ‘사랑해 나누리 예금’은 1.10% 1.20% 1.30%이다. 이밖에 KB국민은행 ‘e-파워정기예금’과 신한은행 ‘S드림 정기예금’, 우리은행 ‘키위 정기예금’(확정형), SC제일은행 ‘e-그린 세이브 예금’, 한국씨티은행 ‘프리스타일 예금’ 등도 만기를 1·3·6개월로 나눠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은행권의 금리 인상 추세가 더디면 우대금리를 포함해 금리 수준이 높은 장기 예금에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만큼 가입 전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미국 달러 강세에 대비한 외화 정기예금도 은행권 추천 상품이다. 국민은행은 1개월 단위로 이자율이 상승하는 계단식 금리구조와 우대금리, 분할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UP) 외화정기예금’을 추천했다. 금리 인상에 대비한 단기자금 운용 고객을 겨냥한 1년 만기 상품으로, 만기를 포함해 3회까지 금리 손해 없이 인출할 수 있다. ◆‘건강 특약’으로 보험료 절약을 보험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요금 할인폭을 넓힌 상품에 관심을 가져봄 직하다. 보험업계는 인터넷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건강할수록 요금이 낮아지는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 금연과 다이어트를 특약에 포함한 상품이 눈길을 끈다. 건강특약은 흡연 여부와 혈압수치, BMI(체질량지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는데, 몇몇 보험사에서는 비흡연만 조건으로 내걸기도 한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암보험, CI(치명적 질병)보험 등 사망 또는 질병에 관한 보장성보험에 주로 적용된다. 가입자 연령이나 상품별로 다를 수 있는데, 특약 가입에 따른 평균 보험료 할인율은 남성 8.2%, 여성 2.6%다.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암보험, 5대 성인병 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 대부분에 비흡연 할인을 적용한다. 이 회사의 ‘e암보험’은 업계 평균 요금 대비 약 25% 저렴한 데다 비흡연자에게는 약 8.9%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1년간 금연에 성공한 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이프플래닛은 또 작년 7월 가입자를 건강상태에 따라 △표준체(흡연자) △비흡연체 △건강체 △슈퍼건강체(평생 비흡연자 등)로 세분화해 요금을 최대 41% 할인해주는 정기보험을 출시했다. 미래에셋생명과 한화생명 온슈어도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정기보험을 통해 흡연 여부와 혈압, BMI 수치를 만족한 가입자를 상대로 비흡연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황계식·이우중 기자

언론사: 세계일보-3-552.txt

제목: 여주 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 사업 무산  
날짜: 20170101  
기자: 송동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70101151248002  
ID: 01100701.20170101151248002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경기도 여주시가 외국계 기업과 함께 추진하던 투자비 8000억 원 규모의 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 사업이 무산됐다. 시의회 일부 의원이 관련 외국계 기업의 투자 순수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자 해당 기업이 협약을 해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여주시에 따르면 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 사업은 시가 지난해 4월 19일 미국 현지에서 프로톤 인터내셔널 그룹 아시아지역본부(Proton International HK Limited)와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여주시는 프로톤 인터내셔널 그룹이 여주시 북내면 중암리 일대 50만 평 부지에 8천억 원을 투자, 2019년을 목표로 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를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는 암 치료 및 당뇨병 치료 전문병원과 함께 체류형 치료와 의료휴양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호텔, 헬스케어 리조트, 스마트 빌리지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었다. 당시 원경희 여주시장은 "<span class='quot0'>이 사업으로 고용창출과 유동인구 증가가 이뤄져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고 여주가 국제 의료휴양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span>"고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이 투자회사는 K건설과 사업용지 매매를 위한 계약 단계까지 진행했지만, 계약금 및 대금 지급 방법에 이견이 생겨 정식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했다. 여기에다가 여주시의회 이항진·윤희정·김영자 의원이 사업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김영자 의원은 협약 체결 후 두 달만인 지난해 6월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span class='quot1'>국제메디컬헬스 복합리조트 사업이 인천 청라지구에서 사업의 문제점과 신뢰성 때문에 실패한 사업인데, 여주시가 제대로 확인도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span>"고 지적하며 "<span class='quot1'>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지 따져봐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시정 질문에서도 "여주시와 맺은 협약을 이용해 투자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법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시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span class='quot1'>투자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할 돈이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부지를 사지도 않았는데 여주시가 성급하게 협약 먼저 체결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여주시와 협약문서를 들고 부산 등에서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제보가 들어오는 등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커 보였다</span>"고 말했다. 시의회의 반발과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결국 프로톤 아시아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투자기업은 "<span class='quot2'>우리 기업의 투자업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업 신뢰도가 하락해 국내 협력업체 구성에 어려움이 크다</span>"고 협약 해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업 서 모 대표는 "<span class='quot3'>이 사업을 위해 30년 기간의 헬스케어본드(채권)도 발행했고, 토지 매입자금으로 1000만 달러(약 118억 원) 지급보증 수표도 들어왔다</span>"면서 "<span class='quot3'>우리가 여주시와 협약을 이용해 불순한 의도로 수익을 창출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오해를 받는 게 너무 힘들다</span>"고 말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4'>각종 규제로 묶인 여주시에 8000억원 투자가 이뤄지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컸다</span>"면서 "<span class='quot4'>기업이 다시 사업투자 의사를 보이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span>"고 말했다. 여주=송동근기자 sdk@segye.com